

정책연구
2025-11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에 관한 연구

손연정 · 박명준 · 이병희

정책연구
2025-11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에 관한 연구

손연정 · 박명준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손연정) 1
제2장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 분석	(손연정) 3
제1절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선행연구	4
제2절 분석 자료	6
1. 분석 자료	6
2. 주요 변수 구성	6
제3절 분석 결과	9
1.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자산·소비 변화 추이	9
2.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구조 차이	12
3.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항목별 소비탄력성 차이	15
4.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분석	18
5. 고용형태별 소비지출 격차 요인분해 분석	26
제4절 소 결	28
제3장 노동지위에 따른 금융접근성과 소비태도 : 청년세대에 관한 질적분석	(박명준) 31
제1절 문제의식	31
제2절 이론적 논의	33

제3절 접근방식	35
1. 분석틀의 구성 : 고용-금융-소비의 삼각구조	35
2. 질적 조사 방법의 활용	36
제4절 분석 결과	41
1. 집단별 특성 정식화	41
2. 쟁점별 조건과 태도	53
제5절 소 결	64
제4장 실업 시 소득 지원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이병희)	69
제1절 서 론	69
제2절 선행 연구	70
제3절 실업급여 수혜율	72
제4절 실업급여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77
제5절 요약과 시사점	8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손연정 · 박명준 · 이병희)
85	
참고문헌	90
부 록	95

표 목 차

〈표 2-1〉 노동시장 지위 범주	7
〈표 2-2〉 주된 일자리 노동시장 지위별 비중	8
〈표 2-3〉 노동시장 지위별 소비항목 비중(2023년)	15
〈표 2-4〉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	18
〈표 2-5〉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2008~2023년)	21
〈표 2-6〉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별 총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08~2023년)	22
〈표 2-7〉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08~2023년)	25
〈표 2-8〉 정규직-비정규직 소비지출액 격차 요인분해 결과	27
〈표 3-1〉 노동시장 지위, 금융접근성, 소비능력	36
〈표 3-2〉 단순가설	36
〈표 3-3〉 피면접인 리스트	40
〈표 4-1〉 실직 시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2023년)	76

그림목차

[그림 2- 1] 노동시장 지위별 비중 추이	8
[그림 2- 2] 가구소득 변화 추이	10
[그림 2- 3] 금융자산 변화 추이	10
[그림 2- 4] 가구 소비지출 변화 추이	11
[그림 2- 5]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11
[그림 2- 6] 소비지출항목별 비중 추이(1)	13
[그림 2- 7] 소비지출항목별 비중 추이(2)	14
[그림 4- 1]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조사자료, 2019년)	73
[그림 4- 2]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행정 통계, 2018년) ·	74
[그림 4- 3] 임금근로자의 실직 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75
[그림 4- 4] 임금근로자의 실직 시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 추이	76
[그림 4- 5] 실직 경험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78
[그림 4- 6]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비자발적 실직자)	79
[그림 4- 7] 실직 전 임금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80
[그림 4- 8] 실직 경험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82
[그림 4- 9]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자발적 실직자)	82
[그림 4-10] 실직 전 임금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비자발적 실직자)	83

요 약

1. 서론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시장 지위는 시장임금 격차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 소득의 예측 가능성, 더 나아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투자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격차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한 정량 분석과 심층면접조사(FGI)를 활용한 정성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계 소비 불평등과 자산 형성 능력의 격차, 더 나아가 계층 이동성 저하로 이어지는 장기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지위 → 금융 접근성 → 소비 능력 → 자산 형성과 기회 축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작용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기획·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계의 단기적 소비 위축 위험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에 따른 소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안 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2.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 분석

제2장에서는 기존의 임금 중심 불평등 논의를 소비 불평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노동시장 지위의 계층화가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지출 수준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지위는 개인의 일자리 질을 좌우하는 두 축인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비취업, 비임금근로,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2008~2023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 자산, 소비 격차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임금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의 순으로 가구소득, 금융자산, 소비지출 수준 모두 계층화 양상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소비구조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식비, 사교육비, 주거비 항목에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기반을 가진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문화비, 의류비 등 선택적 소비 항목의 지출이 현저히 낮고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장기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지점이다.

셋째, 동일한 소득 변화에도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비목별 지출의 민감도와 가구의 소비 조정 능력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Aguiar and Bils(2015)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소비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예컨대 외식비, 의류비, 사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의 항목에서 대기업 정규직 가구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집단에서는 소득 변화에 따른 지출 민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에도 선택적 소비로 확장하기보다는 필수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을 암시한다. 또

한 이는 고용안정성이 가계의 소비행태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CRE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및 가구주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간 불변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가구 소비에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지위가 낮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인과적 효과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지위별 소비 격차는 필수재보다는 선택재에서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2장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기업규모보다는 고용형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소비 격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분해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 간 소비지출 격차를 두 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구성효과)와 두 집단의 특성이 동일함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구조효과)로 나누어 보는 것인데, 분석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지출액 격차는 2008년 0.164에서 2023년 0.295로 확대되었으며, 추정된 소비 격차 가운데 구성효과가 전체 격차의 약 75~80%, 구조효과가 약 20~2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비격차에 있어 구조효과가 확대된 것은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가 가계의 소비 심리 및 지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격차뿐 아니라 소비여력, 소비행태, 소비 조정능력의 격차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는 사교육·문화·여가·내구재 등 선택적 소비 항목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기반을 가진 가구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고용과 소득 불안정에 놓인 가구는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

조에 간혀 미래지향적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과 문화 영역의 소비 격차는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가 단기적인 소득 문제를 넘어 가계의 장기적인 삶의 질과 재산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 고리를 약화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과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지위에 따른 금융접근성과 소비행태 : 불평등에의 함의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금융접근성 및 소비격차의 관계를 질적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불평등이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은 사람들 사이의 수치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금융·정서·시간·경험의 층위가 서로 맞물려 복합적 체계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즉, 소비불평등은 소비 규모의 차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정서적 회복의 여유가 있는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금융을 기회로 경험하는가 또는 위험으로 경험하는가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소비불평등을 “돈의 문제”에서 “삶의 가능성과 정서적 자원의 배분 문제”로 확장시키게 한다.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금전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소득의 예측 불가능성, 시간의 불규칙성, 사회보험의 부재, 가구 책임의 압박 속에서 일상의 소비를 줄이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소비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인 소비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으로 예측되고 생활 리듬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의 구축이 필요하다. 소득

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고용안정·소득안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험·여행·정서적 회복 자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불안정 노동층에 대한 공공여행 바우처, 지역 기반 저비용 장기 체류 공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휴식·회복 프로그램 등 일종의 '경험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자영업·프리랜서 등 소비와 금융에서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서적 회복을 위해 감성·취향 소비를 유지하며 노동시간과 소득의 극단적 불규칙성을 경험하는 집단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제3장에서 드러낸 소비불평등의 가장 본질적인 함의는 선택권 자체의 불평등이다. 어떤 집단은 소비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은 소비를 생존 때문에 삭제해야 하며, 어떤 집단은 감정 회복을 위해 소비를 강제로 유지해야 하고, 또 어떤 집단은 미래를 위해 소비를 억눌러야만 한다. 소비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의 의미, 즉 소비가 삶에서 어떤 감정적·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이다. 즉, 소비를 덜하거나 더 하는 것이 불평등의 핵심이 아니라, 소비를 구성하는 감정·시간·기회의 구조 자체가 계층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며, 향후 이러한 측면이 정책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금융·소비·정서·여행을 각각 따로 분리한 정책적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불안정 노동이 금융을 위축시키고, 금융 위축이 소비를 축소시키며, 소비 축소가 정서적 회복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정서적 결핍이 다시 노동 유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비불평등의 완화는 단일한 정책 도구로 해결될 수 없다.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험 확대, 저부담 금융, 정서회복 정책, 안정적 주거기반 등 노동·금융·소비·정서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실업 시 소득 지원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제4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실직 발생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은 유의하게 가구 소비를 하락시키며,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실직 전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둘째,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크게 낮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은 가구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한액을 수급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실업급여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지만, 실직 2년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칭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직 발생 전에 소비가 미리 감소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에서 감소폭이 더 작게 나타난다. 실업급여라는 실업 안전망의 존재가 실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OECD(2023)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소득의 변동성이 큰 비전형 근로 형태에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위험이 임금 근로 형태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할 필요는 크다.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통해 노동소득을 매월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 행정의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편적인 적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목적은 실업 위험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여, 고용 위기 동안 실업급여의 거시경제적인 자동안정화 역할일 클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고용 회복기에도 실업급여 지출이 그다지

줄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정책과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가 실직 직전에도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줄이고 실직 기간 동안에는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며, 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연간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표본 수가 많지 않았다. 향후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임금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것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 후생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는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에 갇혀 사교육비, 문화비, 의류비 등 선택적 소비와 미래지향적 소비·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소득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예측 불가능성, 시간의 불규칙성, 사회보험의 부재, 가구 책임의 압박 등에 의해 유발되고 있으며, 낮은 고용지위에 있는 집단의 소비 위축은 궁극적으로 경험·여행·정서적 회복 자원의 계층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소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상병수당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완화 등을 통해 가계의 단기적 소비 위축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업급

여라는 사회안전망의 존재가 실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의 평활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통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포괄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다면, 사회정책적 자원들이 현실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필요들을 적재적소에 채워주는 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의 관심을 소비구조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 자영업·프리랜서에 대한 기존의 소득지원 중심 정책에서 더 나아가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등 새로운 소비구조 기반의 불평등 완화정책의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고소득층이라도 노동의 형태에 따라 삶의 질과 소비 능력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전문직 상층집단에 대해서도 적절한 문화여가 소비에 대한 지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험 확대, 저부담 금융, 정서회복 정책, 안정적 주거기반 등 노동·금융·소비·정서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금융접근성의 문제는 소득 구조기반 사회정책의 측면과 소비구조기반 사회정책 모두의 기획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측면을 보면,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가구의 경우 자산 형성 기회마저 제한되어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비전형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금융 소외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소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 보완, 정책 금융 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측면에서는 특히 여행 등 상대적으로 소비 부담이 큰 소비 기회에 대한 공공여행바우처 등 정책금융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교육과 여가 및 문화자원 향유의 기회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러한 영역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교육 등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된 소비 격차 완화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교육 및 문화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은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의 교육과 문화 영역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영역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종·업종 등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이철승, 2017; 백승호, 2014).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에 관심을 두어 왔다. 하지만 가계의 실제 후생과 삶의 수준은 소비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Meyer and Sullivan, 2003; Deaton, 2003)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구조화된 소비의 행태와 소비 격차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는 시장임금 격차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 소득의 예측 가능성, 더 나아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투자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격차를 발생시킨다.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가구는 불규칙한 소득과 기존 금융기관 소득 정보 접근성 제한으로 금융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금융 수단을 통한 소비 조정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큰 가구는 예방적 저축을 확대하고 선택적 소비를 더욱 크게 제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고용 형태와 금융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가구의 소비지출, 저축 계획, 자산 형성의 기회가 달라지고, 그 결과 소득 격차가 금융·자산·소비의 격차로

확장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기회 형성과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한 정량 분석과 심층면접조사(FGI)를 활용한 정성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계 소비 불평등과 자산 형성 능력의 격차, 더 나아가 계층 이동성 저하로 이어지는 장기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시장 지위 → 금융 접근성 → 소비 능력 → 자산 형성과 기회 축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작용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기획·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계의 단기적 소비 위축 위험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에 따른 소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의 소비 수준 및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고용지위와 금융접근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실업 시 실업급여를 통한 소득 지원이 가구 소비 평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

제 2 장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 분석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그동안 지속적인 외형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 통합이 위협받고 있다(황덕순 외, 2013; 박명준, 2018; 장지연 외, 2019).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를 두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는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를 확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중구조의 원인 분석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추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조동훈, 2009; 송상운, 2018; 문영만, 2019; 금재호·최재문, 2021; 이인재·김태기, 2009; 백학영, 2013).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소득 격차가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은 단순히 현재 소득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및 고용 불안정성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지출 의사 결정에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Leland, 1968;

Caballero, 1990; Carroll, 1997; Christelis et al., 2015).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가구는 현재 소득이 높더라도 미래의 실직 위험과 소득 변동성에 대비하여 예방적 저축을 확대하고 소비 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위험 회피적 행태를 보인다(Leland, 1968; Kimball, 1990). 이러한 소비 조정 행태로 인해 노동시장 지위 간의 소득 격차는 실제 가계의 후생 또는 삶의 질 격차를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서 가계의 소비 지출 수준 및 구조가 소득보다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손연정 외, 2019; 이현주 외, 2016; Meyer and Sullivan, 2003; 2017; Blundell and Preston, 1998).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임금 중심 불평등 논의를 확장하여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시장 지위의 계층화가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지출 수준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의 소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가 무엇인지는 오랫동안 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노동시장 내 계층화가 단순한 소득 격차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 경로 외에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연구가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이 가계의 신용 이용 가능성 및 유동성 제약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Zeldes, 1989; Jappelli, 1990; Atkinson, 2007; 김용선·전봉걸, 2020). Zeldes(1989)는 항상소득 가설이 예측하는 소비 평활화가 현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는데, 자산이나 신용 이용이 제한된 가구들이 소득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소비를 크게 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Jappelli(1990)는 미국의 가계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직업 안정성이나 고용상

태와 같은 고용지위가 신용 제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 역시 가계가 미래 위험에 대비한 전략적인 소비 조정을 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 Carroll(2009)은 높은 실업 위험에 직면한 가구들이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고 예방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Benito(2006)의 연구도 고용 불안정이 특히 내구재 소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관련 국내 연구 중에서는 임찬영(2021)이 비정규직 및 자영업 가구가 전반적인 소비 지출 규모가 작고 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의 반응도가 이질적임을 보임으로써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가계의 장기적 소비 행태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적 선호와 규범 역시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Duesenberry(1949)의 상대소득가설은 개인이 속한 준거 집단의 소비수준이 자신의 소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준거 집단의 소비수준에 부응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개인의 소비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Bourdieu(1986)는 이러한 소비의 사회적 성격이 단순히 모방을 넘어 계층 간의 구별 짓기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보였으며, Alwitt and Donley(1998)도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직업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소비양식을 공유하는 사회계층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 행위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와 계급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며, 상위 계층은 교육, 문화, 여가, 음식 등 모든 영역에서 하위 계층과 구별되는 취향과 소비 양식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는 한편, 하위 계층은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연구들 역시 직업과 계급 내에서 지식과 가치관 공유가 소비 취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최유정·최셋별, 2012; 장미혜, 2001), 동료 및 이웃의 소비가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조은, 2001; 남은영, 2010).

마지막으로, 소득 변동성과 예측 가능성은 소비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준다. Moffit and Gottschalk(2002)는 불안정 노동시장에 놓인 계층일수록 소득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소비 안정성이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Dynan et

al.(2012)은 이러한 소득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소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변동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및 자영업 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비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정주연·김재호, 2020). 이러한 불안정성은 가계의 중장기적인 계획 소비를 어렵게 만들고,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가계 소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1차(2008년)부터 제26차(202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KLIP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단형 패널 데이터로,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동일 가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KLIPS 조사는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소득, 자산, 소비, 고용, 근로환경 등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생각된다. 현재 1차 조사(1998년) 자료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주요 변수 구성

가. 노동시장 지위 변수

노동시장 지위는 개인의 일자리 질을 좌우하는 두 축인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바탕으로 비취업, 비임금근로,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만, 여기서

는 취업자에 한해 분석하므로 비취업을 제외한 5개 노동시장 지위 변수를 고려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정의에 따르는 방법, 두 번째는 종사상지위 분류에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문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2008~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지위별 비중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지위로의 이행이 확인된다. 분석 전체 기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규직은 2008년 37.0%에서 2023년 32.8%로 약 4.3%p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008년 11.9%에서 2023년 19.3%로 약 7.4%p 증가하여, 중소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24.4%에서 2023년 20.7%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기업 비정규직은 2008년 7.5%에서 2023년 8.8%로 소폭 증가하여 대기업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다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표 2-1〉 노동시장 지위 범주

	내용
대기업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기업 비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상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비임금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종사상지위에 '자영업'이라고 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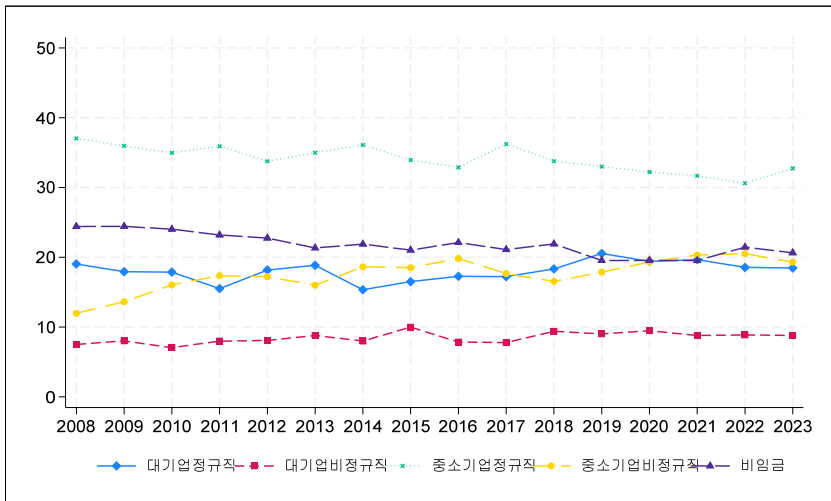
자료 : 장인성 외(2023: 37).

〈표 2-2〉 주된 일자리 노동시장 지위별 비중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임금	전체
전체	전체	18.1	8.5	34.0	17.7	21.7	100.0
	남성	17.3	7.2	34.6	15.3	25.7	100.0
	여성	19.2	10.3	33.3	21.0	16.2	100.0
2008	전체	19.1	7.5	37.0	11.9	24.4	100.0
	남성	16.8	7.2	39.6	9.9	26.6	100.0
	여성	22.4	8.0	33.3	15.1	21.2	100.0
2013	전체	18.9	8.8	35.0	16.0	21.3	100.0
	남성	18.4	7.8	35.2	13.6	24.9	100.0
	여성	19.5	10.1	34.7	19.3	16.5	100.0
2023	전체	18.5	8.8	32.8	19.3	20.7	100.0
	남성	17.6	8.0	31.0	17.7	25.7	100.0
	여성	19.6	10.3	33.3	21.0	16.2	100.0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 노동시장 지위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나. 소비지출 관련 변수

소비지출은 KLIPS 가구조사 부문 중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식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주거비, 문화비 등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소득, 자산, 소비 관련 모든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환산하였고, 가구규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자산·소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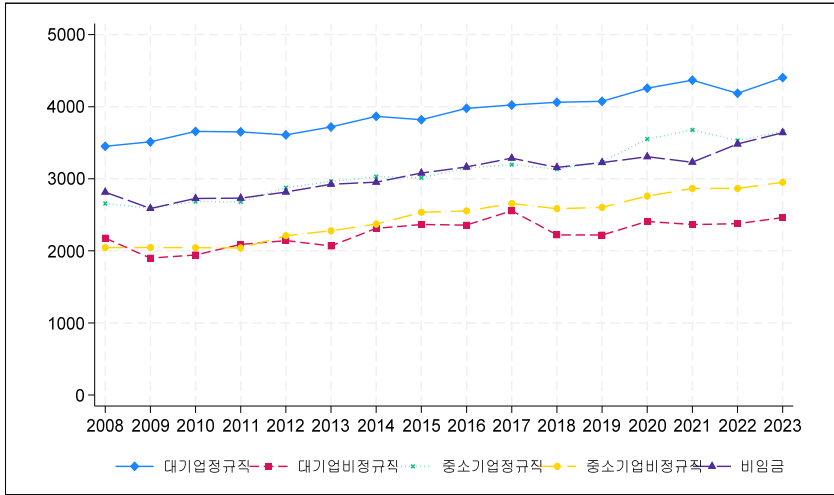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KLIPS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그림 2-2), 대기업 정규직, 비임금근로,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순으로 소득 수준의 뚜렷한 계층화 구조가 확인된다. 임금근로자 내부에서는 기업규모보다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소득 격차를 크게 벌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가구소득과 유사한 계층적 분포가 관측되었는데(그림 2-3), 대기업 정규직 가구의 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비임금근로와 중소기업 정규직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비정규직 가구는 금융자산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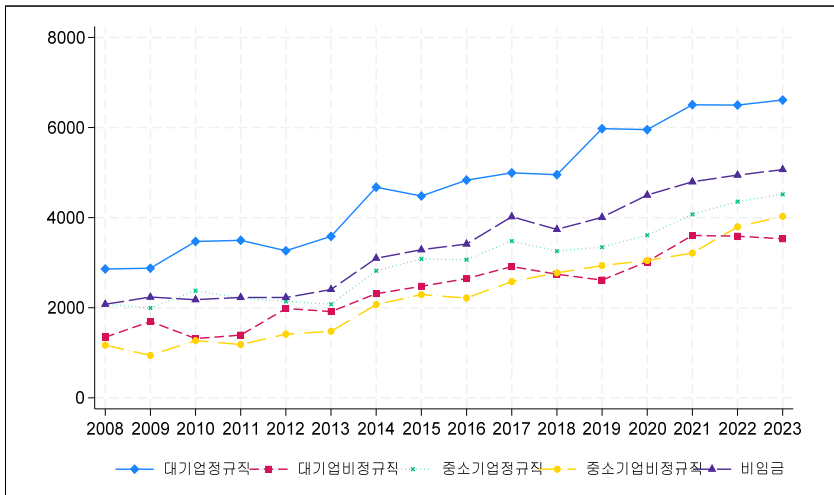
소비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의 변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그림 2-4). 다만 비정규직 가구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비임금근로 가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지출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비임금

[그림 2-2] 가구소득 변화 추이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그림 2-3] 금융자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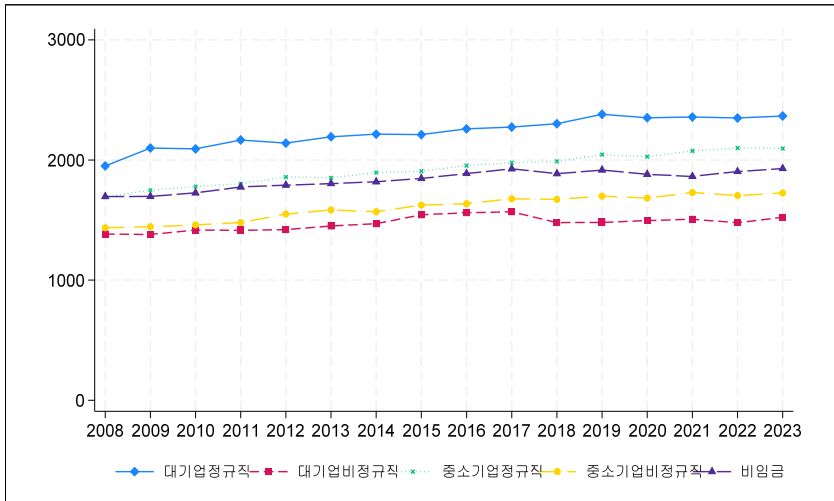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근로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소비 완충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 지위는 소득수준 격차뿐 아니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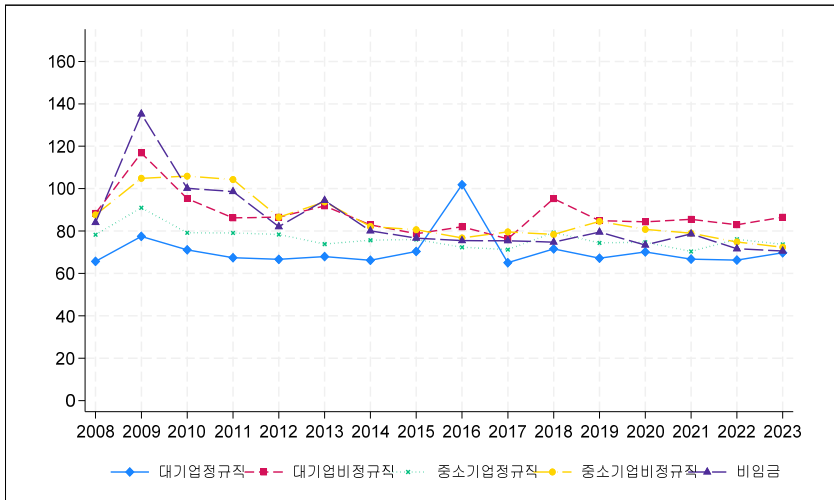
산 형성 능력과 소비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은 세 지표 모두에서

[그림 2-4] 가구 소비지출 변화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그림 2-5]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확인되고 있으며,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 소득-자산-소비의 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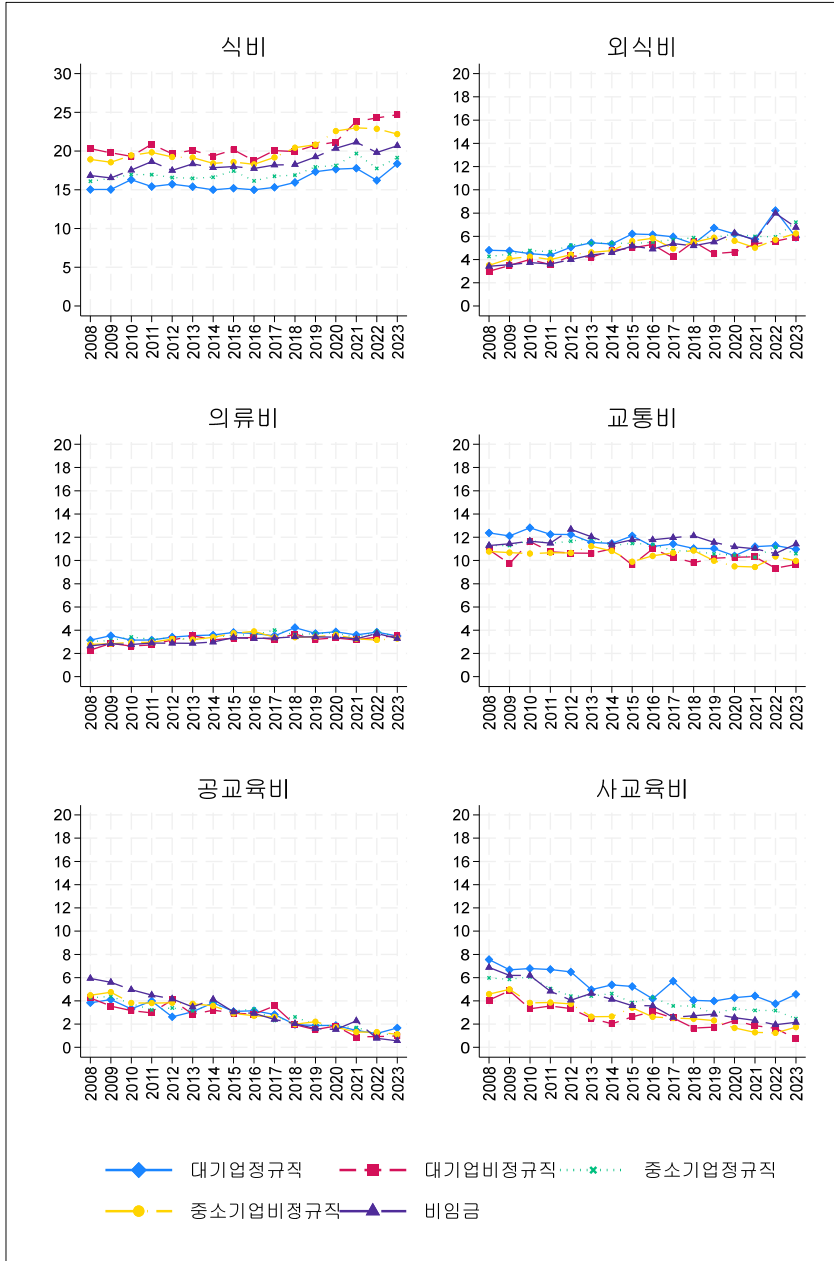
[그림 2-5]는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결과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소비성향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17년 이후 최근까지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기업 비정규직 집단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집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소비성향에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구조 차이

[그림 2-6]과 [그림 2-7]은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출 구성비는 총 소비지출액 중 각 소비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기간 동안 식비와 외식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출산 감소와 이로 인한 자녀 수 감소에 따른 변화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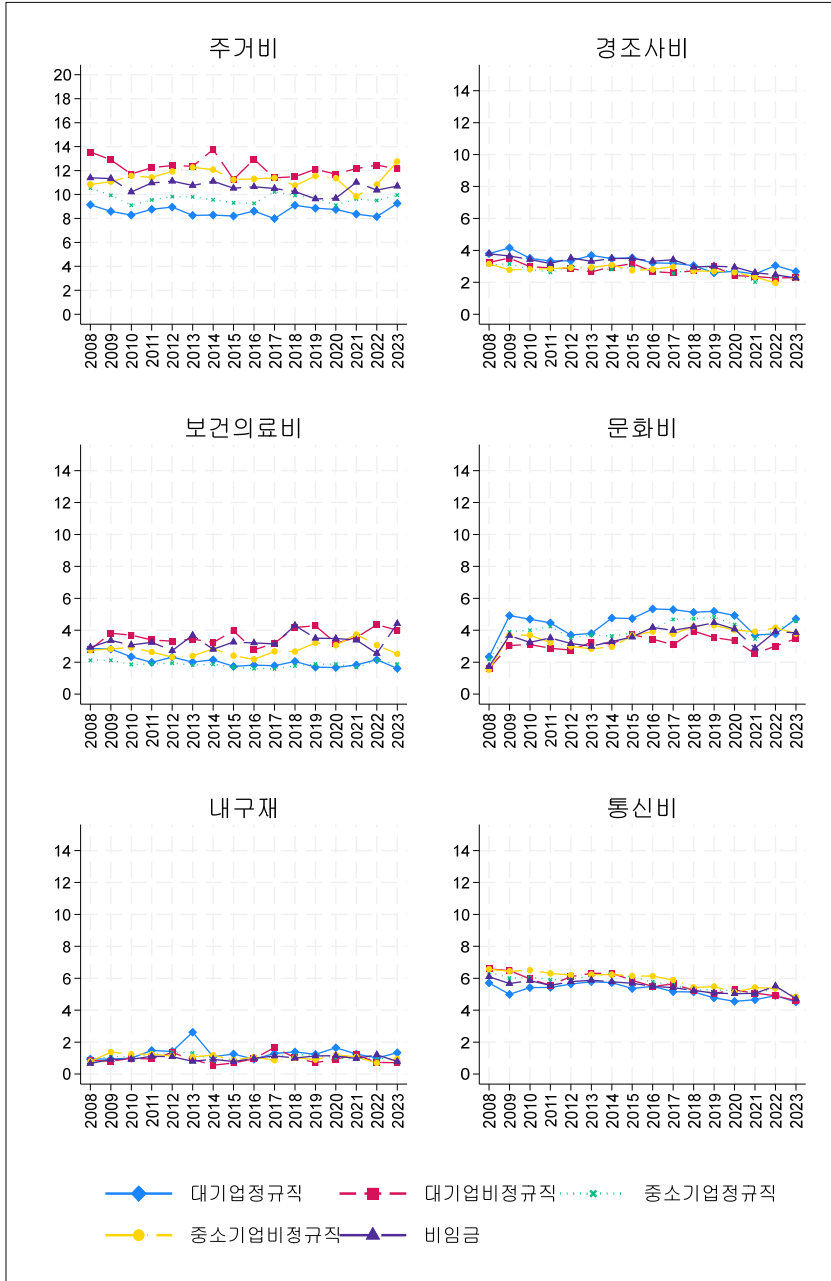
소비 항목 중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식비, 사교육비, 주거비로 나타났으며, 공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교육비가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항목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사교육비 항목의 소비 격차가 크다는 것은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교육 기회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계층 이동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불평등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2-6] 소비자출항목별 비중 추이(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그림 2-7] 소비자출항목별 비중 추이(2)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표 2-3〉 노동시장 지위별 소비항목 비중(2023년)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임금
식비	18.38	24.70	19.16	22.20	20.69
외식비	5.91	5.94	7.22	6.25	6.77
의류비	3.51	3.50	3.37	3.28	3.28
공교육비	1.67	0.98	1.03	1.12	0.56
사교육비	4.56	0.74	2.46	1.74	2.15
교통비	10.97	9.66	10.59	9.97	11.42
주거비	9.26	12.14	9.95	12.76	10.70
경조사비	2.68	2.31	2.27	2.27	2.27
보건의료비	1.61	4.01	1.89	2.52	4.42
문화비	4.72	3.48	4.57	3.80	3.84
내구재	1.33	0.71	0.87	0.96	0.79
통신비	4.52	4.61	4.83	4.83	4.71
기타	30.87	27.20	31.79	28.28	28.38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3.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항목별 소비탄력성 차이

여기서는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소득 변화가 개별 소비항목에 미치는 영향, 즉 소득탄력성을 분석한다. 소득탄력성은 한계소비성향과 함께 가계의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소득이 1% 변화할 때 각 소비항목 지출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단순한 소비 수준의 격차를 넘어, 소득 변동에 대한 가구의 지출 민감도와 소비조정 능력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비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소득 변화에도 집단별 소비 반응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소득 수준 및 소득 안정성 차이, 금융접근성 차이로 인한 소비 조정 능력 차이는 소비 결정의 탄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성이 높은 가구는 소득 증가 시 교육·문화·여가 등 선택적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반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가구는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시장 구조가 소비의 질적 불평등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탄력성은 각 항목별 가계의 필요와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항목별 소비탄력성은 각각의 소비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 선형화된 엔겔 곡선을 추정하여 구하였다.

$$\ln x_{h,j,t} - \ln \bar{x}_{h,j,t} = \alpha_{j,t} + \beta_j \ln X_{h,t} + \gamma_j Z_h + u_{h,j,t} \quad (1)$$

위의 식 (1)에서 x 는 항목별 소비지출, \bar{x} 는 모든 가구의 재화별 평균 소비, α 는 고정효과, Z_h 는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 j 는 소비항목, h 는 가구,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소비 자료는 고소득층의 과소보고 등에 따라 측정 오차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기서는 Aguiar and Bils(2015)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소비탄력성을 계산하였다.¹⁾

소비항목을 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득탄력성이 1 이하인 항목을 필수재로 간주한다(김정현·최현자, 2002; 심영, 2016). 여기서는 소득탄력성이 0~0.5 미만인 경우 필수재로, 0.5~1.0 미만이면 준필수재로 분류하고, 소득탄력성이 1.0~1.3 미만인 경우 준선택재로, 1.3보다 큰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재로 분류하고자 한다. 김정현·최현자(2002)는 선택재에 대한 소비는 가계의 필요도보다는 선호도와 질적 만족감이 크게 작용하며, 자아실현과 사회적 욕구 등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식비, 공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비는 소득탄력성이 1 미만으로 나타나 필수재로 확인되며, 외식비, 의류비, 사교육비, 문화비,

1) Aguiar and Bils(2015)는 미국에서 서베이 자료에 기반한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소비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시 소득불평등 확대와 같이 소비불평등도 크게 확대됨을 확인한 바 있다.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연정 외(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내구재 등은 소득탄력성이 1 이상으로 나타나 사치재(선택재)로 구분된다.

한편, 동일한 소비 항목이라도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소득탄력성에 차이가 관측되는데, 특히 기업 규모의 보다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외식비(1.52), 의류비(1.67), 사교육비(1.76), 문화비(2.19)는 대기업 정규직에 있어서는 선택재로 분류되었으나,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집단에서는 대부분 준필수재 혹은 준선택재의 성격이 강한 비목으로 간주되었다. 예컨대, 의류비와 사교육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의 소득탄력성이 각각 0.93과 0.70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 비정규직 집단이 소득 변화에 따라 의류비나 사교육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제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적 이해에서 선택재로 구분되는 문화비나 사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가구는 정규직 가구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정규직 가구의 낮은 고용안정성과 소득 예측 가능성이 문화와 교육 관련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주거비, 통신비 등은 노동시장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소득탄력성이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필수적 지출의 성격을 보인다. 특히 주거비는 모든 소비 항목 가운데 가장 지출 민감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에는 월세,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등이 포함되는데 주거비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소비라는 점에서 지출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교통비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1 내외로 나타나 준사치재의 성격을 띠지만, 정규직(대기업 정규직 1.30, 중소기업 정규직 1.20)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고, 비정규직(대기업 비정규직 0.95, 중소기업 비정규직 0.97) 집단에서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집단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가용 운행, 차량 교체 등 선택적 교통비 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며, 교통수단 선택이나 이동비용 구조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탄력성의 차이는 기

〈표 2-4〉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임금	전체
식비	0.49	0.47	0.45	0.54	0.53	0.50
외식비	1.52	1.20	1.51	1.19	1.53	1.47
의류비	1.67	0.93	1.55	1.07	1.47	1.41
공교육비	0.44	0.44	0.73	0.52	0.47	0.49
사교육비	1.76	0.70	1.57	0.90	1.50	1.44
교통비	1.30	0.95	1.20	0.97	1.26	1.19
주거비	0.33	0.28	0.23	0.21	0.52	0.30
경조사비	1.63	0.99	1.55	1.56	2.29	1.77
보건의료비	0.84	0.60	0.69	0.67	0.92	0.78
문화비	2.19	0.90	1.85	1.11	2.27	1.85
내구재	1.67	1.28	3.39	1.75	1.55	1.99
통신비	0.58	0.64	0.75	0.67	0.65	0.67
기타	1.39	0.95	1.27	0.94	1.28	1.2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08~2023, 저자 작성.

업 규모의 차이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선택적 소비로 확장하기보다는 필수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금 수준이나 복리후생 등 기업규모에 따른 요인보다 고용안정성이 가계의 소비 행태를 제약하는 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분석

이상의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CRE 토빗 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Tobit Model)을 통해 검증한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CRE 토빗 모형은 각각 시간 불변 요인 통제와 절단 문제 보정이라는 상호보완적 목적을 가진다.

먼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아래의 식 (2)와 같다.

$$\ln C_{i,t} = \alpha_i + X'_{i,t}\beta + \delta L_{i,t} + \epsilon_{i,t} \quad (2)$$

여기서 $C_{i,t}$ 는 가구 i 의 t 기 소비지출(또는 평균소비성향), $L_{i,t}$ 는 노동시장 지위, $X_{i,t}$ 는 통제변수로서 가구소득, 자산, 부채, 가구주 특성, 가구특성, 지역 더미 등 경제적·인구사회적 특성 전반을 포함한 벡터를 의미한다. α_i 는 가구별로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속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제함으로써 동일 가구 내 노동시장 지위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한편, 소비항목별 분석에서는 일부 가구가 사교육비, 문화비 등 특정 소비 항목에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즉, 관측값이 0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좌측 절단(left-censored) 문제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CRE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C_{i,t}^* = \alpha_i + X'_{i,t}\beta + \delta L_{i,t} + \epsilon_{i,t}, \quad C_{i,t} = \max(0, C_{i,t}^*) \quad (3)$$

여기서 $C_{i,t}^*$ 는 잠재적 소비수준이며, $C_{i,t}$ 는 실제 관측된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α_i 는 개인효과로, $\alpha_i = \bar{X}_{i,t}\theta + \mu_i$ 와 같이 평균값을 포함하는 Mundlak(1978) 보정식을 적용하여 설명변수와 개인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완화하였다.

앞선 분석에서는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차이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 대상을 취업자 가구로 한정하였으나, 여기서는 이는 노동시장 내부 격차뿐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여부 자체가 가계의 소비 수준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 범위를 비취업 가구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APC)에 미치는 영향은 <표 2-5>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데, 평균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소비성향의 개인적 특성, 지역 문화적 요인 등 가구별 시간에 따른 불변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동일 가구 내에서 노동시장 지위 변화가 가구 소비행태에 미치는 순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연령의 제곱항은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역U자형의 비선형적인 소비패턴이 확인된다. 이는 생애 초기에는 소비성향이 높다가 중장년기 이후에는 저축 동기가 강해지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생애주기 소비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가구 특성변수 가운데 가구원 수와 고등학생 이상 자녀 유무(있음=1)는 평균소비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평균소비성향이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은 평균소비성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소득이 낮을 때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이론과 일치한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의 계수는 모두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가계부채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부채가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금융접근성이 높아 소비여력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 지위별로 보면, 기준집단인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중소기업 정규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대기업 정규직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 소득 경로가 불확실하기에 더 보수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임금 상승 경로와 퇴직 후 연금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경기 변동이나 기업의 재무 상황 변동에 따라 임금 및 고용 불안정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해져 소비를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취업 가구 역시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인해 총 가구소득

〈표 2-5〉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가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2008~2023년)

		종속변수 : 평균소비성향	
		Coef.	S.E
성별	여성	0.148	(2.577)
연령	연령	3.344***	(0.415)
	연령의 제곱	-0.032***	(0.004)
학력 (ref. 고졸이하)	고졸	-1.202	(4.039)
	전문대졸 이상	1.916	(4.448)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1.139	(2.000)
가구특성	가구원 수	8.923***	(0.794)
	고등학교 이하 자녀 있음	2.978**	(1.264)
	로그 가구소득	-0.011***	(0.000)
	로그 금융자산	-0.086	(0.342)
	로그 가계부채	0.211**	(0.105)
	로그 부동산자산	-4.418***	(0.809)
노동시장 지위 (ref.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0.777	(1.921)
	중소기업 정규직	-3.232**	(1.356)
	중소기업 비정규직	0.342	(1.824)
	비임금근로	1.176	(1.964)
	비취업	-4.661**	(1.949)
거주지역 (ref. 서울)	부산광역시	-8.520	(6.167)
	대구광역시	13.799	(11.973)
	대전광역시	-0.230	(10.437)
	인천광역시	-4.745	(5.260)
	광주광역시	-27.818	(24.632)
	울산광역시	-10.008*	(5.558)
	경기	-9.981***	(3.613)
	강원	-7.674	(9.195)
	충북	-14.096*	(7.477)
	충남	-7.876	(6.608)
	전북	-13.046**	(5.306)
	전남	-6.273	(8.618)
	경북	-3.588	(6.194)
	경남	-16.234***	(6.063)
제주도	-2.323	(6.031)	
세종	-1.501	(7.912)	
상수항		23.634*	(13.394)
Observations		91,972	91,972
R-squared		0.034	0.034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26차 자료.

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지위가 낮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및 비임금 근로자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계수의 방향성이 대체로 양(+)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소비여력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정규직 가구는 안정된 소득과 높은 금융접근성을 바탕으로 소비를 조절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가구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소득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낮고 필수재 중심의 소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가 가계의 소비·저축 균형을 회복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를 지출 규모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표 2-6>에서는 총소비지출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CRE 토빗 모형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다른 가구 특성이 모두 동일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총소비지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소비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소득뿐 아니라 소비수준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표 2-6>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별 총소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08~2023년)

		종속변수 : 로그 총소비지출			
		패널 고정효과 모형		CRE 토빗 모형	
		Coef.	S.E	Coef.	S.E
성별	여성	-0.033	(0.020)	-0.018***	(0.005)
연령	연령	0.036***	(0.003)	0.033***	(0.001)
	연령의 제곱	-0.000***	(0.000)	-0.000***	(0.000)
학력 (ref. 고졸이하)	고졸	0.065	(0.041)	0.049***	(0.006)
	전문대졸 이상	0.044	(0.042)	0.070***	(0.005)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0.068***	(0.014)	0.063***	(0.005)

〈표 2-6〉의 계속

		종속변수 : 로그 총소비지출			
		패널 고정효과 모형		CRE 토빗 모형	
		Coef.	S.E	Coef.	S.E
가구특성	가구원 수	0.161***	(0.005)	0.160***	(0.002)
	고등학생 이하 자녀 있음	0.004	(0.007)	0.003	(0.004)
	로그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로그 금융자산	0.007***	(0.001)	0.008***	(0.000)
	로그 가계부채	0.003***	(0.000)	0.003***	(0.000)
	로그 부동산자산	0.051***	(0.006)	0.043***	(0.004)
노동시장 지위 (ref.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0.029***	(0.009)	-0.017**	(0.007)
	중소기업 정규직	-0.007	(0.007)	0.001	(0.005)
	중소기업 비정규직	-0.016*	(0.009)	-0.005	(0.006)
	비임금근로	0.012	(0.010)	0.002	(0.007)
	비취업	-0.065***	(0.009)	-0.035***	(0.005)
거주지역 (ref. 서울)	부산광역시	0.015	(0.041)	-0.015*	(0.008)
	대구광역시	-0.001	(0.041)	-0.039***	(0.009)
	대전광역시	-0.018	(0.030)	-0.051***	(0.011)
	인천광역시	0.076***	(0.023)	0.056***	(0.008)
	광주광역시	0.095	(0.109)	-0.114***	(0.012)
	울산광역시	0.007	(0.038)	-0.051***	(0.011)
	경기	-0.003	(0.015)	-0.038***	(0.005)
	강원	-0.053	(0.034)	-0.066***	(0.011)
	충북	-0.044	(0.044)	-0.065***	(0.010)
	충남	-0.037	(0.029)	-0.134***	(0.009)
	전북	-0.093	(0.064)	-0.121***	(0.010)
	전남	-0.104*	(0.063)	-0.125***	(0.010)
	경북	-0.017	(0.041)	-0.089***	(0.009)
	경남	-0.009	(0.044)	-0.057***	(0.008)
	제주도	-0.036	(0.058)	0.009	(0.018)
세종	0.032	(0.033)	-0.040*	(0.022)	
상수항		6.054***	(0.110)	6.104***	(0.024)
Observations		91,972	91,972	91,972	91,972
R-squared		0.277		-	
Left-censored		-		60	
Log likelihood		-		-29589.979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26차 자료.

이상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의 전체 소비 규모와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더해 <표 2-7>에서는 가계 소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역의 소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2-7>의 결과는 CRE 토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며, 종속변수는 각 소비항목(식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로그 소비지출액이다. 특정 소비 항목의 소비지출액이 0인 가구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하한의 존재를 고려하여 좌측 절단(left-censored)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지위별 소비 격차는 필수재보다는 선택재에서 훨씬 뚜렷하게 관측된다. 먼저 식비 항목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소비 지출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필수소비의 대체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일정 수준 유지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외식비·의류비·문화비·사교육비 등 선택적 소비 항목에서는 비정규직 집단의 소비지출이 정규직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확인한 소득탄력성 분석 결과와도 일관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대기업 정규직은 외식비·사교육비·문화비 등에서 탄력성이 1.5~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선택적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 집단은 동일 항목의 탄력성이 0.7~0.9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문화·교육 등 자기투자형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확인된 바 있다. <표 2-7>의 항목별 소비지출액 분석 결과는 실제 소비지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계층 간 격차가 실증적으로 재확인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주거비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하여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기업 정규직 집단의 주거안정성이 타 계층에 비해 높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교통비, 경조사비, 내구재 소비 등은 소득과 지위의 영향이 존재하나, 그 영향의 방향은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경조사비의 경우 비정규직 집단에서 일관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이들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나 사적 네트워킹 비용이 기준이 되는 대기업 정규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2-7〉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2008~2023년)

	식비	외식비	의류비	공교육비
대기업 비정규직	0.028***	-0.011	-0.036*	-0.386***
중소기업 정규직	0.005	0.031	0.013	-0.006
중소기업 비정규직	0.020**	0.078**	-0.020	-0.227**
비임금근로	0.003	-0.034	-0.048**	0.261**
비취업	0.026***	-0.157***	-0.075***	-0.226**
Observations	91,968	91,970	91,971	91,968
Left-censored	168	15,155	3,564	63,020
Log likelihood	-58,800.3	-174,038.9	-128,178.2	-98,626.82
	사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경조사비
대기업 비정규직	-0.330***	0.052***	-0.012	-0.195***
중소기업 정규직	-0.140*	0.034***	0.022*	-0.038*
중소기업 비정규직	-0.223**	0.024**	0.026*	-0.131***
비임금근로	0.147	0.070***	0.012	-0.033
비취업	-0.406***	0.038***	0.003	-0.307***
Observations	91,970	91,966	91,972	91,967
Left-censored	61,457	393	989	9,187
Log likelihood	-100,941.7	-81,747.2	-111,617.4	-151,665.5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통신비
대기업 비정규직	-0.002	-0.106***	-0.095	0.019*
중소기업 정규직	0.022	0.038**	-0.101	0.028***
중소기업 비정규직	0.015	-0.002	0.187**	0.041***
비임금근로	-0.013	0.036	-0.092	0.035***
비취업	0.008	-0.075***	-0.376***	0.043***
Observations	91,970	91,971	91,972	91,969
Left-censored	6,804	3,804	56,037	568
Log likelihood	-149,561.9	-140,820.4	-132,536.4	-71,489.5

주 : p<0.1, ** p<0.05, *** p<0.01.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26차 자료.

보건의료비는 노동시장 지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통신비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타 계층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통신비가 현대 사회의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으며 통신비 지출 부담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지출 규모뿐 아니라 소비구조의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비, 주거비, 통신비 등 필수재에 소비가 집중되는 반면, 문화비, 사교육비, 의류비 등 미래투자형 선택재 항목에서는 지출 확대 여력이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 격차가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축소와 사회문화적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계층화가 소비 불평등을 넘어 세대 간 자산 및 교육격차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고용형태별 소비지출 격차 요인분해 분석

앞선 분석 결과에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는 기업규모보다는 고용형태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비지출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비지출 격차를 두 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구성효과, endowment effect)와 두 집단의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 즉, 노동시장 지위로 인한 불이익 또는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구조효과, coefficient effect)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소비 격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요인분해 분석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지출액 격차는 2008년 0.164에서 2023년 0.295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08년에는 비정규직 가구의 평균 소비 수준이 정규직 가구에 비해 약 16% 낮았던 것이 최근에는 약 30%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추정된 소비지출액 격차 가운데 설명되는 차이(explained)는 2008년

0.147에서 2023년 0.222로 증가하여, 전체 소비 격차의 약 75~80%가 소득, 자산, 가구 특성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의 집단 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소득, 자산, 교육수준, 가구 규모를 가지는 등 경제적·인구사회학적 조건의 불균등이 소비 격차의 주요 원인임을 의미한다.

한편, 설명되지 않는 차이(unexplained)는 전체 격차의 약 20~2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0.017에서 2023년 0.073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소득과 가구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 형태 차이로 인해 소비 행태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컨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미래 소득 불확실성,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소비를 억제하거나 지출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 전망을 바탕으로 소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구조적 차이가 최근으로 오며 확대되는 것은, 경기 불안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변화가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 위축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로 추측된다.

이러한 요인분해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구 소비 측면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결과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단순히 소득 수준의 차이에만 기인하지 않고, 가구의 위험회피 성향, 미래소득 기대 등 소비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비지출 격차에 있어서 구조효과의 확대는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가 가계의 소비심리 및 지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8〉 정규직-비정규직 소비지출액 격차 요인분해 결과

	2008	2013	2018	2023
Total Gap	0.164	0.266	0.260	0.295
explained	0.147	0.228	0.216	0.222
unexplained	0.017	0.038	0.044	0.073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26차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기존의 임금 중심 불평등 논의를 소비 불평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노동시장 지위의 계층화가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지출 수준 및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지위는 개인의 일자리 질을 좌우하는 두 축인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비취업, 비임금근로,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2008~2023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 자산, 소비 격차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임금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의 순으로 가구소득, 금융자산, 소비지출 수준 모두 계층화 양상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소비구조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식비, 사교육비, 주거비 항목에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기반을 가진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문화비, 의류비 등 선택적 소비 항목의 지출이 현저히 낮고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장기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셋째, 동일한 소득 변화에도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비목별 지출의 민감도와 가구의 소비 조정 능력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Aguiar and Bils(2015)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보정하여 소비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예컨대 외식비, 의류비, 사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의 항목에서 대기업 정규직 가구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집단에서는 소득 변화에 따른 지출

민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에도 선택적 소비로 확장하기 보다는 필수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을 암시한다. 또한 이는 고용안정성이 가계의 소비행태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지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CRE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및 가구주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간 불변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가구 소비에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지위가 낮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인과적 효과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지위별 소비 격차는 필수재 보다는 선택재에서 훨씬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가 기업규모 보다는 고용형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소비 격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분해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 간 소비지출 격차를 두 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구성효과)와 두 집단의 특성이 동일함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구조효과)로 나누어보는 것인데, 분석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의 소비지출액 격차는 2008년 0.164에서 2023년 0.295로 확대되었으며, 추정된 소비 격차 가운데 구성효과가 전체 격차의 약 75~80%, 구조효과가 약 20~2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비격차에 있어 구조효과가 확대된 것은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가 가계의 소비 심리 및 지출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격차뿐 아니라 소비여력, 소비행태, 소비 조정능력의 격차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 격차는 사교육·문화·여가·내구재 등 선택적 소비 항목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기반을 가진 가구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고용과 소득 불안정에 놓인 가구는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에 갇혀 미래지향적 소

비와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과 문화 영역의 소비 격차는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따라서 노동시장 지위가 단기적인 소득 문제를 넘어 가계의 장기적인 삶의 질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 고리를 약화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과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노동지위에 따른 금융접근성과 소비태도 : 청년세대에 관한 질적분석

제1절 문제의식

전통적인 불평등 논의는 근로소득의 분포, 가처분소득, 자산 축적의 정도와 같은 소득의 양적 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허나 현실의 불평등은 보다 입체적 양상을 지닌다. 불평등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소득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체감은 소득의 총액을 넘어서 존재하며, 이는 당사자가 어떠한 삶의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조건을 구획 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은 삶의 질의 격차와 관계망 참여의 기회,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삶의 조건의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한다. 계급·계층적 지위 또한 상당 부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해 정해진다. 노동소득액도 단지 시장임금 혹은 시장노동소득의 액수를 넘어 노동시장의 지위가 형성하는 유무형의 기회라고 하는 총체적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시장임금의 액수만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결정하고 삶의 안정성을 결정지으며 시장임금의 지급방식까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전적 액수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즉 소비구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의 문제도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는 미래를 위해 얼마를 저축 혹은 투자하느냐, 그리고 현재를 위해 얼마를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양질의 삶의 조건을 구가하느냐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 노동소득은 크게 당장의 소비와 저축(투자)로 나뉘어져 지출되고, 현대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 후자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다종다기하게 분화한 노동시장 내 집단들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그들의 투자, 저축 및 소비의 관행을 이해하며, 그것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불평등의 복합적 양상을 이해하고 정책의 정교화를 이루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소비의 가능성은 개인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 특정 연령대나 사회적 지위(결혼여부, 자녀양육 여부 등)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어쩌면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더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고, 계층 간 거리감을 확대할 수 있다. 동일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어떤 이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녀오고, 다른 이는 국내 여행에만 머문다면 이는 지위의 차이가 소비기회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의 현실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소비구조의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소득액'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노동시장 지위'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구성원은 '소비불평등(consumption inequality)'을 경험함과 동시에 '금융불평등(financial inequality)'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중산층 직장인은 마일리지, 포인트, 무이자 할부 등의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를 확장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불안정한 고용에 처한 이들은 동일한 상품에 접근조차 어렵고 자신의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식해 대출은 언감생심일 수 있다. 금융화된(financialized) 자본주의하에서 소비는 단지 현재 소득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이 아니라, 신용과 부채를 매개로 선취되는 '미래의 소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누가 부채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가, 내지 '누가 신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불평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당장 생계를 위한 소비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축과 신용창출 및 이자상환의 능력, 이를 통한 자산증식 기회의 향유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소비들에도 무거운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대체로 여행이나 예술상품

혹은 스포츠 상품의 구매 등 문화적 측면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하게 월 250만 원의 소득을 벌더라도, 대기업 정규직은 미래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해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낮은 신용등급, 대출 제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중첩된 배제를 경험한다. 그들의 여가여력(leisure capacity)은 그러한 조건 위에서 차별적으로 결정지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으로 발생하는 노동지위, 금융기회, 여가여력의 메커니즘과 그것이 총체적으로 형성시키는 소비불평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금융접근성 및 소비격차의 관계를 탐구한다.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3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과 자료 및 분석방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질적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현실의 관계에 관한 논리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한다. 4절에서는 조사 결과로 파악된 다양한 사실을 제시하며, 앞 절의 분석틀에서 구축한 노동시장 지위와 금융 접근성 및 소비양태와의 관련성을 논한다. 5장에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논하고,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경제사회학과 사회계층론에서는 불평등을 주로 소득의 분포 혹은 자산 축적의 격차를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지니계수, 시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 자산 10분위 간 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소득이나 자산이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계량화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불평등 현상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첫째, 동일한 소득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비여력은 다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둘째, ‘자산 없는 중산층’이 어떻게 소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수 있다. 셋째,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

는 이들이 겪는 소비의 억제나 소비 포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포착되기 어렵다. 예컨대 소득으로는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안정적인 고용과 우수한 신용등급을 통해 높은 소비능력을 유지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은 중간 수준이지만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소비능력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기존의 분석틀로는 잘 포착되지 않으므로 보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

소비는 단순한 소득의 함수가 아니다. 오늘날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진전과 함께 소비는 점차 미래의 소득과 신용에 의존한 구조로 재편된다. 부채를 매개로 한 소비의 선취(前取)가 하나의 일반적 소비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금융화란 자본주의의 중심축이 생산에서 금융활동(대출, 자산운용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소비주체는 임금소득보다 신용등급, 금융접근성, 부채활용능력 등에 따라 소비기회를 향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Krippner(2011)는 가계는 더 이상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가계부채가 생계를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Crouch(2009)는 케인스주의는 국가가, 신자유주의는 소비자가 부채를 짊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소비능력의 사회적 구성 방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금융접근성은 노동시장 지위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은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고용형태, 기업규모, 경력의 연속성 등 노동시장의 정보에 기초하여 대출 및 카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의 계층성은 금융시장 내 배제와 차별의 구조로 전이되며, 재차 소비격차에 일조하게 된다.²⁾ 정리하면 노동시장의 지위가 소비격차를 낳는다고 할 때, 그 중요한 매개변수가 금융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비를 단순한 지출 여력이나 문화적 기호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통상의 접근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소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능력(capacity)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계급적 생활수준의 표출방식이기도

2) 앞서 언급했듯이 정규직 대기업 재직자는 마일리지, 무이자할부,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플랫폼노동자나 비정규직은 카드한도 제한, 할부승인 거절, 대출금리 가산 등으로 인해 소비 자체가 제약받는 상황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다. 소비능력은 몇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그 첫째는 심리적 권리감이다. '나는 이 소비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일종의 자격에 대한 감정이다. 둘째는 기획능력이다. 이는 소비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통제력을 의미한다. 셋째는 금융적 수단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할부, 대출 등 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건 등이 주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소비를 계급적 라이프스타일(life-style)로 보는 부르디외(Bourdieu), 혹은 상징적 소비로 이해한 보드리야르(Baudrillard) 등의 소비사회 이론과 궤를 달리한다. 오히려 소비능력의 구조적 기원과 계층적 조건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치경제학적 내지 경제사회학적 분석의 확장을 지향한다.

제3절 접근방식

1. 분석틀의 구성 : 고용-금융-소비의 삼각구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격차를 단순한 소득수준의 차이가 아닌, 고용지위-금융기회-소비역량의 삼각구조로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지위에 따른 소비역량을 파악하되 그 중간에 금융접근성이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설정해 그들의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지위, 기회, 여력의 구조적 연계성을 상정한다. 고용지위는 금융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접근성은 다시 소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작동한다. 해당 요인들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후속작업들에서 심화되어야 할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수준으로 접근해 본다.

이러한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격차와 관련하여 <표 3-2>와 같은 매우 단순한 가설적 틀을 세워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정책적 상상력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식의 정확성이 전개될지는 일정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고용지위와 금융접근

〈표 3-1〉 노동시장 지위, 금융접근성, 소비능력

구성요소	설명	상호작용
고용지위	노동시장에서의 계약 안정성, 소속성, 고용형태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금융접근성 제약
금융접근성	신용등급, 대출가능성, 카드 및 할부 승인 여부	금융기회 제한은 소비수단의 박탈로 연결
소비능력	실질 소비지출뿐 아니라 소비의 기획 가능성	수요억제, 계획불가, 소비포기의 정당화로 이어짐

자료 : 저자 작성.

〈표 3-2〉 단순가설

요소	상위계층	하위계층
고용형태	안정적 정규직	불안정 비정규직, 특수고용
금융접근성	높은 신용등급, 다양한 금융채널 활용	대출 제한, 카드·할부 이용 불가
소비실현력	신용 확장 가능, 소비 기획력 보유	즉시 지출만 가능, 계획적 소비 불가

자료 : 저자 작성.

성이 소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개인의 체감과 일상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의 소비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현실은 복잡하게 다양한 변수의 작동에 의해 펼쳐지리라 예상한다.

2. 질적 조사 방법의 활용

가. 질적 조사 수행의 이유

본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 그 중에서도 선별된 개인들과의 1:1 면접을 통해 노동시장 지위와 금융 및 소비행태의 양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본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대중들의 금융활동과 소비활동의 양태에 대해서, 그것과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자료가 현실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 사항들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매우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룹면접도 적절치 않다. 상호 양지하에 소득과 저축(투자), 그리고 소비양태의 심층적인 양상들을 함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1:1 면접이 효과적이다.

나. 요인들의 세부구성과 대상의 통제

조사를 위해 노동시장의 집단들을 적절히 구획하고 각 집단에 속한 조사 대상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도모했다. 노동시장 지위는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원래는 4개에서 출발했다가 연구과정에서 1개 범주를 추가했다. 그 결과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i)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ii) 중소기업 종사자들 및 비정규직, (iii) 플랫폼 노동자, (iv) (중소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최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v) 고소득 전문직으로 구분했다. 이와 더불어 각 집단별로 노동에 대한 태도, 금융접근성, 소비태도, 대표적인 소비행위로서 여행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여행소비는 문화적 여가활동이자 비교적 고비용의 선택소비라는 점에서 소비능력의 차이를 드러내는 민감한 사례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액과 연령대의 유사성을 맞추으로써 해당 변수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노동시장 지위와 금융 및 소비의 경향과의 관계를 보다 오롯이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체로 연령을 30대에 맞추었고 위 아래로 약간의 여지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은 연봉 8천만 원이 넘지 않는 집단으로 한정하기로 설정했으나 마지막에 추가된 전문직들의 경우는 그 한도를 없애고 접근했다.³⁾ 그리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른 안배, 기혼자와 미혼자의 고른 안배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엄밀한 통제는 아님).

3) 4개 집단으로 나눈 후에 오히려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 보다 더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차라리 상층의 양태를 이해하는 게 전체를 보다 풍부히 조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향은 주요했다.

다. 질문의 구성

실제로 인터뷰에서 활용한 질문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수준

- 고용의 안정성 정도
- 노동소득(연봉, 연순소득)
- 그 밖의 기타소득, 자산소득 여부
- 자산상태(부동산, 주식 등)

금융접근성

- 신용점수(대략적인 추이, 범위)
- 신용카드의 보유와 사용방식(카드의 개수, 한도, 무이자할부 선호경향)
- 대출상황(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자산관련 대출, 금리, 월 납입액, 추가대출 여력, 마이너스 통장 보유 및 활용양태)
- 카드할부나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의 철학과 선호, 왜 그러한지

소비성향

- 큰 소비 경향(내구재, 집, 자동차, 교육 등)
큰 소비 시 할부(카드)나 대출을 어떻게 쓰는지
큰 소비를 하려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포기하거나 대체한 경우 주요 사례들
원래 일시불 현금 구매가 어려운데 금융접근성을 통해 해결한 경우, 빈도 등
- 작은 소비 경향
- 저축과 투자 경향, 원칙 등
- 나의 금융접근성은 높다고 보는지, 그것이 나의 소비를 기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접근성에 대해 나는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신용점수 관리 등)

□ 여행성향 및 문화소비

-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인에게 여행의 의미는 어떤 건지
- 얼마나 자주 여행을 가는지
- 한 번 가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는지 (해외, 국내 차이)
- 여행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금융접근성을 주로 활용하는지
-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한 경우... 경험, 경향? 할부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
- 여타 문화생활과 관련한 소비경향은? (공연, 전시 등)

□ 추가적인 의견

- 임금, 즉 노동소득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소비인가? 투자기회인가? 미래를 위한 것인가? 현재를 위한 것인가?
(열어놓고 주관식으로 질문)
- 현재와 과거의 비교 -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를 얻기 이전과 이후의 소비양태, 금융기회 등에 있어서의 굵직한 차이가 있는지...

라.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의 계층집단을 대상으로 총 20명에 대해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표 3-3). 각 집단은 고용지위와 금융접근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집단당 3~5명이 참여하였고, 전화는 한 사람당 약 30~40분가량 진행되었다. 피면접인의 조직화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하지 않고 조사업체에 일정하게 조건을 주고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피면접인들 가운데 본 연구자와 사전에 인적 교감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면접인들은 접촉 과정에서 연구에 관한 정보를 일정하게 습득하고 면접의 보상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체적인 취지와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대화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면접은 본 연구자가 전 건에 대해 모두 단독으로 수행해 자연스럽게 질문의 일관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

〈표 3-3〉 피면접인 리스트

범주	노동시장 지위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녀 수)	거주지	인터뷰 날짜
A1	대기업 정규직	30	남	미혼	서울 강서	9. 30.
A2	대기업 정규직	34	남	기혼(0)	서울 송파	9. 22.
A3	대기업 정규직	33	남	기혼(0)	경기 평택	9. 22.
A4	공공기관 정규직	29	여	미혼	대구 수성	9. 24.
A5	대기업 정규직	31	여	기혼(0)	서울 영등포	9. 25.
B1	중소기업 정규직	36	남	미혼	경기 부천	9. 25.
B2	중소기업 비정규직	25	여	미혼	강원 홍천	9. 24.
B3	중소기업 정규직	39	남	기혼(2)	인천 미추홀	10. 2.
B4	파견업체 비정규직	35	여	기혼(1)	서울 서초	10. 14.
C1	플랫폼노동자	38	남	기혼(1)	서울 종로	9. 24.
C2	플랫폼노동자	37	남	기혼(0)	서울 도봉	9. 29.
C3	프리랜서	32	남	미혼	서울 동작	10. 2.
C4	프리랜서	38	여	미혼	경기 부천	9. 29.
D1	자영업자 (피부관리실)	36	여	기혼(1)	서울 강서	9. 26.
D2	자영업자 (카센터)	37	남	기혼(3)	울산	9. 29.
D3	자영업자 (잡집)	27	남	미혼	강원 속초	9. 30.
D4	자영업자 (공방)	30	여	미혼	서울 영등포	10. 1.
E1	고소득 전문직 (변리사)	36	여	기혼(0)	경기 화성	10. 28.
E2	고소득 전문직 (의사)	34	남	기혼(3)	서울 광진	10. 27.
E3	고소득 전문직 (세무사)	35	남	미혼	충북 청주	10. 27.

자료 : 저자 작성.

마. 분석방식

인터뷰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각 집단별 특성이 꽤 일관되게 구획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메모한 후, 스크립트화된 문장을 확인하며 내용적 집락화를 도모, 주요 특성들을 가려내려 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하나는 집단별 특성을 정식화하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요 쟁점별로 집단들이 어떻게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집단별 특성의 정식화는 위에서 구분한 5개 노동지위집단별로 해당 피면접인들이 밝힌 진술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며 그 유사성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일단 5개 집단으로의 구획이 과연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비격차의 차별적 양태를 구별 짓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각 집단별 특성과 경향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다음으로 주요 쟁점별로 집단들이 어떻게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몇 가지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집단별 행태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는 작업이었다.

제4절 분석 결과

1. 집단별 특성 정식화

가. A집단 : 정규직 안전층

A집단에 속한 다섯 명의 피면접인들은 모두 대기업·공공기관·전문직 내부의 정규직이라는 공통된 노동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집단에서 노동은 대체로 안정된 궤도에서 삶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을 삶을 떠받치는 기반으로 인식했다. 자신들의 종사지위의 안정성을 반영하여 노동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변동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사람들은 없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주는 규칙성, 복지체계, 평가구조, 급여의 예측 가능성 등을 큰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혹자는 자신의 직장을 “그냥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표현했고, 다른 이는 “회사라는 구조가 나를 잡아주는 안정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의 생애경제 구조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듯했다. 모두 일정

한 월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기본 연봉은 4천만 원대 중반에서 7천만 원대 까지 분포했다. 여기에 연말 성과급, 반기 포인트,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비급여성 보상이 더해지면서 체감 소득은 실제 연봉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삶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소득 변동에 대한 불안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들의 현재 생활수준을 보통 “빠듯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현했고, 미래의 위험을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예측된다는 것(“파박파박”)이 주요했다.

이들은 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연령대의 특성과는 맞물려 보였는데, 대체로 적극적 금융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 신용점수를 중요한 삶의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신용점수 떨어질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신용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도 투자 기회나 자산 확대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다. 필요에 의해 전세대출이나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은 필수적 선택이지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즉, 대출을 자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전문직의 E1 유형과 같은 이)은 이 집단 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할부는 도박 같다”, “빚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적 위험을 감내하려는 태도가 매우 낮게 느껴졌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래도 이들의 연령대가 젊고 그에 따라 연봉의 수준도 월등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투자행위에서도 동일한 보수성이 나타난다. A집단 중에는 A5씨처럼 매월 300만 원 이상을 ETF·주식에 투자하는 고도의 자산축적형 인물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철저히 자신의 소득 내에서만 움직이며 레버리지나 고위험 투자는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머지 다수는 투자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주식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 “잃으면 감정적으로 휘둘릴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예금과 장기저축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은 정규직 안정층들은 확장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금융에, 또 위험을 수용하는 금융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금융에 주안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소비패턴은 상당히 절제성과 자기관리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소비를 감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기능적·실용적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옷·가전·생활품은 주로 필요한 때에만 구입하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피한다”, “브랜드를 따지는 편은 아니다”와 같은 응답을 주었다. 일상소비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식비나 생활비를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갔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절제된 소비는 정규직 안정층의 문화적 규범에 가까웠다.

A집단의 흐름에서 하나의 예외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여행이었다. 인터뷰들을 통해 확인된 독특한 특징은 절제적 일상소비와 달리 여행에서는 일정한 ‘보상소비’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A4씨는 “여행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고, A5씨는 “일이 너무 박세서 여행이 빠지면 삶이 마른다”고 말했다. A3씨 역시 “살 때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서적 회복의 장치이며, 일상에서 억제된 감정과 스트레스를 환기시키는 기능적 소비로 보였다.

이러한 보상여행조차도 이들의 주된 성향에 부합하게 가성비·합리성이라는 정규직적 규율 내에서 이루어졌다. 휴양 중심의 2~4일 일정, 50만~200만 원대로 통제된 예산, 할인항공권·적정가격 숙소 등의 선택은 공통적이었다. 즉, ‘보상이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소비’, ‘감정적이지만 관리된 지출’이라는 이중적 특성이 이들의 여행에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A집단은 노동에서는 안정, 금융에서는 보수성, 소비에서는 절제, 여행에서는 통제된 보상이라는 특성을 주로 보였다. 이는 단순히 안정적인 고용의 결과가 아니라, 안정적 고용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규직적 생활윤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다. 위험을 피하고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소비와 금융에서 자기규율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 그럼에도 정서적 균형이 필요할 때는 선택적으로 여행에서 감정적 보상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나. B집단 : 중소·비정규 절제층

B집단은 중소기업 정규직 실무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가족부양을 책임

지는 중소 제조업 생산직 남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직종처럼 보이지만, 한결같이 ‘계약된 노동시장 지위’라는 구조적 조건을 공유한다. 이들에게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초이며,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곧 생애 전체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의 감각을 이루는 주요 단어는 “버티기, 절제, 생계, 미래의 제한”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좁은 승진구조, 제한된 복지 혜택, 비용 상승에 취약한 가계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한 명은 6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중견 서비스기업 팀장이고, 또 한 명은 3천만 원대 후반의 중소 제조업 생산직이며, 비정규직 청년 여성은 월 180만~200만 원의 임시직 종사자였다. 하지만 소득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의 경제적 감각은 유사했는데, “내가 그만두면 끝이다”, “다음 달 계산부터 걱정한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와 같은 언술들이 이들의 노동경험을 반영한다.

이들의 금융행위는 앞서 살펴본 고용 안정층과 대조적이다. A집단이 금융을 “유지·보수”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B집단은 금융을 “부담·압박·두려움”의 영역으로 경험하는 듯했다. B1씨와 B3씨는 모두 전세대출·주담대 또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상환액이 가계 구조를 지배한다. 특히 B3씨는 가족채무를 떠안는 과정에서 신용을 일부 잃었던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과거는 그의 금융태도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남의 돈 쓰는 건 항상 신경 쓰인다”고 했고, B1씨는 “월급 들어오면 먼저 대출 상환부터 본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대출은 자산 확대의 기회가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마지막 자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B2씨(청년 비정규 여성)는 금융 접근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았다. 신용점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과 직업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금융 시스템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대출은 겁나서 못 한다. 한 번 잘못되면 인생이 휘청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소득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그에게 금융은 기회가 아니라 위협이며, 신용카드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계해야 할 수단”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이들의 소비 행태는 모두 매우 절제적이다. B1씨는 자신의 소비를 거의 통제하며, 외식과 여가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그는 “책 말고는 나에게 쓰는 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B3씨는 자녀 둘을 키우는 가구로서, 소비의 대부분이 교육비·식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로 고정되어 있다. 그는 “우리 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먹는 건 교육비”라고 강조한다. 여가·취미·문화소비는 대부분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B2씨는 소비 자체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로 절제가 강화되어 있으며, “나에게 쓰는 돈은 항상 미안한 돈”이라고 말할 만큼 자기소비는 미미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에게 여행은 사실상 부채상태라는 점이다. 세 사례 모두에서 여행은 ‘희망’이라기보다 ‘결핍’ 혹은 ‘부채감’의 영역으로 자리해 있다. B1씨는 “여행 가면 좋긴 한데, 갔다 오면 돈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싫다”고 말하며 여행 자체를 기피한다. B3씨는 교육비 지출 때문에 여행을 1년에 한 번도 가지 못하는 해가 많다. B2씨는 아예 여행에 접근할 수 없으며, SNS로 남들의 여행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 쓰나 싶다”고 느낀다고 했다. 여행이 ‘회복’이나 ‘보상’의 의미로 작동하는 A집단과 달리, B집단에게 여행은 경제적 제약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의 상징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과 소비 사이의 관계 역시 뚜렷하다. 이들은 노동을 단순히 소득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노동의 의미는 거의 생계 중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B3씨는 “월급은 우리 가족이 굴러가게 하는 연료”라고 했고, B2씨는 “일은 계속 해야 하나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은 ‘나를 유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동의 제약성과 금융의 압박이 결국 소비의 극단적 절제로 이어지고, 절제는 다시 여행·여가 부문의 결핍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즉, B집단의 생애경제 구조는 노동시장 지위의 취약성 → 금융의 압박 또는 배제 → 소비의 생존화 → 여행의 결핍이라는 일종의 악순환적 고리에 갇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순환은 개인의 절약성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이 삶의 선택지를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B집단은 한국 30대 중·하층 노동자들의 현실을 응축한 집단으로, 불확실성·절제·생애리스크 집중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된다. 이들의 삶은 효율이나 자기관리라는 언어보다 더 근본적인 “버티기”에 기반한다.

노동의 의미는 생존, 금융은 압박 또는 배제, 소비는 필수, 여행은 곁여로 나타난다. 이는 A집단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선명해지며,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여행·금융행위 전반을 어떻게 제약적으로 구조화하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집단이다.

다. C집단 : 프리랜서·플랫폼 취약자율층

C집단에 속한 이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들은 조직 밖에서 일하며, 스스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그 자율성은 언제든지 불안정성으로 뒤바뀔 수 있는 양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일을 멈추면 바로 돈이 끊긴다”, “내 노동의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꺼냈다. 정규직 노동자가 당연하게 누리는 고용안정성, 승진의 시간표, 경력의 계단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금융·여행·여가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성’과 ‘불안정성’이라는 두 감정 사이의 조율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C1·C2)에게 이 긴장은 더욱 분명하다. 전업 라이더인 C2씨는 하루 13~15시간씩 오토바이를 몰며 일한다. 그에게 “쉬면 손해”라는 말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압축하는 표현이다. 쉬는 순간 소득이 전무해지기 때문이다. C1씨 역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일감이 줄면 그대로 줄어든다”고 말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C3·C4)은 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자율성의 폭은 더 크다. 하지만 이들도 소득의 불규칙성과 거래처의 결정을 자신의 노동시간보다 더 크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C3씨는 “이번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불안하다”고 했고, C4씨는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 내내 작업만 하고, 한가하면 너무 한가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일상은 구조화된 시간표가 없는 대신, 불확실한 리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금융행동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C집단은 대부분 무차입주의·현금주의를 추구한다.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나 신용대출은

그들에게 '삶의 통제력 상실'로 연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C3씨는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했다. 그는 "카드가 빛이다. 빛을 지면 내가 나를 못 믿을 것 같다"고 말했다. C2씨는 900점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마이너스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출을 쓰기 시작하면 감각이 무너진다"는 그의 말은 이 집단의 금융 윤리의 중심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낸다. C4씨 또한 "할부는 불안해서 못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금융 시스템의 '도구적 활용'보다 '통제 불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 금융은 기회가 아니라 잠재적 파탄의 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융에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억제적이면서 소비에서는 특정 영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지출을 허용했는데, 그 대표 영역이 여행이었다. C집단 대부분은 여행을 일상적 지출과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육체적 피로와 반복적 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적 환기 장치로 간주했다. 프리랜서들은 정신적 고갈과 번아웃을 예방하는 '정서적 리셋'의 도구로 정의내리는 듯했다. C1씨는 국내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야 견딜 수 있다"고 했고, C2씨는 "일만 하면 사람이 말라버린다. 한 번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C3씨는 "짧게라도 떠나야 삶이 숨을 쉰다"고 했으며, C4씨는 여행을 "내 리셋 버튼"이라고 부르며 3개월에 한 번 해외로 나갔다.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이들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행을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 소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규직 안정층(A집단)이 말한 '보상'과는 다른 정동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여행이 공감피로와 성과압박으로부터의 잠시 탈출이라면, C집단의 여행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생존적·정서적 장치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여행은 '도망'이나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을 지속하기 위한 '유지비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들은 여행에서조차 철저한 비용관리를 유지한다. 항공권은 가장 싼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숙박은 가성비 중시, 여행 일정은 2박 3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 많으며, 과도한 사치소비는 나오지 않는다. 즉, 여행은 이들에게 허용된 단 하나의 '감정적 소비'이지만, 그 소비조차 절제된 형태의 감성소비로 귀결된다.

소비 전체를 보면, C집단은 ‘일상절제 + 특정영역 집중’이라는 양상으로 대표된다. 일상에서는 먹고 자고 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한다. 새 옷을 사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이 집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C3씨는 “옷은 계절 바뀔 때 한두 벌 산다”고 했고, C4씨는 “패션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영상장비나 건강·운동, 교육비처럼 ‘나를 유지하는 비용’은 확인 가능한 지출로 남아 있다.

노동에 대한 의미는 이 집단에서 또 다른 결로 드러난다. 이들에게 노동은 자율성과 피로가 동시에 응축된 장치다. 프리랜서들은 조직에서 벗어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율성이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구조임을 반복해서 호소한다. C집단에게 노동은 자유롭지만 불안정한 것이자 자기시간을 지키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에게 하나의 생활윤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C집단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계지대에서 자율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감내하며 살아가는 ‘하이브리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제 가능한 작은 세계(현금·체크·결제)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 불가능한 세계(소득·임금·고용)로부터 거리를 둔다. 이 긴 조율의 과정 속에서 여행·경험·짧은 탈출은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서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들은 “경제적 축소”와 “정서적 회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집단이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절제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행을 감행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시대의 새로운 생애경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전략은 ‘절제된 금융 → 선택적 소비 → 높아진 여행의 정서적 비중 → 자율성의 유지’라는 흐름 위에서 구성되어 있다.

라. D집단 : 자영업 · 창업층

D집단에 속한 네 명은 모두 자영업자이지만, 단순히 “자영업자”라는 공통점만으로는 이들을 묶을 수 없다. 자영업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틀 안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세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 그 차이는 단순

한 업종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가족배경·정서적 노동·경제적 위험 감수성이 서로 얽히면서 나타난다. 이 집단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노동·부채·소비·여행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 책임’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정규직은 기업이, 비정규직은 제도의 일부가 책임을 나누어 갖지만, 이들 자영업자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다.

중장년 자영업자인 D1과 D2의 삶에서는 자기책임성이 더 무겁고 생계중심적으로 작동한다. D1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9년 동안 고객 서비스를 이어온 사람인데, 매출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를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말한다. 노동은 그에게 생계이자 정체성이며, 동시에 감정노동의 장이다. 그는 “손님이 만족하면 그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했지만,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손님이 아니라 매출의 불안정성이다. 흐르는 시간 전체가 매출 변동에 종속되기 때문에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거나 소비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D2씨는 자동차 정비업을 10년 넘게 해온 기술업자인데, 세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노동이 ‘생존’이라는 감정에 더 가까워진다. 정비업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산업 구조 변화의 압력 때문에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는 말에는 직업적 불안과 가족 책임이 동시에 묻어난다. 이 세대의 자영업 노동은 소비의 여유를 지우고, 여행을 가족의 의무적 이벤트로 축소시킨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 개인적 취향은 거의 지워지고, 생활비와 교육비가 절대 우선순위를 갖는다.

두 사례에서 금융행위는 거의 ‘부채방어전’에 가깝다. D1씨는 정책자금 3천만 원 외에는 어떤 부채도 사용하지 않으며, “대출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한다. D2씨 역시 주택담보대출 외에 어떤 신용확장도 하지 않는다. 할부는 오직 무이자만, 그것도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될 때만” 허용한다. 이들에게 금융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이며, 특히 중장년 자영업자에게 부채는 심리적 불안의 상징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미혼의 청년 자영업자인 D3와 D4의 세계는 다르다. D3씨는 20대 후반의 청년 창업자로, 차 제조와 티하우스를 운영한다. 그에게 자영업은 ‘먹고살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그는 “재미없으면 못 한다”고 단언한다. 그의 삶의 중심은 매출이나 안정이 아니라 경험·감성·자기표현이다. 외식·전시·공연·카페·여행 등 경험 중심 소비는 그의 월 소비 250만~300만 원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소비구조는 전적으로 ‘즐거움’과 ‘영감’에 기반한다. 여행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20회, 해외 3~4회라는 숫자는 가계 규율보다는 정서적 충동과 창작 리듬에 가깝다. 그는 “돈은 경험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문장은 D3씨뿐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의 정서적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다.

D4씨는 예술 공방 창업자로, 유리공예와 대학원 작업을 병행한다. D3씨처럼 자유를 선택한 인물이지만, 생애 구조는 훨씬 더 절제적이다. 공방 임대료와 대학원 비용이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는 “일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가 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성장과 자기확장을 위한 투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패션·외식·문화소비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운동·교육·예술·여행에만 지출한다. 여행 역시 정서적 리셋을 위한 절제된 도구로 기능한다.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여행 가는 게 내 루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청년 예술자영업자의 소비 세계에서 절제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창작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자원 배분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D집단은 자영업이라는 동일 범주 안에서 세대별로 구조가 분명히 갈린다. 기혼의 중년 자영업자는 생계·부채·가족 책임이라는 축이 강하고, 미혼의 청년 자영업자는 자기표현·감성·확장이라는 정서적 축위가 강하다. 다만 두 세대 모두에서 금융의 위험성은 공통적으로 인식된다. 중년은 부채를 부담으로 여기고 회피하며, 청년은 신용확장을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기고 본능적으로 멀리한다. 후자도 소비에서는 충동적일 수 있어도 금융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다.

여행 패턴만 놓고 보면 두 집단이 확연히 다르다. 기혼의 중년은 가족단위 의무적 여행(1주년·명절·아이 방학 중심)을 중심으로 하고, 비용과 일정 모든 면에서 절제되어 있다. 반대로 미혼의 청년은 여행을 삶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돈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필요하면 더 싸게 가고, 상황이 되면 더 멀리 간다. 이는 여행의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여행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것”, 청년에게 여행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종합하면 D집단은 노동·부채·소비·정서가 모두 ‘본인이 하나하나 감당해야 하는 세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면서도,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감정구조를 생성해낸다. 기혼의 유자녀 중년은 생존 중심의 절제와 위험회피를, 미혼의 청년은 감성 중심의 소비와 자기표현을 지향하는 상반된 전략을 취한다. 두 층 모두에서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금융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고, 여행은 각기 다른 형태의 생존·표현·회복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은 한국 자영업 생태계의 두 얼굴—생계로서의 자영업과 자기표현으로서의 자영업—이 공존하는 장에 처해 있으며, 세대와 가치관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안정을 조율하는 집단이다.

마. E집단 : 고소득 전문직

E집단의 인터뷰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극적으로 분열된 풍경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소득 수준이 높고 전문자격을 갖춘 상층 노동자들이다. 현대 그들의 금융 태도와 소비 방식, 그리고 여행과 일에 대한 감정 구조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들의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 상층이 처한 고위험 노동구조—성과주의, 계약제, 장시간·고밀도 노동—가 빚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모두 일단 ‘소득이 많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이 위험인지에 대한 감정과 태도는 서로 나뉜다.

한쪽 극에는 E1씨로 대표되는 레버리지·빚투형 전문직이 있다. 그는 변리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금융자본을 다루어 온 인물이다. 스물여섯 살 때 “마이너스 8천으로 첫 집을 샀다”는 말에서 예민한 금융 감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대출을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문으로 인식하며, “대출을 두려워하면 빈손으로 늙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코인으로 수익의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을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시키며 자산을 확장했다. 그에게 신용

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격적 재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다. 그러하기에 소비는 그저 투자 기회를 잠식하는 방해요소였다. “여행 가서 100만 원 쓰는 건, 그 돈이 내년엔 300만 원이 될 기회를 날리는 일”이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원리-소비 극소화, 금융 기회 극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에게 노동은 단순 수입원이 아니라 금융 확장의 기반이며, 소비는 감정적 만족보다 ‘자본의 성장’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반대쪽 극에는 E2씨처럼 고소득 절제형·대출회피형 전문직이 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연 5억 원 가까운 소득을 벌지만, 삶에서 돈의 여유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시간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로 보낸다. 스스로 “밤에만 사는 사람 같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는 부채를 극도로 싫어한다. 학자금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보며 “빛은 마음이 무거운 상태 자체”라고 표현했고, 고소득임에도 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방식에는 단호히 거리를 둔다. 그는 “욕심 부리면 패가망신한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실제로 투자행위도 거의 하지 않는다. 여행 역시 개인적 즐거움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의무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은 그에게 소비가 차지하는 위치란 단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노동의 피로 속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되는 감정적 휴식 정도이다. 노동은 능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잠식하는 구조로 작동하며, 소비는 기쁨이라기보다 부담 조절의 영역인 것이다.

E3씨는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는 보수적 실용형 전문직 자영업자라 할 수 있다. 세무사 사무소를 갖 개업한 사람으로, 안정된 직장인의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 조율하는 삶을 선택했다. 대출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도구’로 보며, “대출은 사업 운영을 위한 판단 기준일 뿐”으로 간주한다. 투자도 레버리지나 단타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 중심의 보수적 태도를 유지한다. E1과 E2 사이에서 E3씨가 지닌 흥미로운 차별점은 여행에 대한 태도다. 그는 두 달에 한 번 일본을 다녀올 정도로 여행을 중요한 정서적 균형 기제로 사용한다. “일은 반복적이고, 여행은 리셋”이라는 말은 그의 소비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E2씨의 여행이 ‘가족을 위한 의무’라면, E3씨의 여행은 ‘자기 자신을 복구하는 기제’이며, E1씨에게 여행은 ‘투자를 방해하는 지출’

에 가깝다.

이처럼 E집단의 세계는 안정된 고소득층이라는 범주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상이한 세 가지 생활전략으로 나뉜다. 이들의 차이는 표면적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전문직 노동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주지하듯이 전문직의 노동은 외형상 가장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성과압박·장시간 근무·강한 책임·계약적 불안정·높은 자기규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금융 태도에서 일종의 양극화를 낳는다. 압박을 기회로 돌리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압박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부채를 철저히 억제한다. 동일하게 높은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삶의 감정과 전략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다.

소비에서도 세 피면접인들은 다른 경로를 보였다. E1의 소비는 축소지향, E2의 소비는 가족 중심 절제, E3의 소비는 자기회복 중심의 절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행 역시 소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전략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 E1은 여행을 통제 내지 삭제하고, E2는 여행을 가족의 정서적 균형으로 유지하고, E3은 여행을 자신의 정신적 수리공으로 사용한다.

종합하면 E집단은 한국 사회의 고소득 전문직이 처한 다층적 긴장과 선택의 풍경을 드러낸다. 안정성과 불안정성, 기회와 위협, 과로와 보상 사이를 끊임없이 진동하며 생활전략을 구성한다. E1은 금융을 통해 미래를 확장하고, E2는 금융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며, E3은 여행과 절제된 소비를 통해 균형을 회복한다. 결국 E집단은 “돈이 많다”는 단일한 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레버리지의 세계·절제의 세계·회복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집단이다. 이들의 삶에서 고소득은 곧바로 여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문직 노동은 안정의 기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압박 구조가 되고 있다.

2. 쟁점별 조건과 태도

가. 노동에 대한 태도

인터뷰에 참여한 스무 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산업, 서로 다른 경력, 서

로 다른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을 바라보는 태도도 집단 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규직 안정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나의 안정 기반으로 이해한다. 그들에게 노동은 커리어나 자기실현의 언어로 설명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일상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게 해주는 구조물에 가깝다. “그냥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라든가 “조직이 주는 안정감이 가장 크다”는 표현은 이들이 노동을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무 스트레스나 업무 피로는 있어도, 노동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공포는 거의 없다. 이 집단에서 노동은 잘 버티는 것, 균형을 유지하는 것, 과로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규칙성에 맞춰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 노동은 그 자체로 성취의 대상이라기보다, 예측 가능성과 규칙성이 주는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맞벌이 절제층은 정규직 안정층과는 사뭇 다른 감정 구조 안에서 노동을 바라본다. 이들에게 노동은 단순히 소득의 원천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연료라고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장치인 것이다. “월급은 우리 가족이 굴러가게 하는 연료”라는 말은 그 상징성이 강하다. 이들은 노동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노동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미래 노동의 지속을 스스로 장담할 수 없기에, 노동은 언제나 “버티는 상태”로 존재한다. 노동이 단지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생존적 기능을 갖는다. 노동은 더 이상 안정이나 자기실현의 공간이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하루 단위로 상쇄하는 기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또 다른 톤으로 노동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자유와 자율성 차원에서 그 직을 택했지만, 그 자율성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유지된다. 어떤 이는 “내 시간을 지키려고 프리랜서를 선택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회사에 얽매이기 싫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쉬면 바로 0원”,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고백하게 된다. 이들에게 노동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는 구조다. 일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그러한 노동수요의 부재는 즉시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스스로 노동 규율을 세우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느낀다. 노동이 주는 자유

와 노동이 빼앗는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 집단의 삶은 매일의 선택이 압박을 동반하는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영업·창업층에서는 세대 혹은 가족구성이 달라지면서 노동의 의미도 크게 달라진다. 기혼의 중년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내가 쉬면 매출이 0원”이라는 말은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노동을 생계유지의 기술적 장치로 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유나 성취감에 대한 고민은 거의 사라져 있다. 노동은 삶의 전부이자 동시에 삶을 잠식하는 구조로 존재한다. 다만 같은 자영업자라도 미혼 청년 창업자의 노동 경험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노동을 “재미없으면 못 한다”, “나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노동을 자신의 정체성 확장과 연결 짓는다. 예술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 노동은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티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에 가깝다. 이러한 자기표현적 노동도 안전한 기반 위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일감이 언제든 줄어들 수 있으며, 사업 유지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비와 금융에서 극단적 절제 또는 충동적 감성소비라는 양극단의 전략을 취한다. 노동을 ‘즐거움’으로 말하지만,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정성을 감당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이 능력은 매달의 지출과 저축, 대출 회피 등 경제적 행동의 층위에서 다시 조정된다.

고소득 전문직은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변리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세무사 모두 고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노동을 보는 관점은 달라진다. 변리사는 노동을 금융자본 축적의 기반으로 이해하며, 일에서의 압박을 레버리지를 통한 기회로 전환한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노동을 “능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시급으로 치면 과소보상”이라고 느꼈고, 노동시간의 과도함이 삶 전체를 갉아먹는 구조라고 묘사했다. 세무사는 노동을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확인하게 해주는 장치로 받아들이며,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공통적으로, 전문직의 노동은 외형상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승진·성과·계약 압박이 결합된 고밀도 노동이고, 그만큼 노동 태도는 방어적이거나 혹은 공세적인 개인전략(빛투·절제·여행 등)을 통해 조율된다.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큰 범주로 수렴된다. 첫째는 정

규직 안정층의 노동이 “안정의 플랫폼”, 즉 일상과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둘째는 중소·비정규·플랫폼 노동자·중년 자영업자의 노동이 “생존의 연료”, 즉 가족과 본인을 하루 단위로 유지시키는 생계기반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청년 자영업자와 일부 프리랜서가 경험하는 노동의 “자기표현 공간”이라는 정체성적 차원이다. 이렇게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에 따라 노동의 의미는 다르게 정의되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여행·삶 전체의 리듬도 달라진다. 노동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성향 이전에, 그가 위치한 구조 자체의 감정과 규율을 반영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화된 태도는 오늘날 한국 청년세대의 소비불평등, 금융접근성의 격차, 정서적 삶의 불균등을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층위를 이룬다.

나.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태도

금융을 대하는 태도도 피면접인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상당히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금융은 단지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안정적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금융행동은 그 자체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이다.

정규직 안정층(A집단)의 금융태도는 기본적으로 보수성·규율성·통제성의 결합이다. 이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고, 신용점수도 930~990대라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을 통해 자산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대체로 금융을 기회나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현상 유지와 신용보호의 도구로 이해했다. “신용점수 떨어질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할부는 도박 같다”, “일시불이 편하다”는 말들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예측 가능한 급여가 금융 위험을 회피하는 심리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대출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전세대출·주담대 등 주거 목적이며, 이를 자산증식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건 피한다. 투자 역시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한 ETF·소액 주식 같은 ‘안전한 스케일’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집단에게 금융은 확장보다는 관리, 기회보다는 안전,

리스크 감수보다는 리스크 회피가 우선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중소·비정규·맞벌이 절제층(B집단)은 금융과의 관계가 훨씬 더 절실하고, 동시에 훨씬 더 제약되어 있다. 이들은 필요한 순간에 대출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자산 형성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부담에 가깝다.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이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구조적 변수이며, 대출상환 압박은 매달의 소비를 규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일상의 정서에까지 강하게 침투한다. “월급 들어오면 가장 먼저 대출 상환부터 본다”, “남의 돈 쓰는 건 늘 신경 쓰인다”, “대출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는 진술들은 이들이 금융을 의무적 부담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비정규 여성(B2)의 경우, 금융 접근성 자체가 낮아 신용카드조차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만 쓰며 금융을 ‘위험구역’처럼 느끼기까지 한다. 금융은 즐거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 아니라,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선으로 이들에게 기회도 자산도 아니며, 단지 매달 버티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부채 구조에 불과하다.

프리랜서·플랫폼 자유훁층(C집단)은 금융에 대해 거의 본능적인 회피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출을 통해 자산을 확장하는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금융 시스템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신용카드의 불규칙성에서 오는 통제력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기피한다. “카드는 빛이니까 아예 만들지 않는다”(C3), “대출을 쓰기 시작하면 감각이 무너진다”(C2), “할부는 불안해서 못 쓰겠다”(C4) 같은 진술에서 금융이 주는 잠재적 위험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금융 제도가 제공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금융적 위험을 통제하며 살아가려 한다. 그것은 현금주의·무차입주의라 할 수 있는 바, 이들에게 금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 품고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생활준칙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자영업·창업층(D집단)은 금융을 대하는 태도가 세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기혼의 중년 자영업자(D1·D2)는 금융을 “잡 못 자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로 인식한다. 자영업 특유의 불안정성과 매출 변동성이 이미 크기 때문에, 금융위험을 더 떠안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유지하기 어렵다. 전세대출·주담대 외에는 어떤 신용확장도 하지 않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정책자

금 같은 저위험 대출만 사용한다. 금융은 자산을 확장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계에 부담을 추가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미혼의 청년 자영업자(D3·D4)는 금융을 또 다른 방식으로 회피한다. 이들은 금융 접근성 자체는 높지만, 자신의 소득 경로가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인식한다. "신용은 무섭다", "대출해서 투자하면 인생 꼬인다"는 이들의 말은 금융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할 기반이 없음을 반영한다. 다만 중장년 자영업자처럼 대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자신의 삶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감정적 거부감이 더 강해 보인다. 금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중장년과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이유와 정서는 사뭇 다르다.

고소득 전문직(E집단)은 금융 태도에서 극단의 상이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E1은 대출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형 금융행위자이다. 그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확장하고, 신용을 '성장 도구'로 사용한다. 금융은 위험이 아니라 능력의 연장이라고 본다. E2는 금융을 철저히 회피한다. 그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있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E3는 둘의 중간 지점에 있다. 대출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실용적 입장을 취한다. 비슷한 고소득자들이지만 금융에 대한 정서적 감각과 활용 방식은 다들 상이하다. 이는 금융이 노동시간·정신적 압박·고용형태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돈이 많다/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가 만들어내는 미래예측 가능성과 심리적 안전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도 위험 감수에 자신이 없으면 대출을 회피하게 되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도 직업적 압박이 크면 금융을 기회로 전환하기 어렵다. 금융태도는 삶의 전반적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노동의 안정성, 가족 책임, 소득의 규칙성, 심리적 위험감수성 등이 얽히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문화적 형성물이라 할 수 있다.

다. 소비에 대한 조건과 태도

인터뷰 참여자들의 소비 세계를 들여다보면, 소비라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금융의 구조가 어떻게 삶을 압박하고, 어떻게 여유를 허락하며, 어떻게 감정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정서적 지형이다. 소득의 크기보다 노동의 안정성, 삶의 통제감, 가족책임, 자기정체성의 추구 여부, 미래 불안의 정도에 따라 소비는 사뭇 다른 색깔로 나타났다. 같은 10만 원을 쓰더라도 어떤 집단에게는 자유의 흔적이고, 어떤 집단에게는 죄책감이고, 또 어떤 집단에게는 회복의 통로다.

정규직 안정층(A집단)의 소비는 일상에서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그 절제는 생존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율에 가깝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산다”, “쓸 데 없다면 안 쓴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는 일상생활 지출을 정돈된 질서 안에서 유지하려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식비·생활비·취향소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과시적 소비나 충동적 소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 통제 원리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자발적 규율이다. 이러한 절제는 억압은 아니고 자기통제적 미덕에 가깝다. 절약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서’인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소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대신 여행이나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선택적 소비’의 구조가 형성되며 그것은 노동 스트레스를 상쇄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이자,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통로로 읽힌다.

중소·비정규·맞벌이 절제층(B집단)의 소비는 절제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들의 소비는 절제라기보다 사실상 삭제다. 정규직이 ‘쓰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집단은 ‘쓸 수 없음’에 더 가깝다. 의식주 외의 소비는 대부분 후순위로 밀리고, 교육비·주거비·부채 상환 같은 구조적 지출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인을 위한 소비는 다들 매우 미약하게만 허용한다. “나에게 쓰는 돈은 대부분 미안한 돈”이라는 비정규 여성(B2)의 말은 이 집단 전체의 감정 구조를 대변하는 느낌이다. 소비는 기쁨이나 취향이라기보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 여행은 사라지거나 극도로 축소되며, 문화소비와 여가소비는 꿈

꾸지 않게 되는 수준까지 축소된다. 소비는 생존의 반대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경험된다.

프리랜서·플랫폼 자유훈(C집단)은 소비의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이들의 소비는 일상에서는 B집단과 비슷하게 절제되지만, 여행·경험·감성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비의 목적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적 환기에 가깝다.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혼자 노동해야 하는 영상편집 프리랜서(C3)는 여행과 산책, 맛집 탐방과 같은 작은 소비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콘텐츠 기획 프리랜서(C4)는 일과 예술적 작업이 중첩된 혹독한 시간 속에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여행 가는” 방식으로 정서적 균형을 유지한다. 플랫폼 노동자(C1·C2)는 일의 반복성과 육체적 피로 때문에 여행을 ‘삶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장치’로 사용한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에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행이 그들에게 ‘살기 위해 필요한 소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소비는 철저히 계산되고 관리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감성회복 장치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거의 삭제하는 패턴을 취한다.

자영업·창업층(D집단)의 소비는 세대에 따라 갈린다. 중년 자영업자(D1·D2)는 소비의 절제가 매우 강하다. 소비의 우선순위는 가족·아이·주거·사업비가 절대적이며, 본인을 위한 소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는 곧 생존을 압박하는 용도로 경험되고, “애 셋 키우면 내 소비는 사치”라는 말처럼 소비에 대한 심리적 제약이 강하게 작동한다. 반면, 청년 자영업자(D3)는 정반대다. 외식·카페·여행·전시·공연 등 감성·경험 중심 소비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노동은 그런 소비와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소비는 정체성과 연결되고, 소비가 곧 ‘자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D4는 감성소비보다는 예술·자기계발·운동에 자원을 투입하는 유형으로, 그 역시 절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절제 속에서 ‘자기투자’를 우선한다. 청년 자영업자 집단은 소비를 생존의 부담이 아니라 정체성의 장으로 사용하지, 금융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점에서는 C집단과 맞닿아 있다.

전문직 상층(E집단)의 소비는 세 가지의 상이한 전략이 읽힌다. E1은 투자 우선주의로 소비를 극도로 억누르며, 소비는 재테크의 적으로 설정된다. 그는 소비를 일종의 ‘미래 수익 잠식’으로 인식하며, 여행조차 지출 대비 효용

을 따져 거의 하지 않는다. E2는 소비를 가족과 책임에 기반한 절제의 장으로 구성하며, 자신의 소비는 최소화하고 가족의 여가·보상을 중심에 둔다. E3는 여행과 외식 등 정서적 회복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지만, 일상 소비는 최대한 제한한다. 전문직 상층의 소비는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강한데, 노동이 주는 압박과 피로가 소비에 대한 감정 구조를 재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는 소비의 구조를 상당히 구획 짓지만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을 경험하는 감정의 밀도와 불안정성의 종류가 소비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안정층은 절제를 미덕으로, 취약층은 절제를 생존으로, 자율층은 절제를 감정 조율로, 청년 창업자는 소비를 자기표현으로, 전문직 상층은 소비를 미래 대비 혹은 책임 감당의 관점에서 본다. 같은 소비액이라도 각 집단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소득의 안정성·금융 접근성·가정 구성·정서적 필요가 모두 결합된 복합적 실천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비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삶의 기회와 감정구조 자체의 불평등의 측면으로 확장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그러한 양상에 대해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다.

라. 여행에 대한 태도

스무 명의 인터뷰를 관통해 여행 이야기를 꺼내 놓았을 때, 단지 휴가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여행은 이들에게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무엇이 과잉이고 무엇이 결핍인지, 경제적·정서적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지점이었다. 같은 “여행”이라는 행위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발견이다. 어떤 집단에게 여행은 통제된 보상이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지워진 소비이고, 또 어떤 집단에게는 생존을 위한 정서적 환기이며, 또 다른 집단에게는 정체성의 중심축이었다.

정규직 안정층(A집단)에게 여행은 절제된 일상 속에서 정교하게 관리되는 “통제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소비는 매우 절제되어 있지만, 여행에 대해서만큼은 일정한 자원을 투입한다. 그 자원 투입은 결코 낭비적이

지 않고 체계적이며, 대부분 -100만 원대 중반에서 200만 원 사이의- 가성비 중심 여행이었다. 여행을 기쁨으로 말하지만, 그 기쁨은 '지나치지 않음'이라는 원칙 위에 놓여 있었다. "여행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A4), "일이 너무 빠져서 여행이 빠지면 삶이 마르겠다"(A5) 같은 발언은 여행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는 기능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여행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이자 자원 배분의 문제이며 동시에 '허락된 감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맞벌이 절제층(B집단)에게 여행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들에게 여행은 거의 사라진 소비이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의무에 가까운 소규모·저비용으로 축소된다. 한 참여자는 "여행 갔다 오면 돈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싫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애들 교육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에게 여행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결핍의 영역이다. 여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되며, 현실의 구조적 제약-부채·전세대출·교육비·생활비-에 밀려 자연스럽게 삭제된다. 여행은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가 아니라, 아예 꿈꾸지 않게 되는 상태로 후퇴한다.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들에게 여행의 부재는 단순한 여가의 상실이 아니라, 삶에서 감정적 환기의 기회가 사라지는 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프리랜서·플랫폼 자유훁층(C집단)은 여행을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일상에서는 B집단과 비슷하게 절제된 소비를 수행하지만, 여행에 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에게 예외를 허용한다. "일만 하면 사람이 말라버린다"(C2), "짧게라도 떠나야 숨이 쉰다"(C3), "여행은 내 리셋 버튼이다"(C4) 같은 표현은, 여행이 삶의 정서적 필수 요소임을 드러낸다. 여행은 그들이 일상을 견디기 위해 필수적인 감정적 용량을 회복해 주는 도구로 작동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로와 신체 피로, 불규칙한 업무구조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짧은 국내여행을 '숨구멍'처럼 사용한다. 프리랜서들은 창작·작업의 고립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을 찾는다. 이들의 여행은 사치나 과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최저가 항공권, 적정 가격대의 숙소, 짧은 일정, 제한된 예산 등, 대부분 가성비 기반의 감정소비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여건

이 허락하지 않아도 결코 여행을 지우지는 않는다. 대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의 다른 소비들을 도려내도 좋다. 여행은 이들에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자영업·창업층(D집단)의 여행은 세대적·정서적 축을 따라 다시 나뉜다. 중년 자영업자(D1·D2)에게 여행은 거의 의무적이고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것”(D2)과 같은 표현은 여행이 본인의 욕망이 아니라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행적 소비임을 보여준다. 비용은 최소화되고, 일정은 짧아진다. 여행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청년 자영업자(D3)에게는 또 다른 풍경이 등장한다. 그에게 여행은 삶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일부다. 국내는 20회 이상, 해외는 3~4회라는 여행의 빈도 자체가, 소비라기보다 어떤 감정적·정체성적 충동에 가깝다. “돈은 경험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여행이 그에게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D4는 절제와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소비를 구성하면서도 여행을 정서적 생존 장치로 유지한다. 전체적으로 D집단은 자영업이라는 공동 구조 속에서 생계 중심의 여행(D1·D2)과 정체성 중심의 여행(D3·D4)이라는 두 갈래로 분화된다.

전문직 상층(E집단)에서는 또 다른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투자와 금융을 삶의 중심에 두는 E1에게 여행은 거의 삭제된 영역이다. 돈이 더 많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거의 안 간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E2에게 여행은 가족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며,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해서 가는 것”이라는 말은 여행이 정서적 만족보다 의무적 가족행위임을 드러낸다. E3에게 여행은 다시 정서적 균형을 위한 필수적 장치로 재등장한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일본을 방문하며, “일은 반복이고 여행은 리셋”이라고 말한다. 전문직 상층의 여행은 삶의 압박을 조율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이는 아예 지워버리고(E1), 어떤 이는 가족의 요구로 유지하며(E2),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감정회복 장치로 활용한다(E3).

전반적으로 여행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여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도, 정서적 생존 전략, 노동구조의 그림자가 뒤섞여 나타난다. 노동이

안정적이면 여행은 “허용된 보상”이 되고, 노동이 불안정하면 여행은 “사라지는 선택지”가 된다. 노동이 자율적이지만 불안정하면 여행은 “필수적 감정 회복기”가 되고, 노동이 자기표현의 장이면 여행은 “정체성의 연장”이 된다. 결국 누가 여행을 하고, 누가 여행을 포기하며, 누가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누가 여행을 두려워하는지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지위가 만들어내는 삶의 리듬, 정서적 여유, 금융위험 감수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면에서 소비불평등은 단순한 소비액의 차이를 넘어 경험의 불평등, 감정 회복 능력의 불평등,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유의 불평등으로 확장된다고 하겠다.

제5절 소 결

본 장의 분석은 불평등이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은 사람들 사이의 수치적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평등은 실제로 훨씬 더 미세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며, 삶의 여러 층위에서 조용하게 축적된다. 노동시장 지위가 달라지면서 소비·금융·정서·시간·경험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불평등은 언제나 돈의 부족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을 꿈꿀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들의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소비불평등은 단순한 소비액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소비할 수 있고, 누가 소비를 꿈꿀 수 있으며, 누가 소비를 미리 삭제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불평등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정서적 회복의 여유가 있는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금융을 기회로 경험하는가 또는 위협으로 경험하는가에서 다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소비불평등의 핵심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가, 소비를 통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소비를 통해 어떤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

문에 대한 집단별 차이라 하겠다. 소비의 차이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느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의 구조·금융 접근성·시간의 여유·정서적 안정·가족 구성·장기적 전망이 서로 결합된 복합 구조로 나타난다. 즉, 소비불평등은 금전적 불평등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시간적·정서적·문화적 불평등이 겹쳐지는 다층적 현상이다. 그 다층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 축에 노동시장 지위의 위계화가 있음을 본 장의 분석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소비불평등은 삶의 가능성 자체의 격차를 의미하므로 불평등의 표피적 모습을 넘어 깊은 모습을, 양적인 모습을 넘어 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규직 안정층은 노동의 안정성과 금융 접근성의 높음 덕분에 소비를 “선택의 문제”로 구성할 수 있고, 중소·비정규층은 소비를 “부담과 생존의 문제”로 마주하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소비를 “감정 유지와 노동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겪고, 자영업·청년층은 소비를 “정체성과 안정성의 갈등 지점”으로 경험하며, 전문직 상층은 소비를 “장기적 압박과 미래 전략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인다. 소비불평등은 소비액의 차이보다 소비가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가,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소비를 통해 무엇을 회복하거나 포기하는가, 소비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비불평등은 노동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금융의 접근성과 위험감수성에 스며들고, 이것이 다시 소비의 구조-절제/생존/감성/투자/삭제-로 변환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불평등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본 장의 분석은 소비불평등을 “돈의 문제”에서 “삶의 가능성과 정서적 자원의 배분 문제”로 확장시키게 한다. 이는 한국 30대 경제·정서·생활 구조를 해석하는 새로운 분석 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금전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소득의 예측 불가능성, 시간의 불규칙성, 사회보험의 부재, 가구 책임의 압박 속에서 일상의 소비를 줄이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기에 소비에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소비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뭉뚱그려 내놓는 소득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단 소득이 안정적으로 예측되고 생활 리듬을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의 구

축이 중요하다. 소비불평등의 중요한 기제는 소득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해소하는 고용안정·소득안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상 소비·여행·취향 소비를 단념하는 것은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언제 소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감정적이고 구조적인 압박 때문이다.

현실의 제도하에서의 금융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공포,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 금융 시장으로부터의 자발적·비자발적 배제는 단순히 금융지식 부족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구조가 만들어낸 금융불안에서 비롯된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금융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이고, 대출은 자산 축적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따라서 정책은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위험·저부담 대출,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불안 완화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신용회복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도 강화되어야 한다. 안정된 노동시장을 갖지 못한 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면 심리적 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고 이는 현실의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경험·여행·정서적 회복 자원 자체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비정규직·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들이 여행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여행 후 돌아올 현실이 더 무겁다”는 정서적 부담 때문이다. 여행은 이들에게 여가가 아니라 정서적 회복의 필수 인프라이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계층적으로 불평등해지고 있다. 정서적 회복 자원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동 지속 가능성, 건강, 관계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 삶의 질 전반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불안정 노동층에게 필요한 도움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공공 여행 바우처, 지역 기반 저비용 장기 체류 공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휴식·회복 프로그램 등 일종의 ‘경험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다. 경험을 통해 ‘회복할 권리’ 역시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다.

청년 자영업·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적 의미도 크다. 기존 창업지원·경영컨설팅·소득지원 중심의 정책은 이들의 실제 삶과 맞지 않는다. 이들은 소비와 금융에서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서적 회복을 위해 감성·취향 소

비를 유지하고, 노동시간과 소득의 극단적 불규칙성을 경험한다. 청년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자영업자 정책'을 넘어 불안정성 관리, 사회보험 포괄, 안정적 최소소득 확보,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등 새로운 정책 프레임에 민감하게 호응할 수 있다. 이들이 금융의 기회를 활용하기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띠는 점에서 단기적인 금융 접근성 개선을 넘어 금융회피 구조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직 상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요구된다. 소득 규모만 보면 최상층에 속하지만, 과로·성과주의·계약적 불안정이 결합된 전문직 노동은 시간적·정서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고소득 전문직조차 여행을 사치로 여기거나, 소비가 정서적 부채감과 연결되거나, 금융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 프레임을 더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문직 상층 내부의 시간 불평등과 정서적 취약성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고소득층이라도 노동의 형태에 따라 삶의 질과 소비 능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 드러낸 소비불평등의 가장 본질적인 함의는 선택권 자체의 불평등이다. 어떤 집단은 소비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은 소비를 생존 때문에 포기해야 하며, 어떤 집단은 감정 회복을 위해 소비를 강제로 유지해야 하고, 또 어떤 집단은 미래를 위해 소비를 억눌러야만 한다. 소비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의 의미, 즉 소비가 삶에서 어떤 감정적·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이다. 즉, 소비를 덜하거나 더 하는 것이 불평등의 핵심이 아니라, 소비를 구성하는 감정·시간·기회의 구조 자체가 계층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향후 이러한 측면이 정책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금융·소비·정서·여행을 각각 따로 분리한 정책적 시각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불안정 노동이 금융을 위축시키고, 금융 위축이 소비를 축소시키며, 소비 축소가 정서적 회복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정서적 결핍이 다시 노동 유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비불평등의 완화는 단일한 정책 도구로 해결될 수 없다.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험 확대, 저부담 금융, 정서회복 정책, 안정적 주거기반 등 노동·금융·소비·정서가 함께 움

직이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본 장의 분석이 던지는 종합적이고 무거운 메시지라 하겠다.

제 4 장

실업 시 소득 지원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서론

실직은 장기적인 소득 감소만이 아니라 가구 소비를 유의하게 하락시킨다.⁴⁾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라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적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실업급여의 개편 논의는 실업급여의 근로 비유인 측면에 치중되었다. 하한액이 높아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소득보다 급여액이 많아서 실업급여에 의존적이거나 반복 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책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적합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다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실업급여의 거시적인 자동안정화 역할이 다시 주목받았다. 경제 위축 시기에는 실업급여가 소비의 급

4) 최영준(2024)은 한국 경제의 가계 소비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거시경제적 충격을 거치면서 크게 둔화된 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실업 경험이 가계 소비에 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격한 감소를 억제하여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근로 유인과 생활 안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실업급여의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억제하는 평활화 효과(consumption smoothing)를 분석한다. 또한 실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소비 평활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대체율 현상을 근로 유인과 생활 안정이라는 양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소득을 상실한 실직 기간 동안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제한으로 인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개인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실직 위험에 대비한 민간보험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역선택 문제로 인해 민간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저축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취약한 실직자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실업급여는 위험을 분산(risk pooling)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통해 생활 수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실업급여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Gruber(1997)를 들 수 있다. 그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0%p 증가할 때 실업 시 소비 감소율이 2.7%p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 기간 평균 소비 하락이 약 6%임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없다면 소비 감소 폭이 세 배 이상 컸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Landais and Spinnewijn(2021)은 실직에 따른 평균적인 소비 반응으로부터 실업급여의 소비평활화 효과를 추정하는 Gruber(1997)의 분석 방법이 실업급여의 가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취업 상태와 실업 상태 각각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거나 현시 선호 방법을 통해 소비 지출의 하락이 크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의 가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Gerard and Naritomi(2021)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등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실직에 따른 소득 충격이 지속적이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발견은 소비의 평활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⁵⁾ 또한 개인별로 적립하여 소득 상실 시기에 인출하는 방식의 실업보험저축계좌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겠지만 소비 촉진에 미치는 역할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기에 실업급여의 소비 평활화 역할은 다시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미국의 실업급여 지출이 2007~2008년 대침체 기간의 5배, 임금 총액의 14.6%에 이를 만큼 급증하였다. Farrell et al.(2020)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취업자의 소비가 줄었지만,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기존 실업급여에 더하여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수령하여 실직 전에 비해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실업급여 지출이 소비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지적한다. Kerke(2023)는 실업자의 한계소비성향이 취업자보다 높거나 경제주체가 미래 소득 위협에 대비하여 예비적 저축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높이면 소비 수요를 촉진하며, 경기 침체 시기 특히 명목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거나 통화 정책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이론 모형을 통해 제시한다. Ganong et al.(2024)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었던 코로나 시기 실업급여 지출이 구직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지만 총수요를 진작하는 효과적인 정책이었음을 실증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지출을 촉진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기역행적인 실업급여가 보편적인 지원금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다. 이병희(2017)는 한국복지패널로 3

5) 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현재를 중시하는 모델(model with present-biased or myopia workers)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의 소비 평활화 효과를 강조한다. Ganong and Noel(2019)는 소비가 실업급여 수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급이 종료되면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들은 급여 소진을 예상하여 소비를 미리 줄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델(rational buffer stock model)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이 급여 수준 인상보다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개년 가구 패널을 구성하여 가구주 실직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실업급여가 완충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수준을 평활화하는 효과는 실직이 발생한 해에만 유의하게 나타나, 실업급여가 재취업 일자리를 개선하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김지운(2018)은 Gruber(199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0%p 증가할 때 실직 시 연평균 소비 감소율이 3.5%p 줄어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실업급여가 소폭의 소비평활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산이 적은 실직자 집단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지적한다.

제3절 실업급여 수혜율

실직 기간이 짧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조사 주기가 짧은 고빈도 자료(high-frequency data)가 바람직하지만, 고용, 실업급여, 가구 소비 정보를 모두 담은 매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정보, 개인의 고용 여부, 일자리별 실직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6차년도(조사 기준 2023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실직 임금근로 일자리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직 당시 학교를 졸업·중퇴한 15~64세 임금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일자리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음 일자리로 이행한 기간이 30일을 넘거나 다음 조사 시점까지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실직으로 정의하였다. 5차년도(조사 기준 2002년) 조사부터 임금 근로 일자리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실직 임금 일자리 자료에는 실업급여 수급 정부가 담겨 있다. 둘째, 실직자의 성, 연령, 학력, 혼인 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 정보가 담겨 있는 5~26차 개인 자료를 개인 번호를 이용하여 조사년도별로 결합하였다. 셋째,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자료는 가구 특성 정보를 조사 시점 기준으로 묻고 있지만, 가구 소득과 소비 정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소득과 월평균 소비를 묻고 있

다. 이에 다음 해에 조사된 가구소득과 소비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5~25차 가구 자료를 재구성하여, 실직 일자리 자료와 결합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료는 2002년부터 실직한 8,537명의 14,156개 임금근로 일자리별로 실직한 일자리 정보와 실업급여 수급 정보, 개인 특성, 가구 특성과 소득 소비 정보를 담고 있다.

실업급여의 포괄성은 실업급여의 수혜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의 정의와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수혜율은 다르게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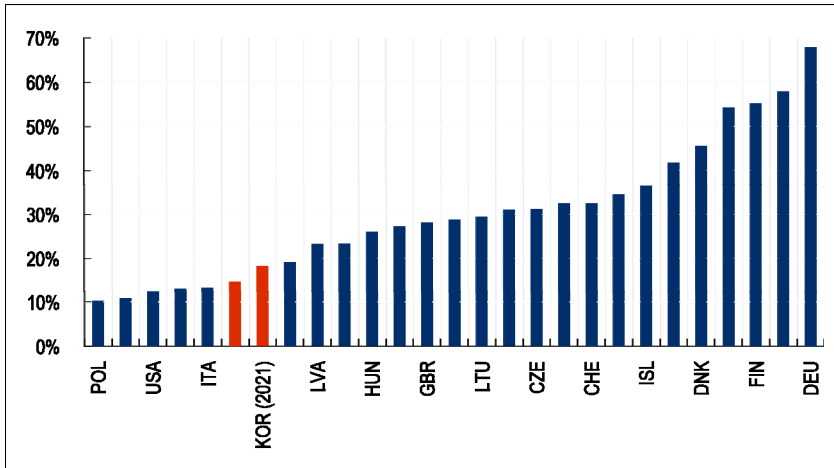
첫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자를 식별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OECD(2023)는 2021년 실업자로 조사된 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로 18%를 제시한다.

둘째, 행정 통계를 이용하여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혜자수의 비율이 국제 비교 통계로 사용되기도 한다. OECD(2023)는 2018년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로 39.3%를 제시한다.

어떤 지표로 측정하든 실업급여 수혜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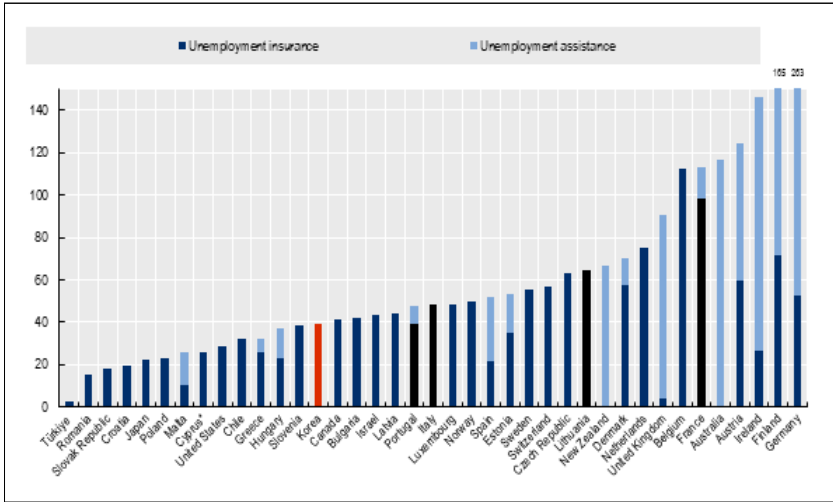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실직 일자리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산출하였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실업급여를 수급

[그림 4-1]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조사자료, 2019년)



자료: OECD(2023): 26.

[그림 4-2]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행정 통계, 2018년)



자료 : OECD(2023: 26~27).

하지 못하는 실직자일수록 비경제활동상태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 수혜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이병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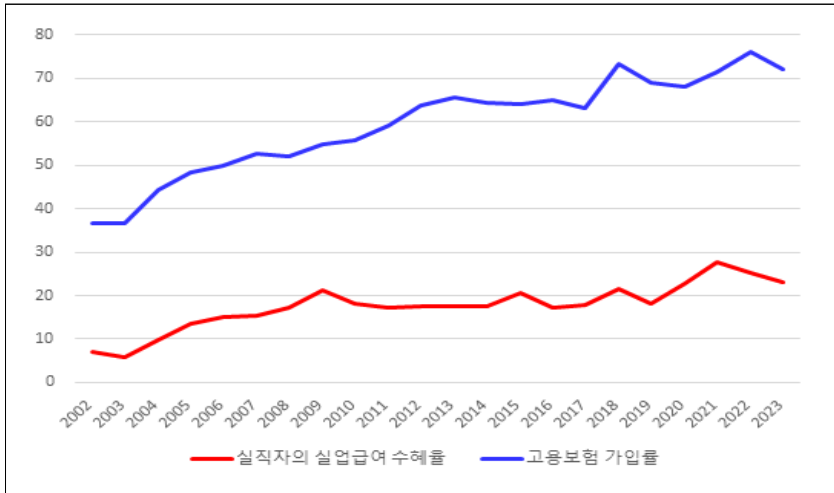
[그림 4-3]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22년 코로나 고용위기 때 실업급여 수혜율이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2023년 실직 시 실업급여 수혜율은 23.1%를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이병희, 2009).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둘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니어서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넷째, 미신청 등의 기타 순으로 순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4]는 임금근로자의 실직 시 실업급여 수혜율과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사유의 비중에 관한 추이를 보여준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대 초반 10% 미만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20%

[그림 4-3] 임금근로자의 실적 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로 구성된 실적 일자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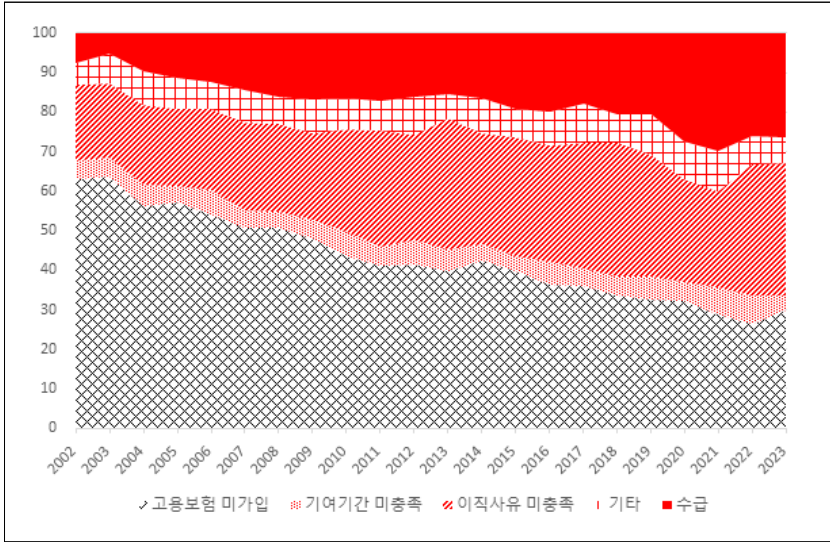
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3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급여 미수급은 5%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직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30%대로 증가하였다. 미신청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큰 변동이 없다.

실직 임금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급여 수혜율의 차이가 크다. 상용근로자는 실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이 2023년에 31.2%를 기록하였지만, 일용근로자는 5.8%에 불과하였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사상 지위별로 다르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상용직은 이직 사유의 미충족이 가장 큰 이유다. 한편 기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비중은 임시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⁶⁾

6)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여 요건은 임금근로자 내에서 동일하다고 하지만, 급여의 기초가 된 날수로 근로일수를 집계하는 방식은

[그림 4-4] 임금근로자의 실적 시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로 구성된 실적 일자리 자료.

<표 4-1> 실적 시 종사상 지위별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2023년)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15.0	47.2	76.9
	기여기간 미충족	2.9	5.5	5.8
	이직사유 미충족	44.4	18.3	7.7
	기타	6.5	6.8	3.9
수급		31.2	22.1	5.8

자료 : 한국노동패널로 구성된 실적 일자리 자료.

일용근로자에게 엄격하게 작용한다. 또한 일용직은 신청 전달부터 신청일까지 근로 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이거나 건설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실업 인정 요건도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제4절 실업급여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실업급여의 소비 평활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비자발적인 실직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비자발적인 실직의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가구소득은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가구 소비는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소비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실직 일자리 자료에서는 단기 고용되는 일자리가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비자발적인 실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실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일자리로 추출하였다. 추출 기준으로 실직 일자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퇴직금(퇴직수당) 수급 여부, 실직 일자리의 임금, 실직 일자리의 근속연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실직 전 2년 동안 실직 경험 없이 동일한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를 하던 실직자를 추출하여 실직 전 후 2년 동안 가구소득 및 소비의 정보를 결합하였다. 실직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해를 기준연도로 하여 전후 각각 2년을 추적하여 5년간의 균형 패널자료가 구성된다. 비교집단으로는 5년 동안 동일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한 해에 응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기준연도별 자료들을 통합(pooling)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이 기준연도라면 2002~2006년간 패널자료가 구성된다. 2021년이 기준연도면 2019~2023년간 패널자료가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구성한 자료는 실직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기준 연도인 2004~2020년간 실직 발생 여부를 식별하여 전후 2년간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정보를 결합한 자료이며, 7,126명의 154,515개 관측치를 가진다. 참고로 분석 자료에서 실직 경험자는 880명, 동일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6,246명이며, 실직 경험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522명, 미수급자는 358명이다. 한편 가구소득과 소비는 모두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였다.

실직 발생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기술 통계로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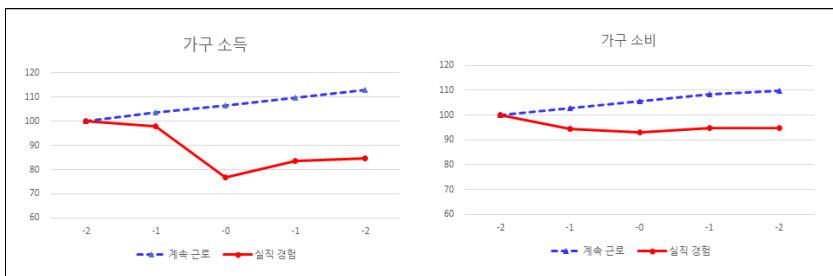
았다. 이때 가구소득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 영향 없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적소득을 합한 연간 소득이며, 가구 소비는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로서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제외된다.

[그림 4-5]는 실직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기준연도를 $t=0$, 실직 2년 전 가구소득과 소비 수준을 100으로 기준 삼아, 실직 경험이 가구의 시장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계속 근로하는 가구의 시장소득은 계속 증가하지만, 실직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실직이 발생하였을 때 크게 하락한다. 실직이 발생하기 전에도 가구소득이 소폭 감소하며,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주목된다.

실직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소비의 감소폭은 소득 감소폭보다 작다. 실직 경험 유무별로 가구 소비의 격차는 확대되며,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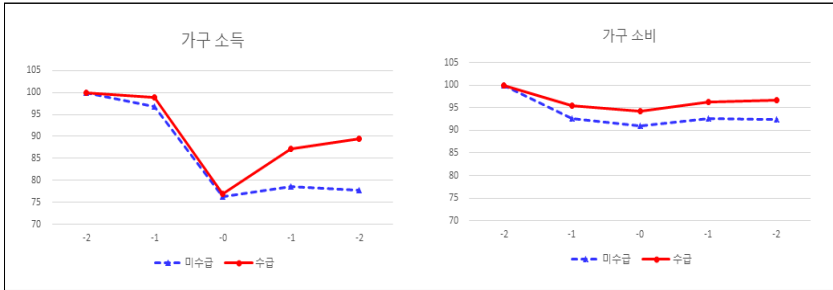
비자발적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통계로 살펴보았다. [그림 4-6]도 실직 2년 전 가구소득과 소비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의 시장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는 실직 경험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수급자보다 크고 지속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실직 발생하기까지 변화가 비수급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실직 발생 후의 가구소득은 실직 이전보다 낮지만 비수급자에 비해 감소폭이 작다.

[그림 4-5] 실직 경험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한국노동패널로 구성된 개인별 5년간 균형 패널자료.

[그림 4-6]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비자발적 실직자)



자료 : 한국노동패널로 구성된 개인별 5년간 균형 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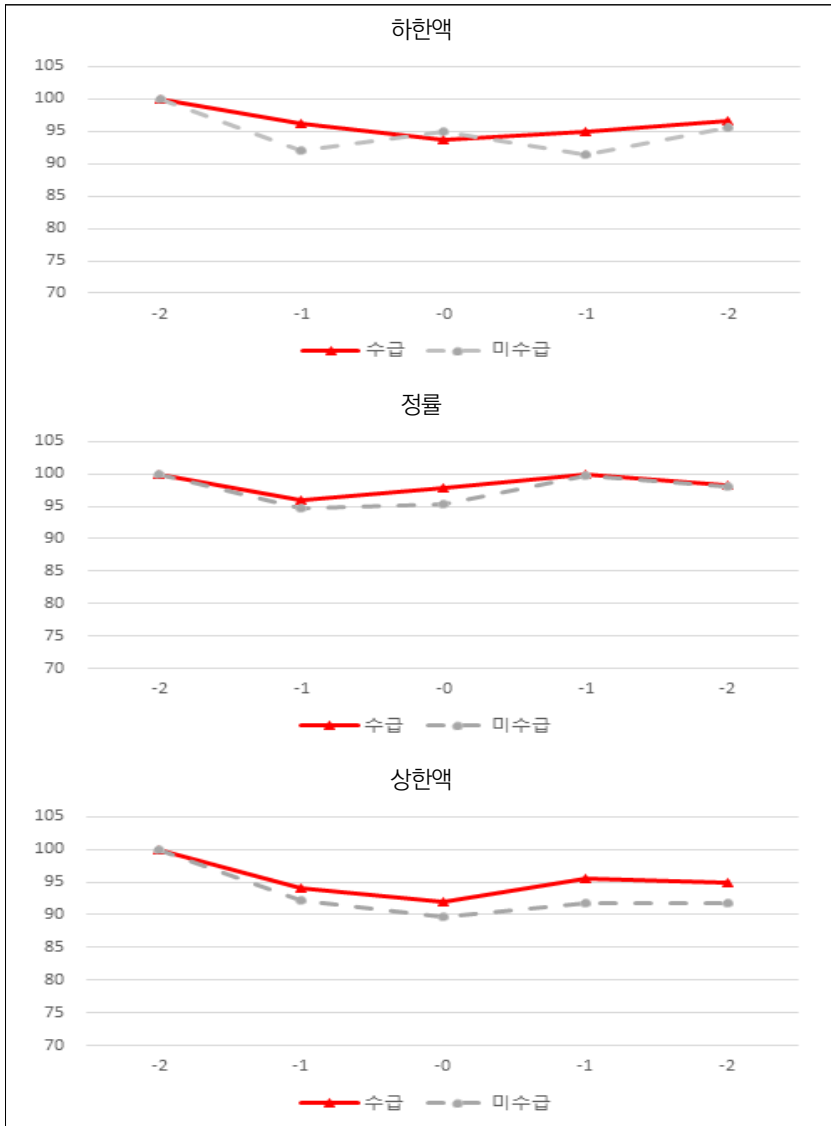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급자의 가구 소비 수준 또한 실직 이전보다는 낮지만, 비수급자에 비해 감소폭이 작으며 실직 발생 후 회복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로 가구 소비의 격차는 확대된다. 다만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실직 2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이 이전보다 낮기 때문인데,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역할이 미흡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별로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상하한액이 존재한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하한액을 지급하며, 고임금 근로자에게는 정률 60%로 계산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한액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하한액 수급자, 정률 수급자, 상한액 수급자로 구분하였다. 각 비교집단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의 실직 전 임금 수준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4-7]은 실직 전 임금 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실직 전 임금 계층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소비 감소를 보완하고 있다.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실직 기간 동안 소비 감소폭이 더 작게 나타난다. 둘째, 실직 발생 2년 후 소비 격차는 하한액 또는 정률 수급 수준의 임금계층에서는 사라지지만, 상한액 수급자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상한액으로 인해 소득 비례적인 급여의 성격이 약하지만, 실업급여가 고임금 근로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취업을 촉진하거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효과를 실직 전 임금 계층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실직 발생 전에 소비가 미

리 감소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에서 감소 폭이 더 작다. 실업급여라는 실업안전망의 존재가 실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그림 4-7] 실직 전 임금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주: 비교집단은 실직 전 임금 수준이 유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임.
 자료: 저자 작성.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직 발생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실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통적인 이중차분법은 사건(treatment) 전후의 처치군과 통제군의 차이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추정하는 반면 사건 연구는 사건 전후의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Gerard and Naritomi(2021)의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y_{ikt} = \alpha_i + \alpha_k + \alpha_t + \alpha_{ts} + \sum_{k \neq k'} \beta_k Treat_i + \epsilon_{ijk}$$

모형에서 α_i 는 개인 고정 효과다. α_k 는 실직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연도 0을 기준으로 $k \in [-2, 2]$ 의 값을 가지는 사건 시간 더미며, α_t 는 연도 더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5개년 패널자료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사건 시간 더미를 달리하면서 여러 차례 관측치로 포함되므로 실직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기준연도 더미 α_{ts} 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종속 변수인 y_{ikt} 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액을 사용하였다. 우리의 관심인 추정계수 β_k 는 사건 전후로 실직 발생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표준오차는 개인별로 클러스터링하여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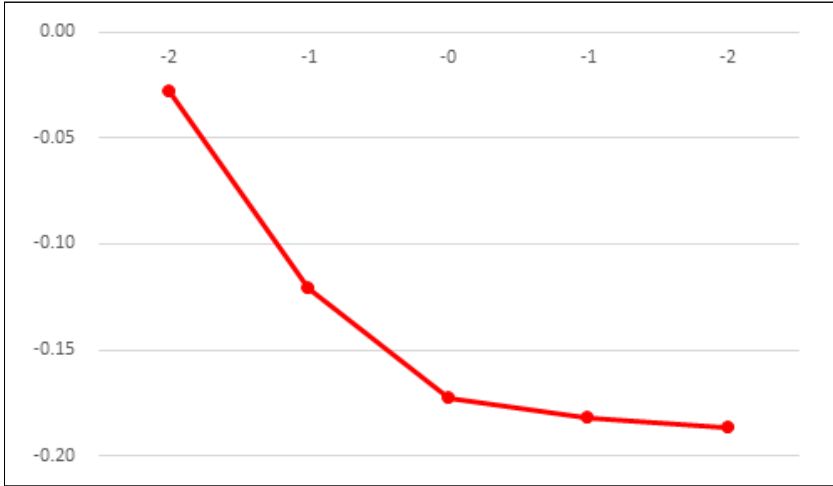
[그림 4-8]은 실직 전후 가구 소비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실직이 발생하기 전에도 실직자의 가구 소비는 하락하지만, 실직 발생 후 가구 소비는 17.3% 하락하며, 실직 2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림 4-9]를 보면, 실직 발생 후 가구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소비 감소를 억제하여 미수급에 비해 가구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실직 발생 전에 실업급여가 가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도 실업안전망의 존재로 인해 소비의 예방적인 감소를 억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직 전 임금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업급여 수

[그림 4-8] 실직 경험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가구 소비의 상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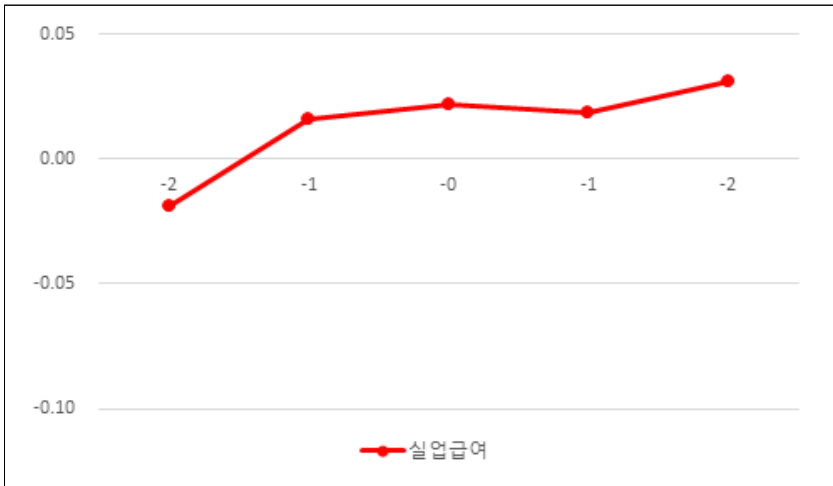
주 : 1) 추정된 β_k 를 처치집단의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상대적 변화량으로 제시함.

2) 비교집단은 동일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9]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비자발적 실직자)

(단위 : 가구 소비의 상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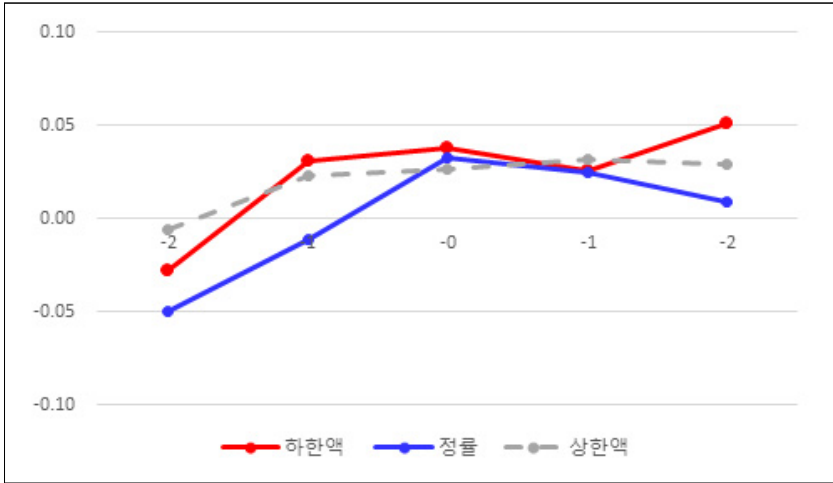
주 : 1) 추정된 β_k 를 처치집단의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상대적 변화량으로 제시함.

2) 비교집단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0] 실직 전 임금계층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비자발적 실직자)

(단위 : 가구 소비의 상대적 변화)



주 : 1) 추정된 β_k 를 처치집단의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상대적 변화량으로 제시함.

2) 비교집단은 실직 전 임금 수준이 유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임.
자료 : 저자 작성.

급이 가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하한액을 수급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한액을 수급하는 고임금 근로자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실직 경험의 충격이 고임금 근로자에서 더 크며, 실업급여가 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이 고임금 근로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5절 요약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실직 발생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은 유의하게 가구 소비를 하락시키며, 실직 발생 2년 후에도 실직 전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둘째,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크게 낮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은 가구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한액을 수급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실업급여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이 가구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지만, 실직 2년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칭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직 발생 전에 소비가 미리 감소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직자에서 감소폭이 더 작게 나타난다. 실업급여라는 실업안전망의 존재가 실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이 있음을 시사한다.

OECD(2023)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소득의 변동성이 큰 비전형 근로 형태에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위험이 임금 근로 형태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할 필요는 크다.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통해 노동소득을 매월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 행정의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편적인 적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목적은 실업 위험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뚜렷하여, 고용 위기 동안 실업급여의 거시경제적인 자동안정화 역할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고용 회복기에도 실업급여 지출이 그다지 줄지 않는 문제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는 정책과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가 실직 직전에도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줄이고 실직 기간 동안에는 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며, 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연간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표본 수가 많지 않았다. 향후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가구소득의 증가가 상위 20%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임금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것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의 분석 도구로는 소득이 소비보다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사회 후생 증대 측면에서는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시장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기반을 가진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문화비, 의류비 등 선택적 소비 항목의 지출이 현저히 낮고 소득 변화에 대한 탄력성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에 놓인 가구의 경우 필수재 중심의 지출 구조에 갇혀 미래지향적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한 질적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경로를 규명하고 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소비격차가 단순한 소득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지위와 금융접근성의 결합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문제의 식 아래 소비불평등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금전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소득의 예측 불가능성, 시간의 불규칙성, 사회보험의 부재, 가구 책임의 압박 속에서 일상의 소비를 줄이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집단의 소비 위축은 궁극적으로 경험·여행·정서적 회복 자원의 계층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상병수당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완화 등을 통해 가계의 단기적 소비 위축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의 존재가 실직 위험에 대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의 감소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의 평활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한국처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사회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안전망의 획기적 진전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다면, 사회정책적 자원들이 현실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필요들을 적재적소에 채워주는 식으로 배분된다면 그 효용성은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이 주로 '소득구조기반(income structure based)'의 영역에 머물렀고, 그것이 한국의 제약된 조건 위에서 어느 정도 발전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의 관심을 소비구조의 영역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비구조기반 사회정책이 사실상 부재했기에 조금만 관심을 써서 접근한다면 대중들의 효능감과 긍정적 반응을 크게 끌어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청년 자영업·프리랜서와 관련해서 기존의 창업지원·경영컨설팅·소득지원 중심의 정책은 이들의 실제 삶의 필요는 전혀 건들지 못한다. 그들은 소비와 금융에서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서적 회복을 위해 감성·취향 소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노동시간과 소득의 극단적 불규칙성을 경험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불안정성 관리, 사회보험 포괄, 안정적 최소소득 확보 등 노

동시장에서의 안정성 기제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등 새로운 소비구조 기반의 불평등 완화정책의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고소득층이라도 노동의 형태에 따라 삶의 질과 소비 능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구조기반 사회정책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는 영역이다. 고소득층들도 나름의 제약과 압력 속에서 일상을 꾸려나가는 바, 그들의 소비여력을 약간의 지원과 자극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여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삶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은 제약적이든 자발적이든 문화적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계층을 초월하여 극복하지 못할 수 있는 바, 정책이 그러한 점까지 민감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한층 수준을 높이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험 확대, 저부담 금융, 정서회복 정책, 안정적 주거기반 등 노동·금융·소비·정서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특히 금융접근성의 문제는 소득구조기반 사회정책의 측면과 소비구조기반 사회정책 모두의 기획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의 측면을 보면,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가구의 경우 자산 형성 기회마저 제한되어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근로형태 비전형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금융 소외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소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 보완과 정책 금융 대출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기적 금융자산 구축 프로그램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측면에서도 금융접근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등 상대적으로 소비 액수가 큰 소비 기회는 한국과 같이 치열한 노동시장의 문화적 조건을 경험하는 대중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큰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내 내수여행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함께 고려할 주제인 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염두에 두면서 금융접근성을 증진시키면서 적극적인 매칭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이 무이자 할부의 상품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매개로 여행상품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극

적인 결합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여행소비 여력도 키우고 여행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저신용층들도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여행바우처 등 정책금융적인 지원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교육과 여가 및 문화자원 향유의 기회는 장기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불균형과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교육 등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된 소비 격차 완화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문화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은 낮은 노동시장 지위에 있는 가구의 교육과 문화 영역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영역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인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 최근 발간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To have and have not-How to bridge the gap in opportunities)』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 32개 회원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OECD, 2025). 보고서는 가계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기 개입 강화와 평생학습 체계 내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기회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 인프라 강화 등을 제안한다. 특히 경제적 자원 구축과 신용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복지 및 주거 정책 개발을 촉구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지위가 소비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은 물론,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금융 정책 등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불평등이 물질의 액수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축적하느냐에 따라 구현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불평등의 재생산 고리를 끊고 사회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

다. 우리의 사회정책이 이러한 시선까지 확보하며 펼쳐질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이동성 촉진에 기여하고 결국에 보다 활력 있는 일터와 가정을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2025),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금재호 · 최재문(2021),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 39(1), 한국경제연구학회, pp.103~135.
- 김용선 · 전봉걸(2020), 「금융소의 관점에서 본 가계의 신용제약 결정요인」, 『금융안정연구』 21(2), 예금보험공사, pp.31~58.
- 김정현 · 최현자(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자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한국소비자학회, pp.269~292.
- 김지운(2018),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66(4), 한국경제학회, pp.133~165.
- 남은영(2010),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한국사회학회, pp.126~161.
- 문영만(2019),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42(1), 한국노동경제학회, pp.1~32.
- 박명준(2018),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자리 관계’의 재구성: ‘다면적 교섭’을 통한 노동시장의 포괄적 안정화 전략」, 『경제와사회』 119, pp.42~72.
- 백승호(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pp.57~90.
- 백학영(20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75~105.
- 손연정 · 강동우 · 정성미(2019),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송상윤(2018),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41(4), 한국노동경제학회, pp.63~105.

- 심영(2016), 「상대적 박탈 정도별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5(1), 한국생활과학회, pp.39~54.
-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경제발전연구』 15(1), 한국경제발전학회, pp.69~93.
- _____(2017), 「실직 위험과 가구 소비」, 201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이인재 · 김태기(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2(3), 한국노동경제학회, pp.1~26.
- 이철승(2017), 「결합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경제와사회』 115, pp.103~144.
- 이현주 · 강신옥 · 김현경 · 이병희 · 전지현 · 주상영(2016), 『저소득층 가구 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찬영(2021), 「가계 소비지출구조의 패널 분석 :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3), 자료분석학회, pp.1153~1168.
- 장미혜(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한국사회학회, pp.51~81.
- 장인성 · 손연정 · 김기홍(2023), 『고용변동성의 집단별 특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 정이환 · 전병유 · 이승렬 · 조성재 · 강성태(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 정주연 · 김재호(2020),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정책연구』 20(4), 한국노동연구원, pp.63~91.
- 조동훈(2009),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노동정책연구』 9(3), 한국노동연구원, pp.1~27.
- 조은(2001), 「문화 자본과 계급 재생산-계급별 일상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0, 한국사회사학회, pp.166~207.
- 최영준(2024),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 『경제분석』 30(3), 한국은행, pp.44~70.

최유정 · 최셋별(2012), 「소비의 계급적 지형과 그 함의 : 식생활 및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5(2), 한국소비문화학회, pp.119~142.

황덕순 · 윤자영 · 전병유 · 윤정향(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Aguiar, M., and M. Bils(2015), “Has consumption inequality mirrore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9), pp.2725~2756.

Alwitt, Linda F., and T. Donley(1998), “The low-income consumer. Adjusting the balance of exchang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1, pp.231~235.

Atkinson, A. B.(2007),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6(1-2), pp.41~60.

Benito, A.(2006), “Does job insecurity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Oxford Economic Papers* 58(1), pp.157~181.

Blundell, R., and I. Preston(1998), “Consumption inequality and income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2), pp.603~640.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Research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pp.241~258.

Caballero, R. J.(1990), “Consumption puzzles and precautionary saving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5(1), pp.113~136.

Carroll, C. D.(1997), “Buffer-stock saving and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1), pp.1~55.

_____(2009), “Precautionary saving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permanent incom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6(6), pp.780~790.

- Christelis, D., D. Georgarakos, and T. Jappelli(2015), “Wealth shocks, unemployment shocks and consumption in the wake of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72, pp.21~41.
- Crouch, C.(2009), “Privatised Keynesianism : An Unacknowledged Policy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1(3), pp.382~399.
- Deaton, A.(2003), “Household surveys, consumption, and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ic Systems Research* 15(2), pp.135~159.
- Duesenberry, J. S.(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 Dynan, K., A. Mian, and K. M. Pence(2012), “Is a household debt overhang holding back consump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pp.299~362.
- Farrell, D., P. Ganong, F. Greig, M. Liebeskind, P. Noel and J. Vavra(2020), “Consumption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PMorgan Chase Institute, Working Paper*, pp.1~45.
- Ganong, P. and P. Noel(2019), “Consumer Spending during Unemployment : Positive and Normative Implic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7), pp.2383~2424.
- Ganong, P., F. Greig, P. Noel, D. Sullivan and J. Vavra(2024), “Spending and Job-Finding Impacts of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Micro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14(9), pp.2898~2939.
- Gerard, F. and J. Naritomi(2021), “Job Displacement Insurance and (the Lack of) Consumption-Smooth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11(3), pp.899~942.
- Gruber, J.(1997), “The Consumption Smoothing Benefits of Unemployment Insur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87(1), pp.192~205.
- Jappelli, T.(1990), “Who is credit constrained in the US economy?,” *Th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1), pp.219~234.
- Kerke, R.(2023), "Unemployment Insurance i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90, pp.2439~2480.
- Kimball, M. S.(1990), "Precautionary saving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NBER Working Papers* 3403.
- Krippner, G.(2011), *Capitalizing on Crisis: The Political Origins of the Rise of Fin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dais, C. and J. Spinnewijn(2021), "The Value of Unemployment Insura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8, pp.3041~3085.
- Leland, H. E.(1968), "Saving and uncertainty : The precautionary demand for sav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3), pp.465~473.
- Meyer, B. D., and J. X. Sullivan(2003), "Measuring the Well-Being of the Poor Using Income and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s* 976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_____ (2017),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S Since the 1960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offitt, R. A., and P. Gottschalk(2002), "Trends in the transitory variance of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Journal* 112(478), pp.C68~C73.
- Mundlak, Y.(1978), "On the pooling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Econometrica :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pp.69~85.
- OECD(2023), *Benefit reforms for inclusive societies in Korea*, OECD Publishing.
- _____ (2025), *To have and have not - How to bridge the gap in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 Zeldes, S. P.(1989), "Consump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2), pp.305~346.

[부록] 인터뷰 내용 요약(총 20명)

□ A1씨 - 대형 금융기관 개발직(30대 초반, 미혼)

A1씨는 수도권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임. 대형 금융기관의 개발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한 지는 1년 남짓이지만 고용안정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함. 본인은 자신의 노동을 “그냥 하루 하루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 같음”이라고 표현했고, 이는 노동을 자기실현보다 ‘안정적 일상 유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연소득은 5천만 원대 초반이지만 복지포인트·성과급 등 비금전 보상이 누적되면서 체감 소득은 더 높다고 설명함. “월급은 320 정도지만 회사에서 주는 포인트까지 합치면 사실상 400 넘게 쓰는 느낌임”이라고 말함. 전세보증금 일부는 대출(약 3천만 원)로 조달했으나 “이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님”이라고 답함.

금융행위는 매우 보수적임. 신용점수는 930대이며, “신용점수 떨어질 행동은 일부러 안 함”이라고 말함. 주식은 소액만 가지고 있으며 투자에 소극적임. “괜히 투자 잘못해서 스트레스 생기는 게 더 싫음”이라는 태도임. 금융을 확장·기회 수단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소비는 절제형임. 식비·의류·문화비 모두 평균 이하 수준에서 관리됨. 본인은 “돈 쓰는 데 감정이 별로 없음”, “필요한 것만 사는 편임”이라고 설명함. 내구재 구매도 드물고, 구매할 때는 기능성·가격 대비 효율성을 더 중시함. 복지포인트·회사 카페포인트 등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포인트 먼저 쓰고 현금은 아깝”이라고 말함.

여행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임. A1씨는 “여행은 귀찮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음. 주변 지인의 여행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실제로는 연 0~1회 국내 단기 여행 정도임. 본인에게 여행은 ‘감정적 보상’보다 “쉬어야 하나까 가는 것 정도”의 소극적 의미를 가짐.

종합적으로 A1씨는 정규직 안정층의 전형적인 절제형·실용형 소비자임. 금융은 보수적이고 소비는 낮으며 여행은 부차적임. 노동은 안정적 일상을

유지하는 기반이며, 그는 이를 “지금 삶을 계속 굴리는 장치 정도임”이라고 표현함.

□ A2씨 - 대형 유통 · 패션기업 사무직(30대 중반, 기혼 · 외벌이)

A2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대형 유통 · 패션 계열 기업에서 정규직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결혼한 상태이며 배우자는 전업주부에 가까운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외벌이 가구임. 그는 자신을 “혼자 벌어서 둘이 사는 구조”라고 표현하며, 경제적 압박감이 커져 있다고 말함.

연 소득은 약 7천만 원 수준으로 중견기업 상위권이지만, 부채 부담이 매우 큼. 전세대출 3억 5천만 원과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어,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임”이라고 표현함. 실제로 매달 150만~180만 원 사이의 이자 · 원금 상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는 “일단 빚을 줄이는 게 1순위, 소비는 그 다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함.

금융행위는 필요대출형 + 신용카드 할부의 일상화라는 특징을 가짐. 카드만 3개를 쓰고 있고, 거의 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로 처리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이자 할부의 적극적 활용임. 그는 “요새 뭐든지 무이자가 나오니까 3개월 · 6개월 할부로 그냥 끊는 편임”, “일시불로 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 보는 기본임”이라고 말함. 금융을 축적이나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보기보다, 일상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

투자활동은 거의 없음. 과거 소액 주식 · 코인 투자 경험이 있지만 손실을 경험한 이후 “내 돈은 내 눈앞에서 확인되는 게 좋음”이라고 하며 주식 투자에서 멀어짐. 저축은 적금 형태로 월 10만 원만 유지하고 있음.

소비패턴은 필수소비 중심 + 내구재 · 가전 소비의 할부 집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그는 “먹고사는 데 드는 돈이 너무 큼”, “애는 없지만 생활비가 계속 오름”이라고 말함. 특히 가전제품 · 컴퓨터 · 휴대폰과 같은 내구재는 대부분 무이자할부로 구매함. 일상지출 중에서도 식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밥값이 너무 올라서 외식도 조절해야 할 판임”이라고 토로함.

여행은 연 1회 국내여행 정도이며, 해외여행은 거의 가지 않음. 예산도 최소화해 50만~100만 원 수준에서 처리함. 그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갔다

오면 현실이 너무 무거워짐”이라고 말해 여행이 즐거움보다 부담으로 경험됨을 드러냄.

배우자와 소비 성향은 비슷한 편으로, 둘 다 절제형 성향이 강함. 그는 “둘 다 씹씹이가 큰 편이 아니라 그나마 버티는 것 같음”이라고 설명함.

총체적으로 A2씨는 전형적인 ‘필요대출형 절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음. 안정적 정규직임에도 부채 부담이 커, 금융은 ‘확장’보다 ‘관리’의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는 자신의 소비정체성을 “지출은 정해진 선 안에서만. 넘으면 안 됨. 그게 우리 집 룰임”이라고 표현함.

□ A3씨 - 대기업 제조업 기술직(30대 중반, 기혼 · 맞벌이)

A3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국내 상위권 대기업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경력은 6년 차에 접어든 중견급이며, 안정적인 조직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배우자 역시 안정적 직장을 가진 맞벌이 형태로, 가구소득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임. 그는 자신의 노동환경을 “힘들긴 한데, 회사가 워낙 안정적이라 그게 주는 생활 안정감이 큼”이라고 말함.

주거는 자가이며,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이 존재함. 부채는 규모가 크지만 그는 이를 과도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이 정도는 요즘 맞벌이면 다들 갖고 있는 정도라고 봄”이라고 말함. 대신 부채를 이용해 투자를 확대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행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음. 금융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고 현금흐름 통제 중심임.

실제로 A3씨는 할부를 거의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지출을 일시불로 처리함. “할부는 도박 같음. 지금 가진 돈 이상으로 쓰는 느낌이 싫음”이라고 말함. 그는 마이너스통장도 개설해두었지만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보험처럼 갖고만 있음. 한 번도 꺼낸 적 없음”이라고 말함.

금융을 적극적 기회나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안정성 관리의 도구’로 인식하는 확고한 경향이 있음.

소비 역시 절제적임. 생활비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유지되며, 외식·사교·취미 소비는 제한적임. “그냥 쓸 데 없으면 안 씬. 생활에 필요한 거만”이라고 말함. 아내와의 소비 방향도 비슷하며, 가계 재정 운영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초점을 둠.

그럼에도 불구하고 A3씨에게 여행은 꽤 중요한 여가 형태임. 국내여행은 연 3~4회, 그리고 해외여행은 연 1회 정도를 다녀옴. 여행은 '과소비'라기보다 가족 중심의 보상적 활동으로 인식됨. "일할 땐 죽 일하니깐, 쉴 땐 확실히 쉬려고 함"이라는 말은 그의 여행관을 잘 보여줌. 여행 예산은 100만~200만 원대 정도이며, 가성비 높은 여행을 선호함.

개인적 취향은 소박하고 기능 중심이며, '끼를 부리는 소비'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 가전이나 차량 등 내구재도 신중히 고르고 오래 사용함. 카드 사용 역시 단순하며, 신용카드 하나로 정리해 사용하는 방식임.

노동·소득에 대한 그의 태도는 명확함. 그는 "직장은 그냥 안정된 급여를 주는 곳", "내 일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함"이라고 말함. 노동은 자신에게 자아실현보다 '생활 안정성 확보의 핵심축'임.

종합하면, A3씨는 대기업 안정직에 속하지만 금융·소비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절제적이며, 여행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의 보상 소비로 기능함. 즉, 노동 안정성은 높지만 금융 위험선호는 낮고, 소비는 기능 중심인 전형적 안정 중산층임.

□ A4씨 - 공공기관 IT·행정직(20대 후반, 사실혼·맞벌이)

A4씨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IT·행정 직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공공기관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고, 급여와 복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직 환경임. 그는 현재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약 1억 원 수준임. 본인은 월 33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하면 생활 안정성이 충분한 편임.

노동에 대해 그는 "그냥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구조물 같은 느낌임"이라고 말함. 공공기관의 규칙성, 예측가능성, 조직의 보장성이 심리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업무강도나 스트레스 수준은 일정 수준 존재하며, "업무 자체는 만족하지만, 조직 문화가 답답할 때가 있음"이라고도 말함.

금융행위는 보수적이고 절제된 쪽에 속함. 신용점수는 980~990 사이의

최상위권이며, 이는 본인의 철저한 신용관리 습관에서 비롯됨. 그는 “신용 카드는 일시불만 쓰는 게 편함”이라고 말하고, 할부를 거의 하지 않음. 전세 대출 1억 원이 있으나, 이 역시 매우 낮은 금리 조건에서 무리 없이 관리되는 수준임. 투자 역시 매우 절제되어 있어, “ETF 소액 넣고 끝. 크게 돈 벌려는 생각은 없음”이라고 말함.

소비는 절약형 + 선택적 과소비형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일상생활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식비는 30만 원 정도로 제한함. 의류·문화비 지출도 제한적이며, “옷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브랜드는 전혀 신경 안 씬”이라고 말함. 그러나 A4씨에게 여행은 예외적 소비 영역임. 그는 여행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비”, “삶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함.

실제로 그는 매년 해외여행을 2~3회 다녀오는데, 동남아·일본 중심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호텔은 적정 가격대(1박 10만 원대)의 가성비 높은 숙소를 선호함. 예산은 대략 100만 원대 중반에서 200만 원 선임. 그는 “사치여행은 안 함. 하지만 여행만큼은 양보 안 함”이라고 말함. 여행을 일상 절약과 절제의 보상 장치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음.

자기계발 성향도 강함. 대학원에 다니며 학기당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학위는 투자라고 생각함. 기회비용이 크더라도 후회 안 함”이라고 말함. 또한 공제회 저축 등 장기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

가구 내 재정운영은 공동 관리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각각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축·여행자금으로 활용함. 그는 “둘이 돈 쓰는 스타일이 비슷해서 싸울 일이 거의 없음”이라고 말함.

종합하면, A4씨는 공기관 안정층이면서 절제형 소비를 유지하되 여행·자기계발에는 확실히 투자하는 ‘선택적 지출형 전문직 여성’임. 금융에서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신용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여행에서는 감정적 만족과 회복을 중시함. 노동은 안정의 기반이고, 소비는 절제 속에서 선택적으로 즐거움을 확보하는 구조임.

□ A5씨 - 대기업 전문·디자인 직군(30대 초반, 기혼·맞벌이)

A5씨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국내 상위권 제조업 그룹의 디자인·브랜딩

관련 부서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배우자 또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가구로, 합산 가구소득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젊은 부부임. 그는 자신의 현재 노동환경을 “빠듯하진 않은데, 대신 기준선이 높은 회사임”이라고 표현함. 성과평가가 강하고 프로젝트 압박도 있지만 고용 안정성과 보상체계는 전고하다고 말함.

소득구조가 특징적임. 기본 연봉은 5천만 원대이지만 성과급이 연 4천만~5천만 원 수준이라 총소득이 크게 상승함. 그는 “성과급이 거의 목돈처럼 들어와서, 그걸로 투자계좌를 채움”이라고 말함. 전세 보증금 5억 8천 중 2억 2천만 원은 전세대출이지만 이 또한 고정금리 기반이라 큰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음.

A5씨의 금융행위는 명확히 ‘투자우선형’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주식·펀드에 투자하며, 이는 소득의 30~4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임. 그는 “소비는 통제하는 거고, 투자는 내가 키우는 거임”이라고 말함. 레버리지(빚투)는 하지 않지만, 현금흐름 내에서 최대한의 투자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함.

카드 사용도 절제적이어서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신용카드는 자동이체 정도만 사용함. 이유는 “신용카드 쓰면 경계가 흐려짐”, “돈 쓰는 느낌이 잘 안 남”이기 때문임.

일상 소비는 절제적임. 옷·화장품·식비 등 소모성 소비는 최소화하며, “사치품은 아예 관심 없음”이라고 말함. 다만, 운동·영어수업 등 자기계발에는 월 30만~40만 원을 투자함. 그는 이를 소비가 아닌 “생활패턴 유지비”로 인식함.

그러나 여행만큼은 강한 선호를 보임. 그는 “그나마 여행은 아끼지 않음”, “일이 너무 바쁘니까 여행이 빠져버리면 삶이 너무 말라버림”이라고 말함. 여행은 국내 1~2회, 해외 1회 정도인데 대개 2~3일 일정의 단기 여행을 선호함. 아시아권 기준 50만~100만 원 수준, 유럽은 300만~500만 원대 예산을 사용함. 여행은 경험 중심이며, 명품 쇼핑이나 과시적 소비는 거의 없음. 호텔·식당 선택도 가성비·만족감 중심임.

노동에 대한 태도는 실용적임. 그는 “이 회사는 나를 키우는 도구임”이라고 말하며,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매우 명확히 갖

고 있음. 소비보다 투자, 감정보다 계획, 과시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함.

가계 내에서는 부부가 재정을 분리하며 각자의 투자와 저축을 관리함. 생활비는 정해진 금액만큼 공용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구조임. 그는 “돈 문제로 싸울 일이 거의 없음”이라고 말함.

종합하면 A5씨는 ‘투자우선형 절제 소비자’로, 대기업 안정층 가운데서도 강한 재무규율과 자산증식 전략을 가진 유형임. 소비는 최소화하고, 여행·자기계발 등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며, 금융행위는 안정적 페이스로 높은 투자비중을 유지함.

그는 스스로를 “아끼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임”이라고 설명함. 이는 그의 소비·금융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임.

□ B1씨 - 중견 법률·서비스 기업 사무직(30대 중반, 미혼·자가 보유)

B1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수도권 소재 중견 법률·서비스기업의 경영 기획본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음. 경력은 4년 차이지만 부서 내 책임이 큰 편이며, 고용안정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함. 그는 스스로를 “내가 원하면 계속 다닐 수는 있겠지만, 인사이동이나 구조조정 리스크는 늘 있음”이라고 말함. 미혼이며 혼자 거주하고 있음.

주거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로, 생애최초로 5억 원대 중반의 주택을 매입한 경험이 있음. 주택담보대출 약 4억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상환액이 170만 원 정도임. 그는 “월급 들어오면 가장 먼저 대출 상환부터 보고, 나머지를 쓰는 구조임”이라며, 주택대출이 소비 전반의 기준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명확히 인식함. 또한 차량 대출 4백만 원대 잔액이 소액 남아 있지만 곧 상환 예정임. 그는 대출에 대해 “많이 빌려봤기 때문에 무섭진 않는데, 대신 상환은 꼬박꼬박 함”이라고 말함.

금융행위는 절제적·계획적 성향이 매우 강함. 카드 사용은 월 20만 원 미만이며, 체크카드 중심의 제한적 신용소비자임. 특히 인상적인 점은 지출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습관임. 그는 “가계부를 쓰면 내가 어디서 새는지 보임. 이게 나를 지켜주는 도구임”이라고 말함. 20대 시절 신용카드 과소비 경험이 있어, 그 이후 강한 자기규율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보임. 신용점수는

940대이며, 연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함.

저축은 과거에 월급의 50%를 저축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주택 매입 이후 여유가 줄어 현재는 30만~40만 원 정도만 남기고 있음. 그는 “대출 상황이 저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함”이라고 말해, 상환행위를 재무건전성 유지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며, 소액 ETF 정도만 관심을 두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중단함. 투자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데, 내 일도 벅차서 못하겠음”이라고 언급함.

소비성향은 매우 절제적임. 외식·카페 등 비필수 지출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혼자 사는 만큼 생활비도 낮게 관리됨. 그의 말에 따르면 “사치성 소비는 아예 없음. 나에게 필요한 건 책 정도임”이라고 함. 실제로 문화비는 월 10만 원 수준에서 책·강의 중심으로 쓰임.

여행은 거의 가지 않음. 그는 “여행을 가면 좋긴 한데, 갔다 와서 돈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싫음”이라고 말함. 휴가도 대부분 집이나 도서관에서 보낸다고 하며, 특수한 경우(지인의 결혼식 등) 외에는 여행비 지출은 거의 없음. 여행을 소비로 인식하기보다 “돈 썸부터 하게 되는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임.

노동·소득에 대한 그의 관점은 안정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임. 그는 “월급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돈이 안 되면 버티기 힘들”이라고 말함. 노동은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안정과 재무건전성의 기반으로 의의가 큰 편임.

종합하면, B1씨는 ‘절제형 안정 실무자’의 전형임. 금융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소비는 생활필수 중심으로 유지하고, 여행·취향소비는 거의 하지 않음. 그의 삶의 중심에는 ‘대출 상황’과 ‘재무 규율’이 있으며, 이는 “쓸데 없다면 안 쓴다. 그게 편함”이라는 그의 말로 요약됨.

□ B2씨 - 청년 비정규 여성(20대 중반, 단기계약직·미혼)¹⁾

B2씨는 20대 중반 청년 여성으로, 공공·교육지원 계열의 단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계약은 10~12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형태이

1) 녹음은 누락되었으나, 당시 메모를 기반으로 복원한 서술이다.

며, 실제로는 매년 “다시 재계약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음. 그는 자신이 처한 고용 조건을 “다음 달은 괜찮겠지만, 내년은 장담 못 함”이라고 표현했음.

월 소득은 180만~22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근로시간은 규칙적이지만 임금 상승 여지는 거의 없음. 그는 “일은 안정적인데,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음”이라고 말함. 이런 불안정성은 소비와 금융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줌.

금융 접근성은 매우 낮음. 그는 신용대출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본인 말로는 “대출은 겁나서 못 함”, “한 번 잘못되면 인생이 휘청일 것 같음”이라고 말함. 신용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는 신용을 확장할 만한 여력이나 동기가 없기 때문임. 금융은 기회라기보다 위험·부채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는 이를 “돈 빌리면 빚 생각에 잠 못 잘 것 같음”이라고 설명했음.

신용카드는 1장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한도는 크지 않고 대부분 체크카드 중심의 소비를 함. 이유는 명확함. “체크카드는 내 잔고 안에서만 쓰게 돼서 안전함.” 그는 신용을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확장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적금도 현재는 하지 않으며, 급여는 대부분 생활 비로 소진됨. 유일한 재무적 관리는 “마이너스 안 나게 버티는 것” 정도임.

소비는 생존에 가깝게 절제되어 있음. 식비·교통비 등 고정적 지출은 최소화하고, 의류·문화비는 ‘필요 설명’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정도로 엄격함. 그는 “나에게 쓰는 돈은 항상 미안한 돈임”이라고 말했고, 특히 또래의 소비 패턴과 비교될 때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표현함. 직장 동료들의 카페·택배 지출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쓰나 싶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여행은 그의 삶에서 결핍 혹은 부채감의 영역임. SNS를 통해 여행 사진을 자주 보지만 실제로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해외여행은 수년 동안 가지 못했고, 국내여행도 연 0~1회, 그것도 비용을 최소화한 당일치기나 친구 집에서 머무르는 형태임. 그는 “여행은 하고 싶는데, 다녀오면 텅 빈 통장부터 걱정됨”이라고 말함. 여행은 즐거움보다 경제적 불안이 먼저 떠오르는 소비임.

노동·소득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일은 계속 해야 하나까 하는 거고,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표현했음. 미래 전망을 이야기할 때도 “결혼이나 집 같은 건 상상하기 어려움”이라고 말해, 노동시장 지위가 생애계획 전체에 불안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드러냈음.

종합하면 B2씨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의 전형적인 ‘금융배제·여행결핍·생존소비형’을 보여주는 사례임. 안정적 소비능력이 부족하고 금융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투자·여행 등 사회적·경험적 소비는 배제되거나 지연됨. 그는 이를 직접 “내 인생은 늘 다음 달 계산부터 시작함”이라고 표현했음.

□ B3씨 - 중소 제조업 생산·기술직(30대 후반, 기혼·자녀 2명)

B3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수도권 인근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근속 5년 이상으로 회사에서의 자리는 안정적이지만, 그는 자신의 노동을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다닐 수 있지만,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음”이라고 말함. 즉, 개인의 고용안정은 확보되나 기업 차원의 불안정성이 상시 배경으로 깔려 있음.

그는 기혼자이며, 배우자도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임.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며, 자녀양육·교육비가 가구경제의 핵심 지출 항목을 차지함. 실제로 그는 “우리 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먹는 건 교육비임”이라고 표현함.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월평균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가계의 여유를 앗아가는 주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금융행위는 명확히 필요대출형임. 그는 과거 개인회생과 관련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떠안았던 경험이 있음. 지금은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3천만 원대와 배우자 명의의 전세대출(7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는 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남의 돈 쓰는 건 항상 신경 쓰임”이라고도 함.

신용점수는 약 700점대로, 연체 이력과 회복 경험이 있어 금융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임. 그는 신용카드를 배우자 명의 카드를 함께 쓰고 있으며, 본인만의 카드 사용은 매우 제한적임. 월 60만 원 정도를 카드로 쓰는데 이것도 대부분 꼭 필요한 지출(기름값, 간식비, 흡연비, 회식비 등)임. “카드값 나오면 바로 팍팍 느껴지니까 많이 못 씬”이라고 말함.

할부 사용은 신중하며, 무이자할부만 예외적으로 활용함. TV, 냉장고 같은 내구재 구매 시 3~6개월 무이자할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말함. 그

는 “일시불로 큰돈 나가면 멘탈이 흔들림”, “무이자는 마음이 덜 아픔”이라고 표현함.

여행은 가족 중심의 저비용 여행 패턴임. 국내 여행은 연 3~4회 가지만 대부분 1박 2일의 근거리 여행이며, 비용은 30만~60만 원 정도로 제한함. 해외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거의 없음. 그는 “여행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집은 현실적으로 교육비가 더 중요함”이라고 말함. 또한 주말에는 아이들과 영화·전시 등 소소한 여가를 보내는데, 이것도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형태임. OTT 구독은 유지하지만 고가의 문화·레저 소비는 없음.

소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절제’와 ‘가족 중심성’임. 그는 스스로의 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위한 취미나 개인적 지출은 극히 제한적임. 본인의 월 용돈은 약 20만 원 수준이며,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만 피우니까 그 정도면 됨”이라고 말함. 차량 유지비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를 오래 타는 편임.

노동과 소득에 대한 그의 관점은 실용적이고 책임 기반임. 그는 “월급은 우리 가족이 굴러가게 하는 연료임”이라고 말하며, 노동을 ‘생계유지의 절대적 기반’으로 인식함. 자아실현이나 경력육구보다 가족 안정이 우선이며, 그로 인해 금융·소비·여행에서도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가 강화됨.

종합하면 B3씨는 맞벌이 중소 제조업 가구의 전형적 ‘생계·가족 중심 절제소비자’임. 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소비는 가족 중심 영역에서 최소화, 여행은 저비용·저빈도, 금융은 위험회피적임. 그는 자신의 삶을 “별면 쓰고, 필요한 곳 먼저 막고, 남아야 여행 가는 구조임”이라고 설명함. 이는 그의 재무·소비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말임.

□ C1씨 - 플랫폼 배달노동자(30대 후반, 기혼·자녀 1명)

C1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배달 플랫폼 세 곳(배민·쿠팡·카카오익)을 병행해 일하는 전형적인 다중 플랫폼 종사자임. 경력은 6년을 넘어서며,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변화—외주화, 하청조직 증가, 일감 감소—를 몸으로 겪어온 인물임. 그는 스스로의 노동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벌이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님”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고용불안과 소득변동성이 상시 존재함.

현재 가구는 기혼 맞벌이 형태이며,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 1명 있음. 배우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안정적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계경제의 중심축은 배우자의 고정소득임. 그는 이에 대해 “내 월급은 우리가 굴러가게 해주는 보조 연료 같은 느낌임”이라고 말함.

금융행위는 필요 최소한만 활용하는 보수적·방어적 금융행태임. 본인 명의의 신용점수는 약 700점대로, 이는 과거 가족 관련 채무를 대신 떠안으면서 개인회생 경험이 있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금융 접근성은 다른 플랫폼 종사자보다도 제한적임. 그는 현재 신용대출 3,600만 원을 보유하고 매달 40만~5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고 있음. 배우자 명의의 전세대출(7천만 원)이 별도로 존재함.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함. 월 카드 사용액은 60만 원 안팎이며, 모두 생활필수 지출임. 그는 “카드 끊으면 다음 달이 두렵다”는 표현을 자주 했음. 할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내구재에 한해 무이자 3~6개월만 허용함. “무이자 는 털아픈 돈, 유이자 는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말이 그의 금융정체성을 압축함.

소비는 가족 중심의 절제적 생계소비임. 개인 용돈은 월 20만 원 정도로 매우 낮고, “나한테 쓰는 돈은 거의 없음”이라고 말함. 식비·교육비(자녀 태권도·학원비)는 우선순위 지출이며, 문화비나 자기계발비는 최소화됨. OTT 구독 정도가 유일한 취향 지출임.

그럼에도 C1씨에게 여행은 중요한 정서적 보상 장치임. 국내 여행을 월 1회 정도 가며, 대부분 1박 2일로 50만~80만 원 수준임. 해외여행은 딱 한번(발리) 가본 적 있지만, 현재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렵다고 말함. 그는 여행을 “유일하게 가족이랑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고, 휴식보다 정서적 회복의 목적이 강함.

노동의 의미를 묻자 그는 “일은 그냥 가족 유지의 버팀목임”이라고 답했음.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동을 자아 실현이나 경력개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순전히 생계적 기능으로 인식함. 반면, 상가 임대소득 등 소규모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나의 두 번째 기둥임”이라고 말해,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미래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

종합하면 C1씨는 ‘플랫폼 중산층 : 불안정 · 절제 · 가족 중심형’의 매우 전형적인 사례임. 금융은 상환 중심, 소비는 생계 중심, 여행은 정서 회복 중심, 노동은 생존 유지 장치로 기능함. 그의 말 “힘들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임”은 이 유형을 가장 정확히 대변함.

□ C2씨 - 플랫폼 전업 라이더(30대 후반, 기혼 · 무자녀)

C2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특정 단일 배달 플랫폼(쿠팡이츠 계열)의 전업 라이더로 일하고 있음. 그는 플랫폼 노동 경력이 8년에 이르며, 이전에는 다른 배달대행업체 및 단기 물류직을 병행했음. 현재는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13~15시간씩 근무하며, 주 6일 일하는 고강도 노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노동시간이 과중함에도 그는 이 일을 “내가 선택한 것 중 가장 확실한 수입을 주는 일”이라고 표현함. 월소득은 약 650만 원 수준(연 7,8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위권임.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실 때는 돈을 못 벌어서 쉬는 게 두 배로 손해임”이라고 말함. 고수입이지만 고정급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시간 의존형 고소득자로서 소득 안정성은 낮은 편임.

가구는 기혼이지만 아직 자녀가 없으며, 배우자는 연 2천만 원대 소득의 사무직 종사자임. 그는 가게 운영에서 자신이 ‘주 수입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전세대출 2억 원과 자동차 할부 2천만 원이 남아 있으며, 매달 약 2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감. 그는 “빛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함”이라고 말함.

금융행위는 고신용 + 무대출주의라는 이중적 성향을 동시에 지님. 신용점수는 나이스 930 · KCB 880대이며, 그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김. “신용은 명예임”이라는 직접 표현은 그가 신용을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닌, 생활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그는 레버리지 투자를 극도로 회피함.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님”, “그런 건 욕심의 시작임”이라고 말함. 과거 코인 2억 원 투자 후 큰 손실을 겪은 경험이 있어, 현재는 투자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음.

일상 소비는 절제적임. 식비·생활비는 배우자와 분담하지만, 그는 “먹는 거 말고는 거의 안 씀”이라고 말함. 한 달 소비의 절반 이상은 고정비(대출 상환·보험료·주유비)가 차지함. 여가소비는 매우 적고, 오히려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즐거움”이라고 표현함.

그러나 여행만큼은 예외적 소비 영역임. C2씨는 여행을 정기적인 자기 보상으로 인식하는 유형임. 해외여행은 1년에 1~2회(주로 일본·동남아), 국내여행은 1~2회 추가로 가며 비용은 대체로 100만 원대 중후반임. 그는 “일만 하면 사람이 말라버림. 한 번쯤 물가 싸고 깨끗한 곳 가서 숨 쉬고 와야 함”이라고 말함. 여행은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노동의 반복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함.

특징적으로, 소비구조 전반에 가성비 감각이 강함. 여행에서도 고급 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숙박·식비·관광 모두 합리적 가격대를 유지함. 그는 “좋은 데서 자는 것보다 하루 더 쉬는 게 좋음”이라고 말해, 소비보다는 시간·휴식 자체를 가치로 두는 성향임.

노동에 대한 그의 관점은 실용적이며 동시에 자기규율적임. 그는 “능력 없으면 오래 못 버티는 일”, “이 일은 근성으로 버티는 거임”이라고 말함. 노동은 힘들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낌. 반면 미래에는 “더 나이 들면 개인택시 쪽으로 가야 함”이라고 말하며, 일종의 내부 경력전환 전략을 가지고 있음.

종합하면 C2씨는 ‘고강도 노동 기반 고소득형 플랫폼 노동자’로, 금융에서는 보수적이고 소비에서는 절제적이지만, 여행에서는 감정적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지출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임. 그의 말 “실 때 못 버는 돈이 너무 커서, 여행은 곧 결심임”은 그의 삶의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임.

□ C3씨 - 영상편집 프리랜서(30대 초반, 미혼·1인 가구)

C3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유튜브 영상편지를 주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노동자임. 4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며, 고정 클라이언트 몇 명을 중심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있음. 소득은 월 250만~27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인터뷰 알바·제품 테스트 알바 등 부업 수입이 월 50만~70만 원 정도 추가됨.

그는 이를 “내가 벌어야 할 만큼만 버는 구조임”이라고 말함.

주거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반전세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전세대출로 충당하고 있음. 전세이자만 월 40만 원 내외로 부담되고, 따로 월세 30만 원을 내는 구조임. 그는 “돈 모아서 독립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받아서 독립한 케이스임”이라고 솔직히 밝힘.

금융행위는 극도로 보수적·무차입주의적 성향을 보임. 신용카드는 아예 만들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함. 이유를 묻자 “카드를 빚임. 빚을 지면 내가 나를 못 믿을 것 같음”이라고 답함. 소득 변동이 크고, 지출을 정확히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신용소비를 아예 금지하고 있음.

투자는 소규모 단타형 주식이 중심임. 시드머니는 1천만 원 정도이며, 하루 30분~1시간 정도 차트만 보고 당일 매도하는 방식임. 그는 “떨어지는 건 안 팔고,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림”이라고 말함. 손실 대비 공포가 매우 강한데, 이는 과거 한 번의 큰 손실 경험이 현재의 투자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함. 그는 레버리지·신용투자를 극도로 혐오하며, “대출해서 투자하면 인생 꼬이는 거 한 순간임”이라고 말함.

소비에는 전체적으로 절제·미니멀리즘에 가까움. 식비·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은 억제하고, 의류·신발·가전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함. 대신 영상편집 장비(컴퓨터·모니터)는 투자한다고 말함. 최근 데스크톱을 200만 원 주고 현금 일시불로 샀다고 함. 그는 “일에 필요한 건 과감하게 사고, 그 외엔 거의 안 씀”이라는 소비 원칙을 가지고 있음.

여행은 분기 1회 정도 가는 편임. 2박 3일 기준 50만~60만 원을 사용하며, 대부분 국내 여행임. 일본에 한 번 다녀온 것이 유일한 해외 경험임. 그는 “돈도 돈이지만, 해외는 준비가 너무 번거로움”이라고 말함. 국내여행은 ‘짧은 숨고르기’ 같은 의미라고 하며, 여행의 중심은 맛집·카페·산책 같은 소소한 활동임. 여행비 역시 철저히 예산 안에서 관리함.

노동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자율성 중심임. 그는 “회사 다닐 때보다 200만 원 적게 벌어도 지금이 백배 나옴”이라고 말함. 과거 사무직으로 일할 때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견디기 어려웠고, 프리랜서로서의 시간 주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존재함을 인정함. “지금처럼 영원히 살 순 없다는 건 앎”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주 언급함.

종합하면 C3씨는 ‘현금주의 절제형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사례임. 금융은 배제되고 소비는 미니멀하며, 여행은 짧고 저비용 중심의 정서적 회복 수단임. 노동은 자율성의 원천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깊게 내재한 상태임. 그는 스스로를 “덜 벌어도 내 시간 가지고 사는 게 내 인생의 기준임”이라고 표현함.

□ C4씨 - 교육 · 콘텐츠 프리랜서(30대 후반, 미혼 · 부모동거)

C4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유아교육 콘텐츠를 기획 · 설계하는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음. 원래는 유치원 교사로 시작해 출판사 콘텐츠기획 직무로 이동한 뒤, 1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업했음. 그는 스스로의 경력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넓혀온 경로임”이라고 설명함.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프리랜서 특유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그는 “나도 독립하고 싶긴 한데, 한 달 벌이가 고정이지 아니라서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함”이라고 말함.

연소득은 약 4,900만 원 선이지만, 월별 변동폭이 큰 편임. 일이 몰릴 때는 400만 원 이상, 한가할 때는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함.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그는 소비와 금융에서 극도로 절제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본인의 표현처럼 “일이 될 때가 있어서, 안전하게 가는 게 편함”이라는 태도가 전반적인 재무행동을 규정함.

금융행위는 안정추구형임. 부모 도움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를 전세로 놓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1억대 + 소액 신용대출 1천만 원이 존재함. 그는 “부모님이 이자도 많이 도와주셨음”이라고 말해, 안정적 자산 배경이 일부 존재함을 드러냄. 신용점수는 700~800점대 중반이며, 금융기관 이용은 예금 · 연금 보험 중심임. 그는 “주식은 감정 기복 때문에 못 함”, “코인은 그냥 저축처럼 아주 조금만 함”이라고 말함. 투자보다 보수적 저축을 선호함.

소비패턴은 절제적이지만, ‘자기개발 · 건강 · 여행’에는 선택적으로 지출함. 필라테스 · 수영 등 운동에 월 50만~60만 원을 쓰고 있으며, 이는 “몸이 망가지면 일을 계속 못 한다”는 이유임. 대학원(사이버대) 등록금도 학기당

약 300만 원이며, 그는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김. 반면 패션·사치·외식 등 비필수 소비는 극도로 낮음. 실제로 의류 구매는 “계절 바뀔 때 한 두 벌 정도”라고 말함.

여행은 그의 정서적 중심축임. 그는 3개월에 한 번꼴로 해외 단기여행을 가며, 주로 동남아·홍콩·마카오 등 2박 3일~3박 4일 일정임. 예산은 150만~200만 원 정도이며, “여행은 내 리셋 버튼임”,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소비”라고 말함. 국내여행은 상대적으로 확연히 즐겼는데, 이유는 “서울·경기권은 금방 다녀오니까 굳이 ‘여행’ 느낌이 안 남”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됨.

여가생활은 문화를 소비하기보다는 창작에 가까운 형태임. 무료 전시·도서관·작업 스튜디오 활용이 많고, 공방 활동과 대학원 수업이 여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그는 “내 삶은 예술하고 일하고 여행 가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됨”이라고 설명함.

노동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확장·자기실현의 통로임. 그는 “프리랜서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게 내 호흡에 맞음”이라고 말함.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한 삶의 방식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오래가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교육 관련 콘텐츠 회사 차리고 싶음”이라고도 말함.

종합하면 C4씨는 ‘자기개발형·여행집중형 프리랜서 여성’의 전형임. 금융은 보수적으로 유지하지만, 여행·건강·교육에는 과감히 투자하며, 노동은 자아실현의 수단임. 그의 말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여행 가는 게 내 루틴임”은 그의 소비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임.

□ D1씨 - 서비스 자영업자(30대 후반, 기혼·자녀 1명)

D1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수도권 내 오피스 상권에서 피부관리실을 9년 넘게 운영해온 자영업자임. 그는 자신의 직업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라고 묘사함. 동시에 “내가 쉬면 매출이 0원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노동·소득 구조는 극도로 불안정함. 하지만 그 불안정성을 감내하면서도, 그는 이 일을 “적성에 맞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직업”이라고 말함.

가구는 기혼이며, 배우자는 현재 구직기 상태임. 네 살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으며, 전체 가계소득은 사실상 D1씨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피부관리실 월매출은 600만~700만 원 선, 순이익은 300만 원 증반대임. 계절과 예약 변동에 따라 매출의 상·하차가 심하지만 그는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함”이라고 말해, 자영업 특유의 불안정성을 경험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보여줌.

금융은 극도로 보수적·방어적임. 현재 부채는 소상공인 정책대출 약 3천만 원이 유일하며, 이자도 매우 낮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그건 쓸 일이 없음.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빚까지 있으면 잠이 안 옴”이라고 말함. 그는 사실상 현금주의에 가까운 자영업 재무선을 지키고 있음.

카드 사용은 있되, 대형 지출은 미리 모아서 일시불 패턴임. “무이자라도 나눠 쓰면 마음이 불편함”, “할부는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음”이라고 표현함. 소비 패턴은 기본적으로 가족 중심의 절제형임. 식비·생활비는 철저히 관리하고, 사치품·명품은 전혀 소비하지 않음. 아이 관련 비용(어린이집·체육활동 등)은 우선순위 지출이며, 본인을 위한 소비는 거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예외 영역임. 그는 1년에 해외여행 2회를 꾸준히 다녀오며, 모두 150만 원 안팎의 가성비 여행임. 국내여행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가 더 선호됨. 이유는 “국내는 뭔가 돈 대비 분위기가 안 남. 해외가 더 ‘쉬고 왔다’는 느낌이 있음”이라고 설명했음. 문화예술 소비는 자녀 중심(어린이 뮤지컬 등)으로 제한되며, 개인적 취향 소비는 적음.

노동·소득에 대한 그의 관점은 매우 명확함. “소득은 들쭉날쭉하지만 고객이 만족하면 스트레스가 풀림”이라고 말함. 노동은 자아실현이자 생계이고, 휴식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음. 자영업자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감정노동이 많음에도 그는 즐김과 만족감을 강조함.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기가 크면 더 안정적인 직업 생각할 수도 있음”이라고 말해, 현 노동의 불안정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

종합하면 D1씨는 서비스 자영업자 유형 중 ‘정서적 직업 몰입 + 재무 절제형’의 대표 사례임. 수입의 변동성을 감내하고 불안정성을 숙명처럼 받아

들이며, 대신 빚을 회피하고 소비를 철저히 관리함. 여행은 삶의 작은 보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좋아서 계속 가는 중임”이라고 표현함.

□ D2씨 - 기술서비스 자영업자(30대 후반, 기혼 · 자녀 3명)
(자동차 정비업 카센터 운영, 10년 차)

D2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수도권 근교에서 자동차 정비 카센터를 10년 넘게 운영해 온 기술 기반 자영업자임. 그는 고졸 이후 곧바로 정비업계에 들어와 6년간 기술을 익힌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했고, 지금까지 한 업종만 꾸준히 이어온 사람임. 본인은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음. 하지만 앞으로는 솔직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봄”이라고 말함. 이는 산업 변화(전기차 증가, 자동차 구조 단순화)에 대한 투명한 인식임.

가구는 다섯 명으로 구성됨.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자녀는 모두 초등학교 생 세 명임. 그는 “교육비가 제일 큼. 세 명 보내려면 돈이 너무 빨리 나감”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교육비만 월 100만 원 수준이 나감. 월 생활비 전체로는 250만~300만 원 가량이 필요함. 가족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비구조는 거의 생존형 · 필수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음.

카센터의 월매출은 700만~800만 원 정도이며, 순이익은 600만 원대임. 하지만 계절 · 차종 · 거점 유동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매달 변화가 큰 편임. 그는 “정비는 기술직이지만, 반은 운임. 날씨 · 경기 떨어지면 바로 티 남”이라고 설명함.

노동시간은 9~10시간 수준이고 주 6일 근무가 기본임. 그는 노동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라고 표현함.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9천만 원 정도이며, 월 55만~60만 원을 꼬박 상환함. 신용대출은 없음. 신용카드는 있지만 지출한도를 크게 넘기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출은 무이자 할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50만 원 넘는 돈은 무조건 무이자할부로 나눔. 그래야 다음 달이 안 무거움”이라고 말함.

그러나 큰 구조적 부채(신용대출 · 사업대출)는 극도로 기피함. 그는 “빚 많으면 잠이 안 옴”이라고 표현하며, 대부분의 자영업 재무 행위를 ‘리스크

억제' 중심으로 관리함.

흥미로운 점은, 그는 투자에 대한 욕망은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투자회피형이 됐다는 것임. 주식 300만 원어치를 보유하다가 4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손을 떼었고, 이후 단 한 번도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를 하지 않음. “투자는 내 길이 아님. 일하고 버는 게 내 길임”이라고 말함.

여행은 가족 중심이며, 저비용·단기형이 대부분임. 근거리 당일치기나 1박 2일 여행이 월 1~2회 정도 발생하고, 연 1회 해외(동남아·3박 5일·가족 5명 약 400만 원) 정도를 다녀옴. 해외여행도 가성비 중심으로 계획함. 그는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님”이라고 말함.

자기 자신을 위한 여행이나 취향소비는 사실상 없음.

소비 전반은 철저히 실용적이고 가족 지출 우선순위가 극명함. 그는 “내가 쓰는 돈은 거의 없음. 애 셋 키우면 내 소비는 사치임”이라고 말함. 골프는 한 달 한 번 정도 업무성으로 간단히 치는 것 외에는 취미 소비가 없음.

노동·소득에 대한 그의 인식도 매우 꾸준함. 그는 노동을 ‘생존의 기반’,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생계적 기능 외의 의미는 거의 부여하지 않음. 동시에 산업 변화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늘면 정비업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걱정됨”이라고 말함.

종합하면 D2씨는 기술자영업자 유형의 전형적 ‘생존형·절제형·가족우선형’임. 투자나 금융확장 없이 안정적 현금흐름에만 의존하며, 소비는 가족 중심, 여행은 의무적 보상 수준, 노동은 생계유지의 핵심임. 그의 말 “지금은 무리 안 하고 버티는 게 최선임”은 D2씨의 생애경제적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임.

□ D3씨 - 청년 F&B 창업자(20대 후반, 미혼·부모동거)
(티하우스·OEM 납품 병행 창업자, 감성소비·경험소비 중심)

D3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강원권 중소 도시에서 티하우스(찻집)와 OEM 차 제조 납품 사업을 병행하는 청년 창업자임. 대학 졸업 후 일반 기업·공기관에서 근무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했고, “계속 회사 다니다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직장생활에 강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함. 2023년부터 차 제조를 시작했고, 2024년에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티하우스를 열어 소규모 팀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주거비가 0원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완충장치임. 직접 말하길 “부모님 집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못 했을 것임”이라고 했음.

수입은 월 250만~300만 원(가게 매출 + 부업 포함)을 안정적으로 번다고 보기 어렵지만, 본인은 “돈 때문에 이 일 하는 건 아님”이라고 강조함.

금융행위는 비신용 · 현금주의 · 무레버리지라는 특징을 보임. 사업자 마이너스통장 1,500만 원 한도를 보유하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음. 그는 “마이너스는 진짜 급할 때만 써야 함. 안 쓰는 게 마음 편함”이라고 말함.

신용카드를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유는 분명함. “신용카드 긁으면 내가 어디까지 쓰는지 감이 사라짐”, “나는 통제하는 소비가 필요함”이라고 설명함.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음.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에는 명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빚내서 투자하는 건 인생 실수임”이라고 단언함. 주식은 하지 않고, 예금도 최소한만 유지함. 사실상 자산축적보다 경험소비와 사업 확장에 더 관심을 둬.

소비는 감성적 · 경험적 소비가 매우 강한 유형임. 외식 · 커피 · 문화활동 · 전시 · 공연 등을 위해 서울을 자주 올라감. 그는 “서울은 가면 돈 쓰는 곳이 아니라 영감을 받는 곳임”이라고 표현함. 월 소비액은 250만~300만 원, 수입의 거의 전부가 소비로 소진됨. 그는 이를 절약하려 하지 않으며 “20대는 경험을 먹고 살아야 함. 돈은 나중에 벌면 됨”이라고 말함.

여행은 그의 삶에서 가장 상징적인 소비 영역임. 국내는 연 20회 안팎, 해외여행은 연 3~4회를 다녀옴. 비용도 다른 사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일본 등 아시아권 여행은 70만~100만 원, 미국 등 장거리 여행은 300만~500만 원 수준임. 그는 여행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소비”, “일보다 여행이 나를 만듦”이라고 표현함.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창작 동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임.

특징적으로, 그는 여행에서조차 소비를 통제하지 않음. 가성비보다 경험 · 분위기 · 미식이 우선함. 이는 다른 플랫폼 · 자영업 사례들과 뚜렷하게 구

분되는 지점임.

일상 소비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성적인 소비’를 추구함. 좋은 카페를 찾아가거나 신상 디저트를 맛보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함.

노동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경험 중심으로 매우 독특함. 그는 “노동은 나에게 재미의 일부여야 함”, “재미없으면 못 한다”라고 말함.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표현·창작의 한 방식으로 인식됨. 이는 생계 중심의 중장년 자영업자와 완전히 다른 패턴임.

종합하면 D3씨는 ‘청년 감성형 창업자’, 혹은 ‘경험·정체성 기반 소비자’의 전형임. 금융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비·여행은 삶의 중심이며, 노동은 자아실현의 연장임. 그의 말 “돈은 경험을 위해 쓰는 것임”은 전체 소비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 문장임.

□ D4씨 - 예술·공방 창업자(30대 초반, 미혼·결혼 예정)
(유리공예 공방 운영 + 대학원 병행, 절제형·창작형 자영업자)

D4씨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수도권에서 유리공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 창작·자영업자임. 그는 20대 후반까지 일반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회사 다닐 때는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음”이라고 말함. 이후 유리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몇 년간 준비 후 공방을 직접 열게 됨.

현재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음. 월세로 거주 중이며 전세대출 6천만 원이 존재함. 그는 “월세와 대출이 같이 나가는 구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긴 함”이라고 말함. 학자금대출도 약 600만 원 남아 있어 부채가 완전히 적은 편은 아님.

소득은 공방 매출(수업·렌탈·제품 판매) 기반으로 연 5천만 원 안팎이며, 월별 변동폭이 큼. 공방 임차료가 월 85만 원에 달하고, 대학원 등록금이 월 환산 100만 원 정도로 부담됨. 그는 “일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 나는 구조임”이라고 말함.

금융행위는 보수적·방어적임. 신용대출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월 70만~80만 원 범위에서만 사용함. 할부는 극도로 기피함. 그는 “할

부는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함”, “돈은 모아서 한번에 쓰는 게 마음이 편함”이라고 말함.

저축은 잠시 중단된 상태임. 공방과 대학원에 자금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축은 여유 있을 때 하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시기라고 생각함”이라고 설명함. 예금 소액과 부모가 가입해준 청약통장 정도가 자산 기반임.

특징적으로, 소비는 절제 + 자기개발 중심임. 패션·명품·외식 등 비필수 소비는 거의 하지 않지만, 운동·예술·교육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함. 필라테스·수영 등 운동에 월 50만~60만 원을 쓰며, 이는 “몸이 망가지면 당장 일이 끊기기 때문임”이라고 말함.

여행은 삶의 중요한 부분임. 해외여행은 연 1회 정도 동남아·일본 중심의 저비용 여행이며, 국내여행은 1~2회 정도임. 그는 “일이랑 공부가 너무 박세서, 분기별로 잠깐씩이라도 나가 있어야 리셋됨”이라고 표현함.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서적 환기’로 기능함.

특히 여행에서 과소비를 하지 않고, 가성비 높은 호텔·식사·교통을 선호함. 공방 운영 중에도 여행은 통제되지만 완전히 포기되지는 않음.

노동에 대한 그의 관점은 명확히 자아실현형임. 그는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는 일인데, 이상하게도 이게 만족스러움”이라고 말함. 공방 운영은 생계뿐 아니라 창작 과정이며, 대학원 공부도 단순히 경력적 동기보다 ‘작품의 깊이’를 위한 선택임.

미래에는 “공방을 더 안정화하고, 온라인 강의나 클래스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싶음”이라고 말함.

종합하면 D4씨는 절제·자기투자·의미 소비를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는 청년 예술 자영업자임. 금융행위는 보수적이며 소비는 자기개발 중심이고, 여행은 정서적 유지 장치면서도 관리된 형태임. 그의 말 “지금은 돈 버는 시기가 아니라 쌓는 시기임”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가치관임.

□ E1씨 - 전문직 변리사(30대 중반, 기혼·임신 중·맞벌이)
(고소득 + 빚투 경험 + 레버리지 기반 자산형성형)

E1씨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수도권 기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일하고 있음. 경력은 10년이 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고숙련 직업인임. 겉으로만 보면 안정적 전문직이지만, 그는 자신의 고용을 “연봉은 높아 보이지만, 사실상 매년 계약직이나 마찬가지로 임”이라고 설명함. 성과가 없으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는 구조라, 그는 스스로를 ‘고소득 불안정층’으로 정의함.

현재는 배우자와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신 중임. 배우자는 공공부문 종사자로 연 6천만 원대 소득이 있음. 본인 소득은 약 9천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성과 기반 변동이 포함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함. 그는 “딱히 사치 없이 살아도 내 소득만으로는 안정이라고 확신 못 함”이라고 말함.

그러나 진짜 특징은 금융행위—특히 ‘빚투 경험’임. 그는 20대 후반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적극 사용했고, “스물여섯 때 마이너스 8천으로 집부터 샀음”이라고 말함. 이후 코인에 2억 원을 넣었다가 3억 원으로 만들었고, 이 수익 전액을 다시 부동산에 투입함. 그는 이를 “영끌이 아니라 전략임”, “빚을 갚으면 기회를 놓침”이라고 설명함.

대출에 대한 태도는 극도로 공격적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금융자산의 일부로 간주하며, “대출은 신용 점수만 유지되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것”이라고 말함. 실제로 신용점수는 1등급(1,000점)에 해당함.

다만 소비는 반대로 극도로 절제적임. 보험은 월 10만 원 이하, 휴대폰은 알뜰폰 요금제(월 1.9만 원), 외식·패션 소비 모두 최소 수준임. 그는 “소비자는 재테크의 방해물임”이라고 말함. 대신 효도, 가족경조사 등 의미적 지출에는 후하게 쓰는 편임. 자동차도 6개월 장기할부로 구입했지만 이는 “현금은 투자해야 하니까, 차값은 신용으로”라는 논리임.

여행은 거의 하지 않음. 그는 여행을 “시간도 돈도 아까운 소비”라고 평가함. 마지막 해외여행은 8년 전 부모님 효도여행이었고, 이후 개인여행은 거의 없음. 이유는 명확함. “여행 가서 100만 원 쓰면, 그 돈이 내년에 300만 원 될 기회를 날리는 거임”이라는 표현이 이 태도를 압축함. 즉, 여행은 그의 소비세계에서 ‘유보해야 할 소비’이며, 투자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그는 삶의 질을 포기한 사람은 아님. 그는 “나는 소비는 줄이지만, 선택은 내가 함”이라고 말함. 커다란 TV(86인치)를 200만 원대로 무이자 할부로 구입해 집 공간의 편안함을 중시하기도 함.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소비는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절제임.

노동과 금융의 관계도 독특함. 그는 “노동은 금융소득을 위한 기반”이라고 말함. 노동 그 자체에 가치를 두기보다, 노동이 생산하는 ‘신용·자본·기회’에 가치를 둬. 현재의 직업을 안정적 기반으로 평가하지만, 고용불안이가 늘 상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금융적 자립(부동산 + 금융자산)을 중시함.

종합하면 E1씨는 ‘빚투·레버리지 기반의 전략적 자산형성형 전문직’임. 소득은 높지만 이를 소비로 풀지 않고, 오히려 대출·투자의 레버리지로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함. 여행은 희소하거나 거의 없고, 소비는 절제적이며, 금융적 기회 최대화가 삶의 중심 원리가 됨. 그녀의 말 “대출을 두려워하면 빈손으로 늙음”은 전형적인 빚투 세대의 철학을 함축한 문장임.

□ E2씨 - 응급의학과 전문의(30대 초중반, 기혼·자녀 3명)
 (고소득이지만 대출회피·절제소비가 뚜렷한 “고소득 절제형 전문직”)

E2씨는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민간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담 전문의로 일하고 있음. 경력 7년 차이며, 야간전담 형태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함. 그는 자신의 노동환경을 “돈은 많이 벌지만 몸은 갈수록 상함”, “쉬면 바로 마이너스라 쉬는 게 두 배로 손해임”이라고 말함. 노동강도는 매우 높고, 고소득이지만 소득의 예측가능성은 낮으며, 고용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유지되는 구조임. 본인은 이를 “의사라도 안정적인 직장은 아님”이라고 표현함.

가구는 배우자(교육직 종사)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비·교육비 부담이 상당함. 배우자는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으며, 두 사람의 재정은 ‘부분 분리형’으로 운영됨. 그는 가계에서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아이 셋 키우면 내가 쓸 돈은 없음”이라고 말함.

눈에 띄는 특징은 소득 대비 극도로 절제된 금융·소비행태임. 그는 현재 마이너스통장 2억 4천만 원 규모의 부채와 학자금대출 약 5,800만 원을 상환 중임. 그러나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출 자체를 심리적 부담으로 여김. 그는 “빚 있는 게 마음이 무거움. 숫자만 봐도 스트레스임”, “가능한 빨리 원금을 ‘0’으로 만들고 싶음”이라고 말함.

투자는 사실상 하지 않음. 그는 “욕심 부리면 패가망신함”이라는 강한 경

계심을 갖고 있으며, 금융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 아님.

소비 역시 절제적임. 신용카드는 5~6개를 돌려쓰지만 모두 분류된 고정비(통신·보험·렌탈)를 자동이체 용도로만 사용함. 일상지출과 선택소비는 거의 일시불로 처리하고, 무이자할부도 잘 쓰지 않음. 그는 “무이자라도 나눠 쓰면 지출 감각이 무뎌짐”이라고 말함. 가계 용돈은 스스로에게 매우 인색하며, 개인적 취향지출은 거의 없음. 외식·쇼핑·취미지출은 모두 제한되어 있음.

여행은 그의 소비구조에서 배우자·자녀 중심의 의무적 지출임. 그는 “여행은 아내가 좋아해서 가는 것. 솔직히 난 별로”라고 말함. 해외여행은 연 1~2회로, 일본·동남아 지역을 5~7일 다녀오는 편이며, 가족 5명 기준 300만~800만 원 규모 지출이 발생함. 그는 “여행은 돈이 들지만, 가족이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나는 쉬어도 쉬는 느낌이 잘 안 남”이라고 말함.

여행은 ‘보상소비’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비에 가까운 구조가 됨.

그는 노동에 대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일반 회사원보다 못 벌 때도 있음”, “내가 일하는 방식은 몸으로 때우는 것임”이라고 표현함.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노동을 자아실현이 아니라 생계·가정유지·부채청산의 수단으로 이해함. 그는 장기적으로 “빛 갠고 근로시간 줄이고 싶음”이라고 말함.

종합하면 E2씨는 ‘고소득 절제형 전문직’의 전형임. 소득은 높지만 대출을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고, 투자에도 소극적이며, 소비는 가족 중심으로만 이루어짐. 여행 역시 가족의 요구에 따라 가는 구조이지 개인적 즐거움의 영역은 아님. 그의 말 “과소비는 자기합리화임, 참는 게 편함”은 그의 금융·소비 세계관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장임.

□ E3씨 - 세무사·전문직 자영업(30대 중반, 미혼·1인 가구)

(보수적 대출활용형 + 고정비 큰 전문직 자영업자 + 감성·여행 중심 여가)

E3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중부권 중형도시에서 세무사로 개업한 전문직 자영업자임. 원래는 8년 동안 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2025년 초에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으며, 이제 막 3~4개월 정도 운영을 시작한 상태임. 개업

초기임에도 그는 “근로소득자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삶의 만족은 확실히 올라감”이라고 강조함. 노동의 자율성이 커졌고, 조직 안에서의 감정적 피로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임.

현재는 단독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사무실과 가까운 오피스텔 월세(75만 원)에 살고 있음. 그는 삶을 꾸리는 방식이 매우 간결하고 규율적임. “혼자 살면 비용이 좀 나와도 내가 통제 가능해서 편함”이라고 말함.

금융행위는 보수적·실용적임. 개업 자금으로 사업자대출 1억 원을 받았고, 현재 잔액은 약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음. 그는 대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빚의 양을 늘리려 하지도 않음. “대출은 사업운영을 위한 도구지,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건 절대 안 함”이라고 말함.

마이너스통장도 5천만 원 한도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임. 그 이유는 “사용하면 감각이 무너짐”, “내 돈인지 은행 돈인지 구분이 흐려지는 게 싫음”이라고 설명함.

소비도 매우 절제적이지만, 여행만큼은 분명하게 ‘자기 돌봄’의 영역으로 남겨둠. 그는 해외여행을 2개월에 1번꼴로 다녀오며, 대부분 일본 등 3박 4일 일정이고 예산은 150만~200만 원 정도임. “여행은 내가 사는 이유 같은 느낌임”, “사무실 작업하면서 답답해지면 바로 떠남”이라고 말했음.

국내여행은 드라이브·맛집 위주로 분기 1회 정도 다니며, 비용은 소액임. 그는 여행에서도 사치보다는 효율·스트레스 해소를 중심으로 소비함. “가성비 좋으면 됨. 럭셔리할 필요 없음”이라는 말이 인상적임.

카드 사용은 단순함. 신용카드 3개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전액 일시불로 처리함. 할부는 일체 하지 않는데, 이는 “할부는 돈 감각 흐려짐. 귀찮고 불편하고 싫음”이라는 이유임. 그는 월세와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가 커서, 불필요한 변동비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설명함.

투자는 장기 보유 주식 2억 원이 중심임. 다만 수익률은 좋지 않고, “물려 있어서 그냥 들고 있음”이라고 표현함. “주식은 팔아야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냥 장기 전략이라고 우감”이라고 스스로 웃으며 말하기도 했음. 추가 투자는 하지 않으며, 적극적 투자자(E1 유형)와 달리 그는 ‘보수적 보유형·현상 유지형 투자자’임.

노동의 의미는 사회적 지위·전문성·자기확인의 장이라고 말함. 그는

“세무사라는 직업이 은근히 존중받는 느낌이 있음”이라고 말했고, 근로소득자로 일할 때보다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내 이름 걸고 일하니까, 힘들어도 이상하게 만족감이 큼”이라고 덧붙임. 다만 새로운 고객이 생기고 유지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별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목표임”이라고 설명함.

종합하면 E3씨는 전문직 자영업자 유형 중에서도 ‘보수적 대출활용 + 절제소비 + 여행의 정서적 비중 대형화’라는 독특한 조합을 가진 사례임. 금융은 도구로 활용하되 위험은 통제하고, 소비는 대부분 억제하면서도 여행은 중요한 감성적 균형 장치로 남겨둠. 그의 말 “일은 반복이고, 여행은 리셋임”은 그의 생애경제 구조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임.

◆ 執筆陣

-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 지위와 소비 격차에 관한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25년 12월 26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1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837-7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837-7